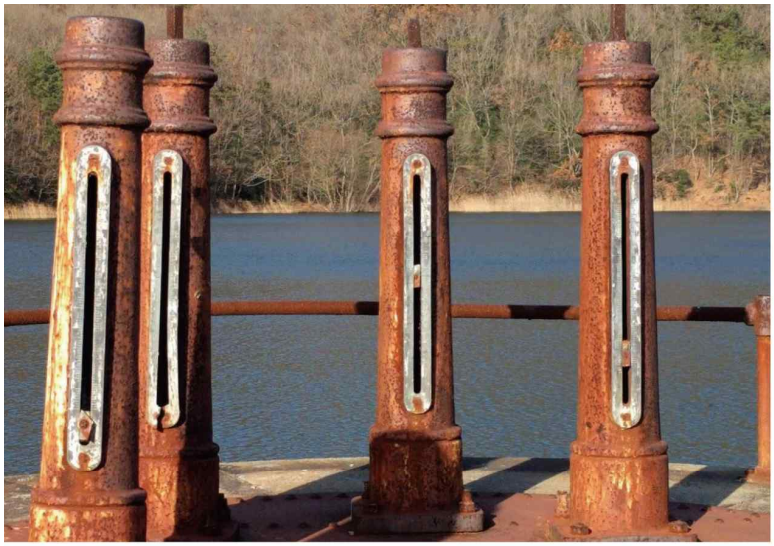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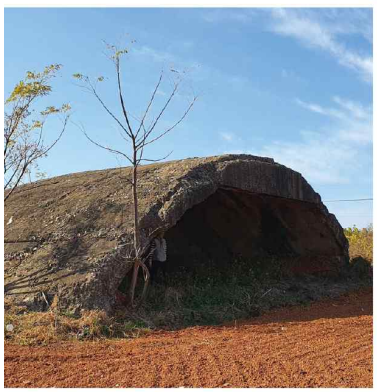




무안 근대문화유산 조사

무안군. 2019

C O N T E N T S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 3
2. 무안군의 역사와 근대유산 ····· 5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구성 ····· 8

Ⅱ. 근대문화유산 조사

1.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 11
2.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 26
3.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 37
4. 무안 현경 방공포대 ····· 62
5. 무안 병산 방공호 ····· 69
6. 무안 병산 참호 ····· 77
7.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 83
8.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 98

Ⅲ. 종합 고찰

1. 근대문화유산의 역사 및 건축사적 의미 ····· 109
2. 보존 및 활용 방안 ····· 110
3. 지속적 조사 및 연구 ····· 115

표목차

표 1. 조사목록 ····· 4
표 2. 무안군 문화재 지정 현황 ····· 6
표 3. 조사일정 ····· 8
표 4. 조사단 구성 ····· 8
표 5.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현황 조사표 ····· 11
표 6. 일로성당 주요 연혁 ····· 17
표 7. 역대 주임신부 명단 ····· 18
표 8.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현황 조사표 ····· 26
표 9. 무안성당 연혁 ····· 27
표 10.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현황 조사표 ····· 37
표 11.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현황 ····· 38
표 12. 무안 현경 방공포대 현황 조사표 ····· 62
표 13. 무안 병산 방공호 현황 조사표 ····· 69
표 14. 무안 병산 참호 현황 조사표 ····· 77
표 15.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현황 조사표 ····· 83
표 16.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현황 조사표 ····· 98
표 17.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목록 ····· 111
표 18.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지정 신청목록 ····· 113

그림목차

그림 1. 무안현 중심부 성내 관아 배치 모습 ····· 7
그림 2. 일로성당 위치도[지적도] ····· 20
그림 3. 일로성당 전체 배치도 ····· 20
그림 4. 일로성당 1층 평면도 ····· 21
그림 5. 일로성당 2층 평면도 ····· 21
그림 6. 일로성당 정면도 ····· 22

그림 7. 일로성당 좌측면도 ····· 22
그림 8. 일로성당 우측면도 ····· 22
그림 9. 일로성당 배면도 ····· 23
그림 10. 무안성당 위치도[지적도] ····· 31
그림 11. 무안성당 배치도 ····· 32
그림 12. 무안성당 1층 평면도 ····· 32
그림 13. 무안성당 1층 평면도[전면 증축 후] ····· 32
그림 14. 무안성당 2층 평면도 ····· 33
그림 15. 무안성당 정면도 ····· 33
그림 16. 무안성당 배면도 ····· 33
그림 17. 무안성당 좌측면도 ····· 34
그림 18. 무안성당 우측면도 ····· 34
그림 19. 송정리 격납고 위치[지적도] ····· 40
그림 20. 평상리 격납고 위치[지적도] ····· 41
그림 21. 송정리 격납고 1 평면도 ····· 43
그림 22. 송정리 격납고 1 입면도 ····· 43
그림 23. 송정리 격납고 1 단면도 ····· 44
그림 24. 송정리 격납고 2 평면도 ····· 46
그림 25. 송정리 격납고 2 B-B′ 종단면도 ····· 46
그림 26. 송정리 격납고 2 입면도 ····· 47
그림 27. 송정리 격납고 2 A-A′ 횡단면도 ····· 47
그림 28. 송정리 격납고 3 평면도 ····· 49
그림 29. 송정리 격납고 3 B-B′ 종단면도 ····· 49
그림 30. 송정리 격납고 3 입면도 ····· 50
그림 31. 송정리 격납고 3 A-A′ 횡단면도 ····· 50
그림 32. 평산리 격납고 1 평면도 ····· 52
그림 33. 평산리 격납고 1 B-B′ 종단면도 ····· 52
그림 34. 평산리 격납고 1 입면도 ····· 53
그림 35. 평산리 격납고 1 A-A′ 횡단면도 ····· 53
그림 36. 평산리 격납고 2 평면도 ····· 56
그림 37. 평산리 격납고 2 B-B′ 종단면도 ····· 56
그림 38. 평산리 격납고 2 입면도 ····· 57
그림 39. 평산리 격납고 2 A-A′ 횡단면도 ····· 57

그림 40. 평산리 격납고 3 평면도 ····· 59
그림 41. 평산리 격납고 3 B-B′ 종단면도 ····· 59
그림 42. 평산리 격납고 3 입면도 ····· 60
그림 43. 평산리 격납고 3 A-A′ 횡단면도 ····· 60
그림 44. 방공포대 지하층 평면도 ····· 64
그림 45. 방공포대 지붕층 평면도 ····· 65
그림 46. 방공포대 입면도 ····· 65
그림 47. 방공포대 단면도 ····· 66
그림 48. 병산 방공호 1 평면도 ····· 71
그림 49. 병산 방공호 1 단면도 ····· 71
그림 50. 병산 방공호 2 평면도 ····· 73
그림 51. 병산 방공호 2 단면도 ····· 73
그림 52. 병산 방공호 3 평면도 ····· 75
그림 53. 병산 방공호 3 단면도 ····· 75
그림 54. 병산 참호 1호기 평면도 ····· 79
그림 55. 병산 참호 1호기 단면도 ····· 79
그림 56. 병산 참호 2호기 평면도 ····· 81
그림 57. 병산 참호 2호기 단면도 ····· 81
그림 58. 상수시설 위치도 ····· 84
그림 59. 제 1 상수시설 침전지 및 기계실 전체 배치도 ····· 87
그림 60. 제 1 상수시설 기계실 평면도 ····· 88
그림 61. 제 1 상수시설 기계실 정면도 ····· 88
그림 62. 제 1 상수시설 침전지 전체 단면도 ····· 88
그림 63. 제 2 상수시설 침전지 및 기계실 전체 배치도 ····· 92
그림 64. 제 2 상수시설 기계실 평면도 ····· 93
그림 65. 제 2 상수시설 기계실 입면도 ····· 93
그림 66. 제 2 상수시설 침전지 A-A′ 단면도 ····· 94
그림 67. 왕산리 근대 한옥 위치도[지적도] ····· 99
그림 68. 왕산리 근대 한옥 전체 배치도 ····· 100
그림 69. 왕산리 근대 한옥 안채 평면도(현재) ····· 101
그림 70. 왕산리 근대 한옥 안채 평면도(건립당시) ····· 101
그림 71. 왕산리 근대 한옥 안채 입면도 ····· 102
그림 72. 왕산리 근대 한옥 사랑채 평면도 ····· 102

사진목차

사진 1. 무안 향교 대성전 ····· 7
사진 2. 무안 유교리 고택 안채 ····· 7
사진 3. 무안 식영정 ····· 7
사진 4. 무안 원갑사 대웅전 ····· 7
사진 5. 무안 화설당 ····· 7
사진 6. 현 환학동 공소 ····· 12
사진 7. 목조공소로 여겨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 12
사진 8. 초대 본당 신부인 기신부(Thomas P.Kane) ····· 13
사진 9. 본당 신축 상량식에 모인 신자들(1958) ····· 14
사진 10. 옛 성모마리아상 ····· 14
사진 11. 상량보에 앉아 있는 신부님 ····· 14
사진 12. 상량식 후 기념촬영 ····· 14
사진 13. 첫 영성체 기념 촬영 ····· 14
사진 14. 첫 영성체 기념 촬영 ····· 14
사진 15. 마루가 깔려 있던 본당 ····· 15
사진 16. 성당 내부 보수공사 중 기념예배 ····· 15
사진 17. 성당 내부 현재의 모습으로 바닥 공사 ····· 15
사진 18. 우천으로 성당에서 치른 레지오 행사 ····· 15
사진 19. 본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촬영 ····· 16
사진 20. 본당을 배경으로 한 영세 기념 촬영 ····· 16
사진 21. 본당 마당에서 치른 부활대축일 행사 ····· 16
사진 22. 일로성당 위치도 [항공사진] ····· 20
사진 23. 남측에서 바라 본 일로성당 전경 ····· 23
사진 24. 본당 전경(좌측면) ····· 23
사진 25. 본당 정면 ····· 24
사진 26. 정면 박공부 ····· 24
사진 27. 성체조배실 ····· 24
사진 28. 우측면 ····· 24
사진 29. 좌측면 돌출부 상세 ····· 24
사진 30. 외부 창호 상세 ····· 25

사진 31. 벽체 돌쌓기 상세 ····· 25
사진 32. 내부 전경 ····· 25
사진 33. 제단부 ····· 25
사진 34. 진입부(로비) ····· 25
사진 35. 측면 일부에 남아있는 원형 목창호 ····· 25
사진 36. 1916년에 미국 선교사가 지은 목포 프렌취병원 ····· 30
사진 37. 1910년에 현대식으로 지은 목포 양동교회 ····· 30
사진 38. 무안성당 위치도 [항공사진] ····· 31
사진 39. 무안성당 전경 ····· 35
사진 40. 정면 종탑부 ····· 35
사진 41. 우측면 돌출부(고해실) ····· 35
사진 42. 좌측면 ····· 36
사진 43. 배면 ····· 36
사진 44. 측면 돌림띠 ····· 36
사진 45. 전면 증축부 ····· 36
사진 46. 창호(스테인 글라스) ····· 36
사진 47. 성당 전체 내부 ····· 36
사진 48. 제단부 ····· 36
사진 49. 성당 종합관 ····· 36
사진 50. 1940년대 초 일본군 군사 시설 위치도 (해방전후) ····· 39
사진 51. 1940년대 초 일본군 군사 시설 위치도 (2019년) ····· 39
사진 52. 송정리 격납고 위치 [다음 위성사진] ····· 40
사진 53. 평산리 격납고 위치 [다음 위성사진] ····· 41
사진 54. 격납고 상부 표면 ····· 42
사진 55. 내부 판재 거푸집 ····· 42
사진 56. 송정리 격납고 1 원경 ····· 44
사진 57. 송정리 격납고 1 근경 ····· 45
사진 58. 송정리 격납고 1 내부 ····· 45
사진 59. 송정리 격납고 1 입구 ····· 45
사진 60. 송정리 격납고 1 상부 (거푸집) ····· 45
사진 61. 송정리 격납고 2 전경 ····· 47
사진 62. 송정리 격납고 2 좌측면 ····· 48
사진 63.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 48

사진 64.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측면 하부 ····· 48
사진 65.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상부 (거푸집) ····· 48
사진 66. 송정리 격납고 3 정면 ····· 50
사진 67. 송정리 격납고 3 배면 ····· 51
사진 68. 송정리 격납고 3 정면 상세 ····· 51
사진 69. 송정리 격납고 3 입구 상부 ····· 51
사진 70. 송정리 격납고 3 지붕 전면부 상세 ····· 51
사진 71. 송정리 격납고 3 지붕 상부 콘크리트 상세 ····· 51
사진 72. 평산리 격납고 1, 2기 전경 ····· 54
사진 73. 평산리 격납고 1 정면 전경 ····· 54
사진 74. 평산리 격납고 1 우측면 전경 ····· 54
사진 75. 평산리 격납고 1 배면 ····· 55
사진 76. 평산리 격납고 1 내부 전경 ····· 55
사진 77. 평산리 격납고 1 내부 상부 (거푸집) ····· 55
사진 78. 평산리 격납고 1 지붕 상부 콘크리트 상세 ····· 55
사진 79. 평산리 격납고 2 정면 전경 ····· 57
사진 80. 평산리 격납고 2 전면부 전경 ····· 58
사진 81. 평산리 격납고 2 좌측면 전경 ····· 58
사진 82. 평산리 격납고 2 후면부 ····· 58
사진 83. 평산리 격납고 2 정면 구조 상세 ····· 58
사진 84. 평산리 격납고 3 좌측면 전경 ····· 60
사진 85.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전경 ····· 61
사진 86. 평산리 격납고 3 입구 ····· 61
사진 87.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좌측 하단부 ····· 61
사진 88. 평산리 격납고 3 정면 처마부 상세 ····· 61
사진 89.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천장 ····· 61
사진 90. 2018년 방공포대 위치도(다음지도) ····· 63
사진 91. 1948년 방공포대 위치도(국토지리정보원) ····· 63
사진 92. 방공포대 전경 / 배 · 좌측면 ····· 66
사진 93. 방공포대 지하 내부(복도) ····· 67
사진 94. 방공포대 지하실 내부 ····· 67
사진 95. 방공포대 상부 전경 ····· 68
사진 96. 방공포대 정면 전경 ····· 68

사진 97. 방공포대 총알 흔적 ····· 68
사진 98. 방공포대 실내 통풍구 ····· 68
사진 99. 방공포대 돌출개구부 (지붕상부에서 지하실내) ····· 68
사진 100 방공포대 돌출개구부 (지하실내에서 지붕상부) ····· 68
사진 101. 방공호 위치도 (다음 위성지도) ····· 70
사진 102. 병산 방공호 1 입구 ····· 72
사진 103. 병산 방공호 1 내부 전경 ····· 72
사진 104. 병산 방공호 1 입구 전경 ····· 72
사진 105. 병산 방공호 1 벽 상세 ····· 72
사진 106. 병산 방공호 2 입구 주변 전경 ····· 73
사진 107. 병산 방공호 2 입구 ····· 73
사진 108. 병산 방공호 2 입구 경사로 ····· 74
사진 109. 병산 방공호 2 내부, 끝부분 ····· 74
사진 110. 병산 방공호 2 내부 상부 ····· 74
사진 111. 병산 방공호 3 입구 전경 ····· 75
사진 112. 병산 방공호 3 입구 ····· 75
사진 113. 병산 방공호 3 내부 ····· 76
사진 114. 병산 방공호 3 내부 상부 ····· 76
사진 115. 병산 방공호 3 내부 측면 ····· 76
사진 116. 병산참호 위치도 ····· 78
사진 117. 병산 참호 1호기 전경 ····· 80
사진 118. 병산 참호 1호기 하단부 ····· 80
사진 119. 병산 참호 1호기 홀 ····· 80
사진 120. 병산 참호 1호기 하부 ····· 80
사진 121. 병산 참호 1호기 전경 ····· 80
사진 122. 병산 참호 2호기 전경 ····· 81
사진 123. 병산 참호 2호기 홀 모습 ····· 82
사진 124. 병산 참호 2호기 내부 매립토사 제거작업 ····· 82
사진 125. 병산 참호 2호기 모습 ····· 82
사진 126. 병산 참호 2호기 측면 ····· 82
사진 127. 병산 참호 2호기 모습 ····· 82
사진 128. 상수시설 위치도 - 다음 위성사진 ····· 84
사진 129. 상수시설 위치도 - 1976년 항공사진 ····· 85

사진 130. 1920년대 수원지 둑 아래 모습 ····· 85
사진 131. 1920년대 수원지 전경 ····· 85
사진 132. 관로 제작연대/ 大正三年(1914) ····· 86
사진 133. 1920년대 수원지 전경 ····· 86
사진 134. 1920년대 수원지 전경 ····· 86
사진 135. 침전지 전체 전경 ····· 89
사진 136. 기계실 정면 ····· 89
사진 137. 기계실 내부 ····· 89
사진 138. 침전지 상세 전경 ····· 89
사진 139. 제 1 상수시설 수원지 전경 ····· 90
사진 140. 취수정 지하통로 입구 출입부 ····· 90
사진 141. 취수정 입구 출입문 명패, 瑞露溪 [서로계] ····· 90
사진 142. 취수정 전경 ····· 90
사진 143. 취수정 진입 지하 통로 ····· 91
사진 144. 댐 석축 배수로 ····· 91
사진 145. 댐 안측 석축 ····· 91
사진 146. 침전지 전경 ····· 94
사진 147. 침전지 상세 1 ····· 94
사진 148. 침전지 상세 2 ····· 94
사진 149. 기계실 전경 ····· 95
사진 150. 기계실 좌측면 ····· 95
사진 151. 기계실 내부 ····· 95
사진 152. 수원지 전경 ····· 95
사진 153. 취수정 및 연결교량 및 취수정 ····· 96
사진 154. 취수정 전경 ····· 96
사진 155. 취수정 상부 ····· 96
사진 156. 취수정 상부 시설물 ····· 97
사진 157. 교량 상부 ····· 97
사진 158. 저수 댐 진입 중앙 계단 ····· 97
사진 159. 저수댐 안쪽 석축 ····· 97
사진 160. 외부 송수 관로 ····· 97
사진 161. 근대한옥 위치도 (다음 지도) ····· 99
사진 162. 안채 정면 전경 ····· 103

사진 163. 안채 좌측면 전경 ····· 103
사진 164. 우측 합각부 ····· 104
사진 165. 용마루 기와 ····· 104
사진 166. 대청 상부 광창 ····· 104
사진 167. 광 출입문 ····· 104
사진 168. 대청 천장 ····· 104
사진 169. 안채 전면 퇴 칸 ····· 104
사진 170. 안채 기단 ····· 105
사진 171. 안채 대청 ····· 105
사진 172. 사랑채 전경 ····· 105
사진 173. 사랑채 전면 퇴칸 상부 ····· 105
사진 174. 사랑채 광창 ····· 105
사진 175. 등록문화재 지정 사례 ····· 112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무안군의 역사와 근대유산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구성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1-1. 조사 배경

- 근대문화유산이란 19세기 말 개항 기 무렵부터 한국전쟁 후 인 1950대 쯤 까지 건립되거나 만들어진 각종 건축물, 산업구조물, 기록물 등을 말한다. 19세기 말 부터는 서구의 각종 근대문화가 급속히 한반도에 유입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로 도시 중심으로 다양한 양식의 석조나 벽돌건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건축 통사적으로 근대건축이라고 한다. 근대유산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20세기 중반이후 또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현대라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는 비록 짧은 시기에 조성 된 유산이지만 학술적이나 생활 문화사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그 한 예로 서울 북촌과 전주의 근대한옥 촌을 들 수 있다.

-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는 한국의 근대건축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서양의 건축적 특징과 결합되어 나타난 근대건축의 형성 및 수용과정 유형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이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논의는 2001년 문화재청에 의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보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그 속에 담긴 역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존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 본 조사는 공간적 범위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전남 무안군으로 한정한다. 조사 배경은 그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도 관심밖에 있었던, 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역사 및 건축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또한 그러한 문화유산을 향후 어떻게 보존하고 아울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본 조사의 배경이 된다.

1-2. 조사 목적

- 무안에 현존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건축 및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헌조사, 현황실측 등을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한다.
- 축적된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 점점이, 또는 군(群)으로 존재하는 보전 가능한 건축물의 소재 및 건축적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향후 무안 도시 및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한다.
- 데이터베이스화 한 근대건축문화자산 중 우수 자산을 문화재(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로 신청하여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1-3. 조사 내용

- 연혁 및 역사적 관련 문헌자료 등 자료수집, 조사
- 건물양식 및 특징 등 현황조사
- 실측조사 및 간이 도면작성(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 기록용 각종 사진 촬영

1-4. 조사 목록

표 1. 조사목록

번호	명 칭	소재지	건립 연도	분류	비고
1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40	1958년	종교시설	
2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7	1957년	종교시설	
3	무안 현경 격납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평산리	1940년대 초	전쟁시설	6기
4	무안 현경 방공포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산 88	1940년대 초	전쟁시설	
5	무안 병산 방공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산 59-5	1940년대 초	전쟁시설	3기
6	무안 병산 참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산 59-5	1940년대 초	전쟁시설	2기
7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49,38	1916년,1928년	전쟁시설	2기
8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872	1938년경	주거시설	

2 무안군의 역사와 근대유산

- 무안군(務安郡)은 3읍 6면으로 구성 된 인구 81,189명(2019.11)의 지방자치단체다. 전남 서부지역의 복잡한 리아시스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릉성 평지가 발달했다. 크게 보면 목포와 함께 무안반도에 속해있다.

- 무안은 신라시대 무안군으로 개칭이 되면서 처음으로 무안으로 불리게 됐다. 고려시대에는 나주산하 물량군이 되었고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 에 무안군으로 다시 변경이 되면서 처음으로 현감을 두었다. 세종대에 읍성이 정비될 때 정한 행정편제나 영역이 거의 고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때의 가구는 315호, 인구는 1,030명(남자만의 수)이었다. 한편, 대굴포(大掘浦)에 전라수군 처치사를 설치, 24척의 전선과 1,895명의 선군(船軍)을 배속했고, 목포만호와 다경포만호에 각각 8척의 전함과 490여 명의 선군이 주둔하였다. 세조대의 진관체제 하에서는 대굴포의 수군처치사영이 해남으로 옮겨가 우수영이 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이 고장 주민들은 보평산 전투를 통해 왜군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 근대화가 시작되는 19세기 말 이후의 상황을 보면 1895년 관제개혁 때 나주부 예하의 무안군이 되었고, 1896년 도서지방이 지도군(智島郡)으로 분리되었다. 1897년 10월 목포진의 개항으로 이곳에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되자 무안군도 부로 승격, 청사를 목포로 이전했고 부윤이 감리를 겸임하였다. 1903년 7월 목포감리서가 따로 설치되자 무안부는 다시 무안군으로 강등되었다. 1906년 다시 무안부로 승격하고 감리가 폐지되어 부윤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때 함평군의 다경면·해제면, 영광군의 월경지인 망운면·다경면, 나주군의 월경지인 망운면·삼향면을 편입하였다.

- 1910년 목포부로 개칭하여 무안의 명칭이 없어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다시 분리하여 목포부와 무안군으로 독립하였다. 그 해 지도군 일대와 완도군의 팔금면, 진도군의 도초면이 편입되었고, 이후 이들 도서지역의 분할 이속이 빈번하게 반복되었다. 1939년 성곡면을 몽탄면으로 개칭하였다.

- 무안군은 1897년 목포 개항 이전까지 목포와 신안을 포함한 무안반도의 행정, 경제의 주 소재지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목포부가 설치되고 근대적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갔다. 목포는 개항 이전까지 무안현에 소속된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였으나 개항 이후 외국인 조계지가 형성되고 철도 등의 교통망이 갖추어 지면서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이후 목포는 1950년대까지 정치 행정 물류 등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근대문화유산 특히 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잘 남아있다.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은 사적 289호인 구 일본영사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유산이 국가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 그간 무안군의 근대문화유산은 전문가나 일반인에게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이는 수적인 열세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무안은 전통도시였기 때문에 근대유산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비행장 격납고, 방공포대 등 일제강점기 군사시설과 수원지 시설은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국가문화재급인근대유산임이 드러났다. 한편 목포가 근대 이전의 문화유산이 거의 전무하다면 무안군은 6세기에 축조된 봉대산성을 비롯하여 향교, 정자, 사찰 등 조선시대에 조성된 근대 이전의 역사적 유적이 잘 남아있다는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안군의 문화유산이 목포와 달리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유적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무안의 근대유적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 2. 무안군 문화재 지정 현황 (건조물)

번호	명 칭	소 재 지	종 목	지정일
1	무안 유교리 고택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53-5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1984.01.14
2	무안향교	전라남도 무안군 향교길 20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1985.02.25
3	법천사 목우암	전남 무안군 몽탄면 법천길 482-85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2호	1984.02.29
4	원갑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산길로 266-27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5호	1984.02.29
5	무안 식영정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배뫼) 551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7호	2002.04.20
6	무안 화설당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434-3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1호	2009.03.20

그림 1. 무안현 중심부 성내 관아 배치 모습.
성내 좌우측에 객사와 동헌이 있고 좌측 서문 밖에 향교가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성곽시설과 건물은 없다.

사진 1. 무안향교 대성전

사진 2. 무안 유교리 고택 안채

사진 3. 무안 식영정

사진 4. 무안 원갑사 대웅전

사진 5. 무안 화설당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구성

3-1. 조사기간

- 2019년 10월 22일 ~ 12월 24일

3-2. 조사일정

표 3. 조사일정

내용	조사 일정				
	10월	11월/1-15	11월/16-30	12월/1-15	12월/16-24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현장조사(1차)					
현장조사(2차)					
1차도면·원고작성					
추가 현장 확인					
최종 원고작성					
보고서 인쇄					

3-3. 조사단 구성

표 4. 조사단 구성

기 관	소 속	직 급	성 명	역 활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김 지 민	책임 연구원
		학부4년	이 정 윤	연구 보조원
		학부4년	박 유 수	연구 보조원
		학부4년	오 승 훈	연구 보조원
무안군	문화관광과	과 장	강 명 수	사업 총괄
		팀 장	박 찬 희	사업 기획
		주 무 관	나 호 엽	사업 담당

Ⅱ

근대문화유산 조사

1.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2.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3.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4. 무안 현경 방공포대
5. 무안 병산 방공호
6. 무안 병산 참호
7.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8.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Ⅱ. 근대문화유산 조사

1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표 5.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종교시설
명칭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一老聖堂)	용도	(현) 성당
			(원) 성당
소재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40		
건립	1956년	설계자	미 상
		시공자	대동토건(손양동)
규모	대지면적 : 3,941㎡ 연면적 : 406,6㎡ 건축면적 : 402,6㎡ 층 수 : 1층(전면 종탑부 중층)		
보존상태	양호		
소유자	천주교 광주교구	연락처	062)525-9227
관리자	일로성당	연락처	061)282-5004
구조 양식	- 주구조 : 석조, 조적식 - 지 붕 : 목조 트러스, 맞배지붕 - 양 식 : 절충식		
연혁	일로성당은 1952년 5워 1일에 목포 산정동 성당의 원 신부님이 임시로 일로공소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된 성당이다. 그 후 1956년 5월 10일에 일로성당으로 승격이 있었고, 현재의 본당 건물은 1958년 10월에 지어졌다. 현재 경내에는 본당 외에 사제관, 사무실, 수녀원 등 이 있다. 본당은 단층 석조 건물로 내부 천장은 최근에 리모델링이 되었으나 기본 석구조 만큼은 건립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수리기록	-1990 : 성당 내부 바닥공사(마루 철거), 지붕 스레이트에서 강판으로 교체 -2003 : 창호 공사(목재 창호를 알루미늄 재료로 교체)		
종합의견	건축역사 및 구조, 양식 등에 있어 근대기 이 지역 성당건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가 생전에 진술 한 구체적인 건축내용이 있어 당시 석조건축의 시공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 가치가 있는 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다.		
지정여부	미지정		

1-1. 연혁

천주교 일로(一老)성당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대와 삼향읍과 몽탄면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 성당이다. 이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목포 산정동 성당의 모란(T, Moran, 안)신부가 일로에 공소 설치(1952. 5.1)를 계기로 시작이 됐다. 공소 설립 후 4년만인 1956년 5월 10일에 일로성당으로 승격이 되었고, 현재의 본당 건물은 1958년 9월에 건립됐다. 현재 경내에는 본당 외에 수녀원과 사무실, 식당 등이 있는 종합관이 있다. 이 종합관은 기존의 사제관과 수녀원을 헐고 같은 자리에 2013년 9월에 다시 현대식으로 지은 것이다.

본당은 단층 석조 건물로 내부 천장은 최근에 리모델링이 되었으나 기본 석조구조 만큼은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이 잘 유지되어 있다. 한편 성당 공사를 맡은 기술자(석장) 손양동(1916~2016)이 생전에 건축에 관해 필자에게 기술한 내용이 있어 비교적 건립 당시의 상세한 건축구조도 파악이 됐다. 일로성당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명기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일로 일대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것은 1880년대 함평에서 서용호(베드로)부부가 이곳 환학동으로 이주해 자택에서 주말 예배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본격적인 전파는 무안군 일로면에 목포 산정동 교회 관할로 환학동 공소가 설치(1913)된 이후가 된다. 이 공소가 이 지역 천주교 전파의 첫 계기가 되었고 이후 1920년대 후반기에도 지장리에 공소가 또 설립되었다. 환학동공소는 1956년에 현 일로성당에 편입되었고 1992년에 오래된 목조 공소을 헐고 새로 벽돌조 성전(현 건물)을 신축했다.

공소 설립 이후 주재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첫 신자가 탄생하였고 이어 송신부을 거쳐 모신부 때에 이르러 교세가 확장됐다. 모 신부 재임 시 공소건물을 신축하여 신자들이 증가하다 2차 대전 말기 일제의 수탈로 경제적 피폐와 굶주림 등으로 교우수가 줄고 교세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다시 교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사진 6. 현 환학동 공소

사진 7. 공소(목조)로 여겨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2) 창설기

1953년 10월 27일 산정동 성당 원신부가 일로면 소재지에 본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 일로본당 부지를 매입, 임시공소를 설치했다. 이 공소에서 약 2년간에 70여명이 영세를 받았다.

1956년 5월에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동시에 환학동공소를 편입시켰다. 초대 본당 신부로 기신부(Thomas P.Kane)가 부임했다. 1957년경에는 당시 목포 산정동 본당 관할 공소인 지장리공소와 임성리공소가 폐쇄되고 일로 본당 관할로 편입되어 일로성당의 영역이 크게 확장됐다. 그리고 1958년 9월에 현재의 석조 본당이 건립됐다. 다음은 창설기 공소회장 명단이다.

- 1대 공소회장 : 안응권(베드로)
- 2대 공소회장 : 안응복(다두)
- 3대 공소회장 : 유명출(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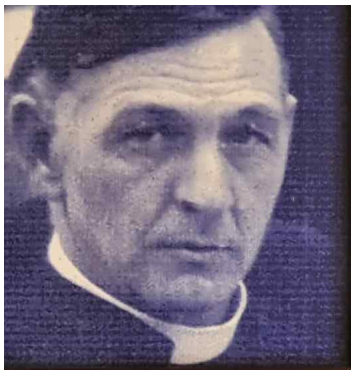


사진 8. 초대 본당 신부인 기신부(Thomas P.Kane)
/ 자료 : 일로성당

일로성당 공사는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석장 손양동이 하였다. 그는 본 성당뿐만 아니라 무안성당, 목포 북교동성당 등 3동을 거의 동시에 맡아 공사를 마무리 했다.

孫良銅(1916~2016)

손양동은 신안 비금에서 출생한 후 바로 목포로 이주하여 사망 전까지 목포에 거주했다. 젊어서부터 토건업에 종사했고 주로 석공사를 많이 했다. 그는 일본 건축업자(坂本吉三郎) 에게서 기술을 배웠으며 해방 후에는 직접 大東土建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목포 뿐 만 아니라 인근 무안, 완도에 까지 많은 석조건물을 지은 이 지역 석조건축의 대부 격으로 불려왔다. 또한 2014년에 목포문화유산 석장으로 지정이 됐다. 해방 후 그가 지은 대표적 건물로는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1950)을 비롯하여 목포 경동천주교회(1954), 완도 수산고등학교 본관(1954), 일로 천주교회(1958), 무안 천주교회(1957), 목포 북교동천주교회(1958), 목포 산정동 천주교회 및 성콜롬방 병원 부지 석축공사(1961)등 많은 건물이 있다. 한편 본 성당 신축공사에 손양동과 함께 쌓기 석공으로 참여했던 기술자로 김성부와 김태일이 있다.

<2014년 필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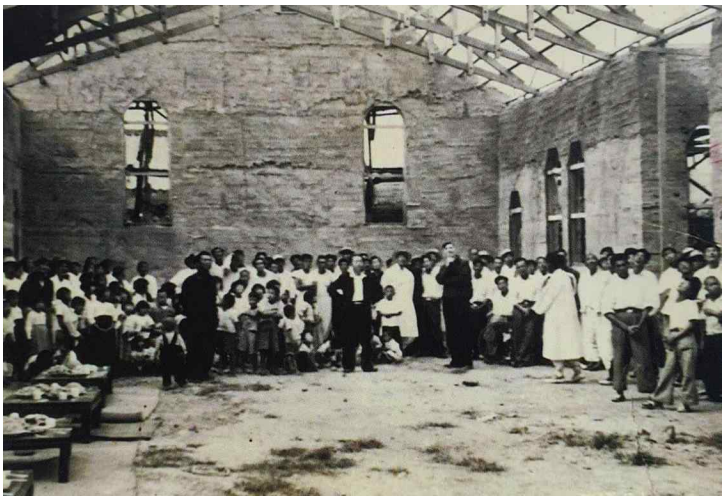


사진 9. 본당 신축 상량식에 모인 신자들(1958)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0. 옛 성모마리아상
/ 자료 : 일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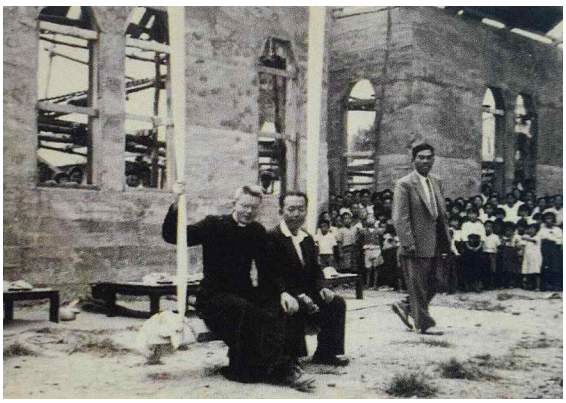


사진 11. 상량보에 앉아 있는 신부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이 손양동 / 자료 : 일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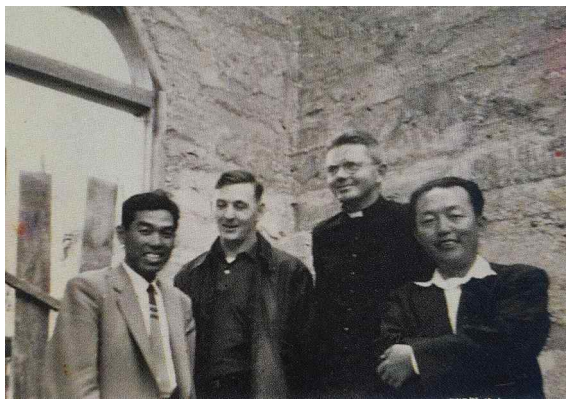


사진 12. 상량식 후 기념촬영
좌측이 공사를 맡은 손양동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3. 첫 영성체 기념 촬영 (1964. 9. 27)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4. 첫 영성체 기념 촬영 (1965. 12. 25)
/ 자료 : 일로성당

3) 성숙기

창설기 이후 다소 침체의 늪에 서 있던 일로성당은 1976년 5월 마브렌따노 신부 부임 후 소재지 젊은 층을 겨냥한 선교의 힘으로 1977년도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세를 받았고 1978년 8월 1일부터 자립본당으로 발전하였다.

1979년 10월 임성리 공소가 목포 용당동 교회로 편입되었고, 1988년 1월 19일 수녀원 및 교리실 증축공사 낙성식이 있었다. 일로성당은 그간 본당 신부 23대를 거치는 동안 교우수 1,065명(냉담자 포함)으로 발전하였고 주일미사 참석자 수도 500여명에 이르렀다.

1987년 6월 엘리아 수녀 부임 이후 3개의 쁘레시디움이 본당 만 18개 쁘레시디움을 창설, 현재에 이르렀다.

사진 15. 마루가 깔려 있던 본당
(1989. 8월 촬영)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6. 성당 내부 보수공사 중
기념예배(1990. 8. 15)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7. 성당 내부 현재의 모습으로
바닥 공사(1990. 7)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18. 우천으로 성당에서 치른
레지오 행사(1992. 5. 7) / 자료 : 일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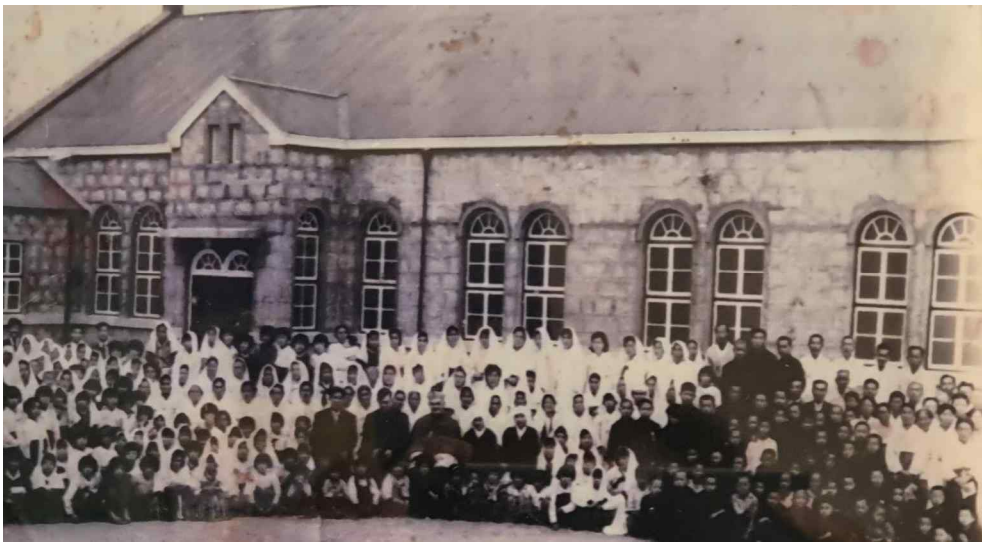


사진 19. 본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촬영. 창호와 지붕 등 건립 당시의 건축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20. 본당을 배경으로 한 영세 기념 촬영 (1986. 12. 24) / 자료 : 일로성당

사진 21. 본당 마당에서 치른 부활대축일 행사 (1993. 4. 11) / 자료 : 일로성당

표 6. 일로성당 주요 연혁

연	월/일	주요 내용
1920년	후반	환학동 공소 설립(목포 산정동 교회 관할)
1953년	10월 27일	현 성당위치를 원 신부께서 매입
1954년	4월 1일	매입부지에 임시 공소 설치(목포 산정동교회 원신부님)
1954년	4월 1일	전교회장 최계철(토마스) 파견
1956년	5월 8일	천주교 일로교회로 본당 승격
1956년	5월 28일	초대 본당 신부 기토마스 신부 부임
1958년	10월 3일	현 본당 건물 낙성식
1958년	11월 2일	인보성체회 강루시아 수녀 초대 수녀로 부임
1969년		구 수녀원 신축
1972년	5월 2일	현 사제관 신축
1978년	8월 1일	자립본당으로 승격
1979년	10월	임성리 공소가 목포 용당동교회로 편입
1988년	1월 19일	현 수녀원 및 교리실 증축공사 낙성식
1989년	6월 30일	김대건 동고상 건립 완공
1989년	12월 22일	목포 교도소 이관으로 대성동 성당에서 일로성당 교정사목 담당
1989년	11월 25일	신 감실 제작 완료
1990년	3월 5일	몽탄 수녀원 축성식 및 성모 카레키스타회 수녀 2분 부임
1991년	3월 24일	본당 자비의 모후 꾸리아 창단
1992년	1월 22일	환학동 공소 개축
1992년	2월 12일	탁 프란치스코 신부 이임으로 골롬반회 철수
1992년	2월 12일	첫 방인사제 임영배(타대오) 신부 부임
1992년	7월 14일	목포 용당동 성당 정 토마스 봉헌으로 현 사무실 증축
1993년	2월 3일	이종혁(베드로)부제 서품(본당출신)
1994년	1월 28일	이종혁(베드로) 신부 첫미사
1994년	3월 7일	현 교육관 신축
1994년	10월 30일	교육관 신축 건물 축성식
1996년	8월 15일	현 행랑방 증축
1998년	2월 3일	몽탄성당 준 본당 승격으로 몽탄공소 이관
2007년	1월 23일	최종훈(토마스) 부제 서품식
2007년	7월 5일	최종훈(토마스) 신부 사제 서품식
2007년	7월 6일	최종훈(토마스) 신부 첫미사

표 7. 역대 주임신부 명단

대수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영문	한글		
1	thdams kane	기신부	토마스	1954.04.28. ~ 1959.07.03.
2	desmond magulre	매신부	데스몬드	1959.10.10. ~ 1960.07.04.
3	olive kennedy	윤신부	올리버	1960.07.09. ~ 1964.03.22.
4	thoms ryan	라신부	토마스	1964.07.06. ~ 1966.09.11.
5	charles carolan	차신부	가롤로	1966.10. ~ 1967.10.20.
6	francis mullany	탁신부	프란치스코	1967.10.25. ~ 1968.11.30.
7	vincent oneill	오신부	빈센트	1968.12. ~ 1969.02.
8	anthony mortell	모신부	안토니오	1969.03. ~ 1970.05.30.
9	longhlin campin	파신부	라흘린	1970.06.20. ~ 1975.03.
10	brendan machale	마신부	브렌따노	1975.05.25. ~ 1979.04.
11	francis royer	노신부	방지거	1979.07.04. ~ 1983.07.20.
12	timothy okeefe	기신부	디모테오	1983.09.16. ~ 1984.12.30.
13	patrick lohan	한신부	바드리시오	1985.02. ~ 1989.02.13.
14	francis mullany	탁신부	프란치스코	1989.02.17. ~ 1992.02.10.
15		임영배	타대오	1992.02.12. ~ 1995.02.03.
16		표재현	토마스	1995.02.03. ~ 1999.02.02.
17		안호석	안드레아	1999.02.04. ~ 2001.02.14.
18		김무웅	율리오	2001.02.14. ~ 2004.09.10.
19		양귀선	안드레아	2004.09.10. ~ 2007.08.31.
20		오재선	도비아	2007.08.31. ~ 2010.09.09.
21		정정원	마론	2010.09.09. ~ 2014.01.
22		배행기	모이세	2014.01. ~ 2017.01.
23		김영호	비오	2017.01. ~ 현재

1-2. 건축 현황 및 특징

일로 성당은 일로읍 소재지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서측만 제외하고 부지 삼면이 약 8m 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남측이 정 출입구이고 북측에도 부출입구가 있다. 부지는 남북이 약 80m이고 동서 측이 약 64m인 장방형이다. 부지 내 건물은 북동쪽 모서리 쪽에 석조 본당이 있고 부지 동측 끝으로 본당과 28m의 거리를 두고 종합관과 수녀동이 있다. 이 건물들은 본래 같은자리에 있었던 사제관과 수녀원을 헐고 2013년 9월에 새로 지은 것이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다. 본당 우측으로는 상가 건물 후면이 바로 면하고 있어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본당 평면은 가로 11,29m, 세로 36,9m의 긴 장방형 건물이다. 중간 4곳에는 고해실 등이 있는 돌출부가 있고 후면 좌측으로도 증축 형식으로 이어진 부속실(성체조배실)이 있다. 정면은 특별한 장식이 없이 박공부가 그대로 드러난 단순한 구조다. 본당 내부는 크게 진입부, 신자실, 설교실(제단) 등 세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다. 진입부에는 중앙에 출입 통로가 있고 좌측으로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이, 우측으로는 현재 유아실이 있다. 진입부 상부는 모두 2층 구조로 꾸며져 있다. 중앙의 신자실은 전체가 통칸으로 중앙 통로 좌우로 모두 49개의 긴 의자가 놓여있다.

건축구조는 석재를 사용한 조적식으로 전면 진입부만 2층 형식이고 그 외는 모두 단층이다. 지붕틀은 ‘ㅅ자’형식의 목조트러스 구조로 목재는 수입재 나왕을 사용했다. 상부 마감은 서까래 위에 1치 두께의 판재를 대고 방수와 단열을 위해 기름종이(당시 ‘고무매트’라고 부름)를 깔고 그 위에 두꺼운 골함석을 올렸다. 현재는 최근에 나온 강판으로 보수되어 있다.

기초는 줄기초로서 1차로 폭 90cm, 높이 45cm 정도의 크기로 잡석다짐을 하고 그 위에 2차로 폭 30cm, 높이 30cm의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하였다. 그리고 맨 하단 돌은 지표면에 묻히게 하였다.

외벽의 돌쌓기는 지면으로부터 처마 안쪽 상부까지 정면은 26켜, 양 측면은 12켜로 모두 외벌쌓기로 되어있고 하단에서 3켜 위에는 돌림띠를 두었다. 석재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보통 가로 30cm, 깊이(폭) 12~15cm, 높이 30cm 크기의 석재가 보편적으로 사용됐고 가로 줄눈은 수평으로는 일정하나 세로만큼은 일정치 않다. 석재의 표면은 중간 정도의 혹두기 마감으로 되어 있다.

벽체 내부는 건립당시 1차로 거푸집을 대고 15cm 두께로 몰탈로 채우고 그 다음에 시멘트와 백회을 섞어(당시 ‘하이몰탈’이라고 부름) 3회 정도 바른 다음 백회로 최종 마감하였다. 따라서 전체 벽체 두께는 약 30cm 정도가 됐다. 현재는 최근에 마감이 판넬로 보수되어 있다.

창호는 양 측면에 각각 상부에 반원형 아치가 있는 12개의 수직창(가로 750, 높이 1930)이 설치되어 있다. 본래는 목창호였으나 2003년에 알루미늄으로 교체되었다. 유리는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다. 전면에는 강화유리문이 3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 22. 일로성당 위치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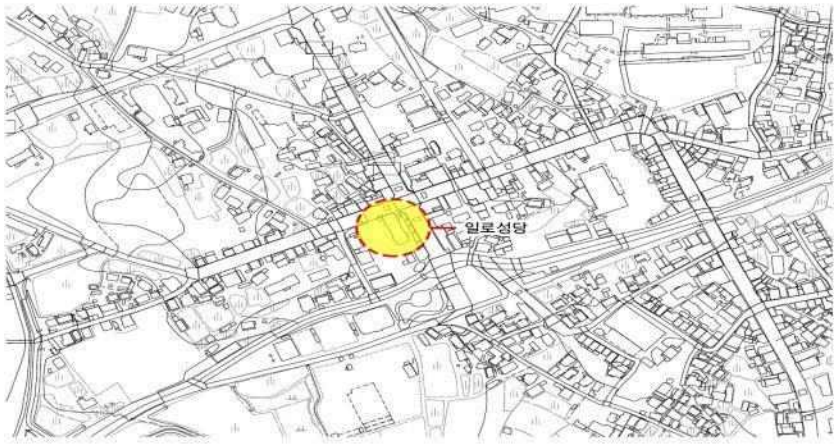


그림 2. 일로성당 위치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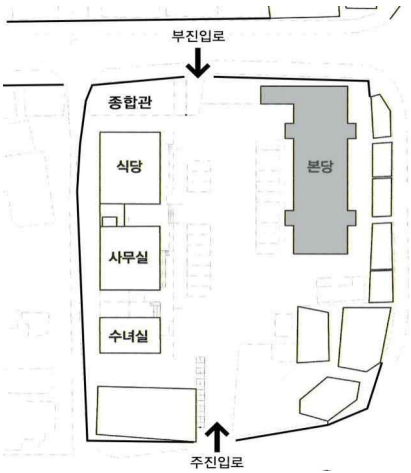


그림 3. 일로성당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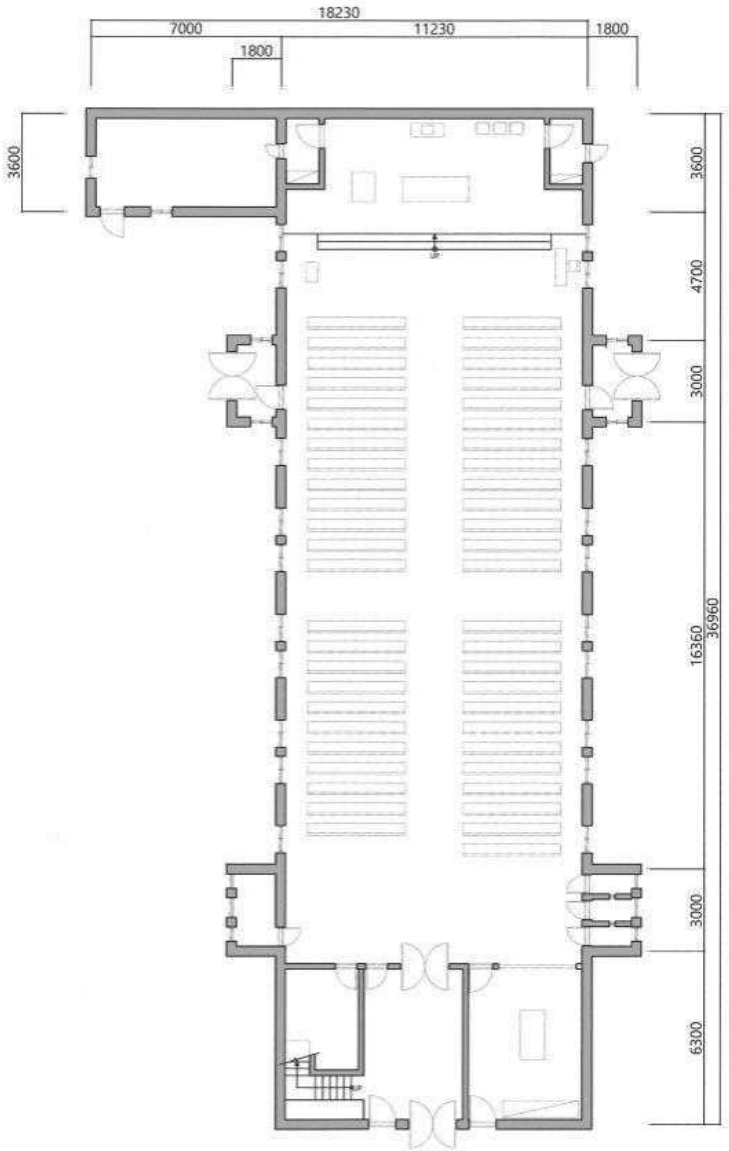


그림 4. 일로성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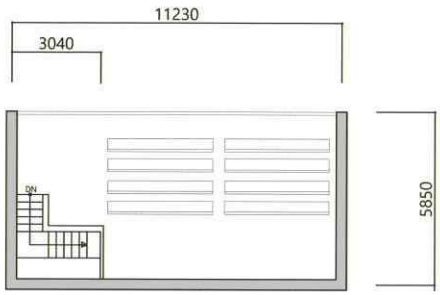


그림 5. 일로성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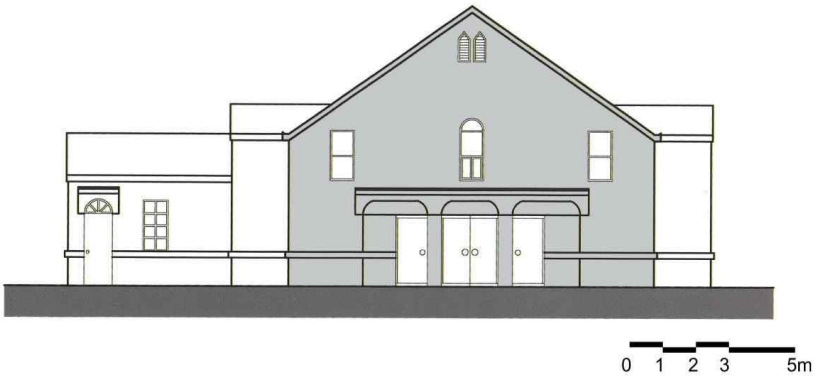


그림 6. 일로성당 정면도

그림 7. 일로성당 좌측면도

그림 8. 일로성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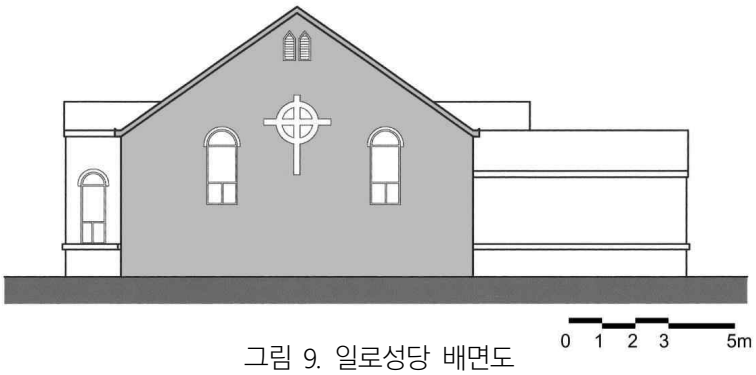


그림 9. 일로성당 배면도

사진 23. 남측에서 바라 본 일로성당 전경(좌 : 종합관, 우 : 본당)

사진 24. 본당 전경(좌측면)

사진 25. 본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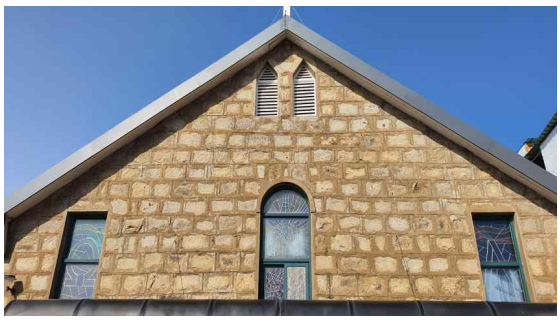


사진 26. 정면 박공부

사진 27. 성체조배실

사진 28.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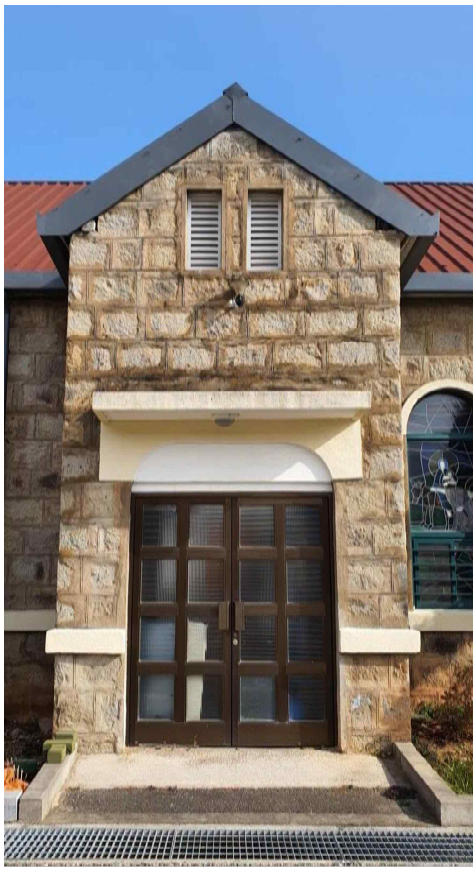


사진 29. 좌측면 돌출부 상세

사진 30. 외부 창호 상세

사진 31. 벽체 돌쌓기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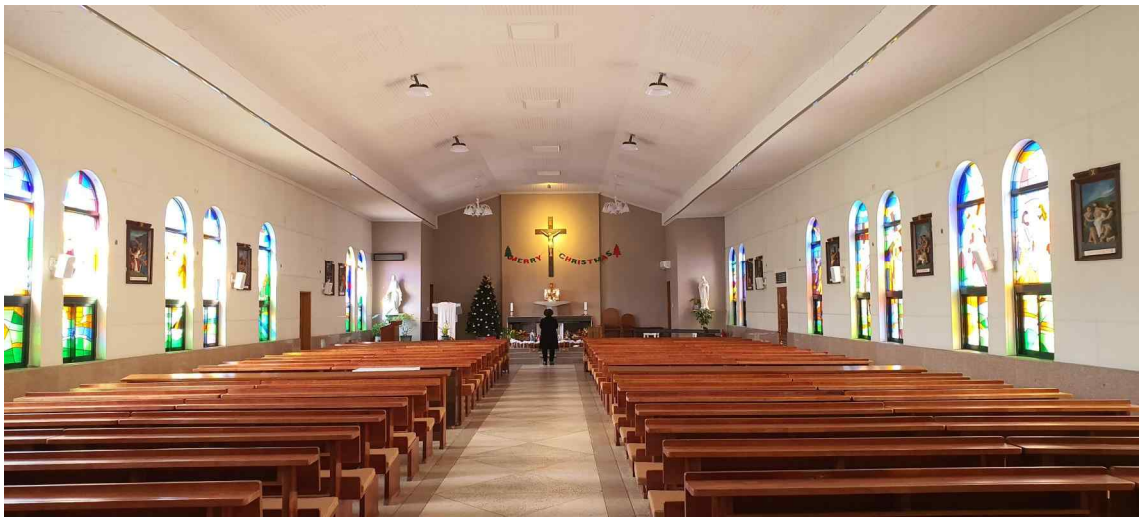


사진 32. 내부 전경

사진 33. 제단부

사진 34. 진입부(로비)

사진 35. 측면 일부에 남아있는 원형 목창호

2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표 8.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종교시설
명칭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務安聖堂)	용도	(현) 성당
			(원) 성당
건립	1958년 1월	설계자	미 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7	시공자	대동토건(손양동)
규모	대지면적 : 3,339㎡ 건축면적 : 276,06㎡	연면적 : 276,06㎡ 층 수 : 1층(종탑부 : 4층)	
보존상태	양호		
소유자	천주교 광주교구	연락처	062)525-9227
관리자	무안성당	연락처	061)454-1004
구조 양식	- 주구조 : 석조, 조적식 - 지 붕 : 목조 트러스, 맞배지붕 - 양 식 : 절충식		
연혁	무안성당은 1953년 함평성당 무안공소로 시작하여 1954년 11월 4일에 무안성당으로 승격된 성당이다. 현재의 본당은 1957년 6월 20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2일에 완공된 건물이다. 현재 경내에는 본당 외에 종합관이 있으며, 위치는 무안읍 소재지 중심가에 있다.		
수리기록	2008년에 전체적으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 같은 해에 현재의 종합관(사무실 및 어린이집)도 건립됐다.		
종합의견	건축역사 및 구조, 양식 등에 있어 근대기 이 지역 성당건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가 생전에 진술 한 구체적인 건축내용이 있어 당시 석조건축의 시공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차후에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검토가치가 있는 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다.		
지정여부	미지정		

2-1. 연혁

천주교 무안성당은 무안읍 소재지 중심가 무안군청 건너편 부근에 있다. 무안지역에 천주교 신앙이 처음 전해진 것은 1899년 목포 이내수보좌신부가 무안 우적동에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지역 신자들은 나주본당과 노안성당으로 성사를 받으러 다녔고 다시 함평본당이 설립되면서 무안지역 신자들은 그곳 소속이 되었다.

정식으로 무안읍에 천주교 성전이 들어선 것은 1953년 함평성당 무안공소다. 이 공소는 다음해인 1954년 11월 4일에 무안성당이 됐으며 초대주임으로는 이민두 타대오신부가 부임했다. 현재의 본당은 1957년 12월 22일 착공하여 다음 해 1월 8일에 헨리주교의 집성으로 본당 축성식을 거행했다.

본당의 시공은 일로성당을 시공한 손양동으로 일로성당(1958.10)보다 약 10개월 정도 일찍 건립됐다. 본당 건립 이후 2008년까지 건립당시의 모습을 유지했으나 2008년에 전면부에 증축형식으로 진입부를 달아내어 성당 정면부 모습이 크게 변형이 됐다. 같은 해에 현재의 종합관(사무실 및 어린이집)도 건립했다.

한편 성당 공사를 맡은 기술자(석장) 손양동(1916~2016)이 생전에 건축에 관해 필자에게 기술한 내용이 있어 비교적 건립 당시의 상세한 건축구조도 파악이 됐다. 무안성당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무안성당 연혁

년	월	일	주요 내용
1953년	3월	18일	공소개소
1953년	5월	24일	첫 미사 봉헌(함평 김창현 바오로 신부 집전)
1953년	7월	5일	함평본당 무안공소 축성(광주교구장 서리 현 신부 집전)
1954년	11월	4일	무안 본당 승격
1954년	11월	4일	초대 이민두 신부 취임
1956년	4월	2일	제 2대 김정용 신부 취임
1956년	5월	13일	기동 공소 신축 준공
1956년	10월	8일	식당 신축 공사
1957년	3월	21일	성당 부지 확장공사
1957년	4월	14일	망운 공소 신설
1957년	4월	25일	강정 공소 신축 준공
1957년	12월	22일	본당 신축 공사 착공
1958년	1월	8일	본당 축성(헨리 주교)

년	월	일	주요 내용
1960년	6월	30일	제 3대 배봉룡 신부 취임
1964년	11월	23일	제 4대 홍도허티 신부 취임
1965년	11월	3일	제 5대 조 신부 취임
1969년	11월	15일	제 6대 나상택 신부 취임
1971년	2월	12일	청계 공소 신축 준공
1973년	4월	20일	제 7대 김홍언 신부 취임
1976년	11월	12일	제 8대 이성규 신부 취임
1978년	4월	18일	제 9대 남재희 신부 취임
1980년	4월	5일	수녀원 준공식(윤공회 대주교 집전)
1981년	9월	14일	제 10대 백용수 신부 취임
1985년	7월	9일	지도 공소 설립
1985년	6월	24일	제 11대 강영식 신부 취임
1986년	5월	12일	망운 공소 신축 미사 및 축성(윤공희 대주교 집전)
1988년	12월	7일	해제 공소 신축 미사 및 축성(윤공희 대주교 집전)
1990년	2월	8일	제 12대 신동술 신부 취임
1991년	9월	8일	본당 교육관 기공식
1993년	5월	30일	사제관, 어린이집 착공 및 준공(7월)
1993년	9월	19일	망운 공소 준 본당 승격(관할 : 해제, 지도, 임자공소)
1997년	2월	4일	청계 공소 본당 승격(관할 :기동, 강정공소)
1993년	2월	10일	제 13대 김형수 신부 취임
1997년	3월	3일	제 14대 민병천 신부 취임
2001년	2월	14일	제 15대 김성용 신부 취임
2004년	2월	14일	제 16대 김민석 신부 취임
2008년	10월	11일	성당 리모델링 및 종합관 준공(최장무 대주교 집전)
2009년	8월	28일	제 17대 노완석 신부 취임
2012년	8월	29일	제 18대 윤용남 신부 취임
2016년	9월	1일	제 19대 오동훈 신부 취임
2016년	10월	30일	본당설립 62주년 기념미사 및 한마음축제(무안스포츠파크)
2018년	1월	10일	본당 내 도시가스 시설 공사(~13일)
2019년	11월	20일	식당건물 철거
2019년	12월	11일	본당 건축물 양성화 작업 완료

2-2. 건축 현황 및 특징

무안성당은 무안읍 중심지역인 군청과 버스터미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전체의 향은 동남향이며 본당 등 주요 건물도 같은 향이다. 성당 정출입구 앞에는 무안읍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이 있고 성당 주변에는 2~3층의 근린생활 시설, 주택 등이 있다.

부지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단변이 50m, 장변이 95m이며 건물의 배치는 장변 쪽 중앙으로 넓은 마당을 두고 좌측으로 본당을, 우측으로 사무실과 유아원이 있는 종합관이 있다. 마당 후면으로도 부속시설인 식당이 있었는데 최근에 모두 헐렸다. 종합관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2008년도에 지어 졌다.

본당은 장방형 평면의 단층 석조 건물로 장변이 28.93m, 단변은 10.76m이며 전면에는 4층구조의 종탑부가 있다. 종탑은 상부로 갈수록 단면 폭이 줄어든다. 현재 건물 전면으로는 4.55m폭으로 진입부(로비)를 벽돌조로 증축하여 건물 전면부의 파사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상부는 현재 강판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 당시의 원 재료는 골함석이였다.

내부는 전체가 통칸으로 출입부, 신자실, 설교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구 상부에는 중층을 두어 성가대실로 꾸몄다. 신자실 후면 양측으로는 본 지붕 처마선 아래로 돌출부를 두어 고해실을 마련했다. 돌출부 지붕은 본당 처마 선에서 시작됐고 경사가 급한 맞배지붕형식이다.

건축구조는 석재를 사용한 조적식이며 지붕틀은 목조트러스 구조이다. 트러스 형식은 현재 천장을 텍스 등으로 마감되어 있어 자세한 구조는 살필 수 없으나 평면이나 지붕형식 등으로 보아 일로성당과 같은 'ㅅ자' 보 형식으로 여겨진다. 석재는 일로 성당과 같은 목포 유달산 돌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보통 가로 300, 깊이 150, 높이 300mm 크기의 돌을 주로 사용하였다.

외벽 돌쌓기는 지면으로부터 처마 안쪽 상부까지 정면은 22켜, 양 측면은 12켜로 모두 외벌쌓기로 되어있다. 가로 줄눈은 수평으로는 일정하나 세로만큼은 일정치 않다. 석재의 표면은 중간 정도의 혹두기 마감으로 되어 있다. 벽체 내부는 건립당시 1차로 황토로 두텁게 미장하여 면을 고른 후 회벽으로 최종 마감하였으나 현재는 판재 등의 마감재로 보수되어 있다. 양 측면은 지반으로부터 1.2m 높이로 돌림띠를 둘렀고 마감은 인조석 물씻기로 되어있다.

창호는 반원형 아치창을 측면 각각에 7개씩 내었다. 본래는 일로성당과 같은 투명 판유리를 사용한 목창호였으나 최근에 알루미늄으로 교체되었고 유리도 모두 칼라 스테인드 글라스로 개보수 했다. 후면에는 본래 양 측면에 2개씩의 출입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조적으로 막았다.

<목포 및 주변지역의 석조건축>

목포는 개항(1897)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근대도시다.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건축의 유입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조건축이다. 개항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목포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사택과 학교, 교회 등을 돌로 지었고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석조건축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해방 후에도 석조건축이 학교, 교회 등 대형건축물 위주로 건립됐고 일반인들도 주택의 축대나 담장에 석재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목포에는 14건(2017년 기준)의 근대건축물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 7건이 석조건축이다. 그 만큼 석조건축의 비중이 크고 건축사적 가치도 있다.

개항 이후부터 바로 목포에 다양한 유형의 석조건축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포 가까이에 있는 풍부한 퇴적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적암은 화강암보다 강도는 떨어지나 우선 가공하기가 쉽고 불에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하여 건축구조재로 사용하는 데는 매우 이상적이다. 즉 학교나 교회 등 큰 규모의 건물에는 당시 매우 적합한 건축 재료였다. 한편 목포 일대는 내륙과 달리 지리적으로 큰 산이 없기 때문에(목재 조달 어려움) 석조건축이 쉽게 유행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목포에는 채석장이 크게 2곳이 있었다. 하나는 '유달산돌' 이라고 하는 유달산 주변의 채석장(뒷개 화장터 부근, 대반동 부근, 현 이훈동 주택 뒤쪽 등)이고, 다른 하나는 '형무소돌' 이라고 하는 산정동 뒤쪽의 야산이다.(현 중앙 하이츠 아파트 후면) 일반적으로 유달산돌이 형무소돌 보다 2배정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 초에 지은 선교사 사택과 양동교회 그리고 일로성당과 무안성당이 이 돌로 지은 대표적 건물이다. 산정동 채석장은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일본인이 개발한 매우 규모가 큰 석산이다. 이 석산은 초기부터 목포 형무소 죄수들이 노역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현 산정동 일신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 건물도 바로 이 석산에서 채석한 석재로 지은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채석한 돌은 일제 강점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 졌고 이는 해방 후까지도 이어져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도 이 돌을 쓰게 된 것이다.

사진 36. 1916년에 미국 선교사가 지은 목포 프랜취병원. 당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웅장한 2층 석조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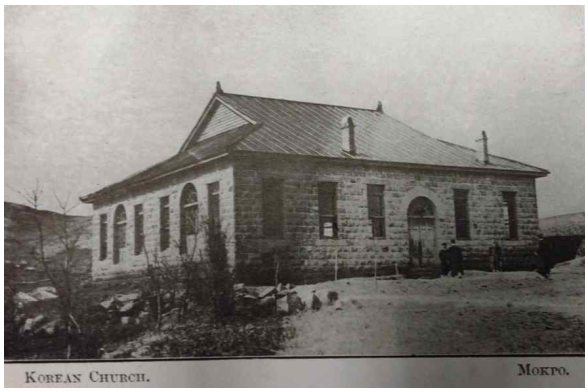


사진 37. 1910년에 현대식으로 지은 목포 양동교회. 서양식 석조건축에 한국 전통의 팔작지붕형식 건물이다.

사진 38. 무안성당 위치도 [항공사진]

그림 10. 무안성당 위치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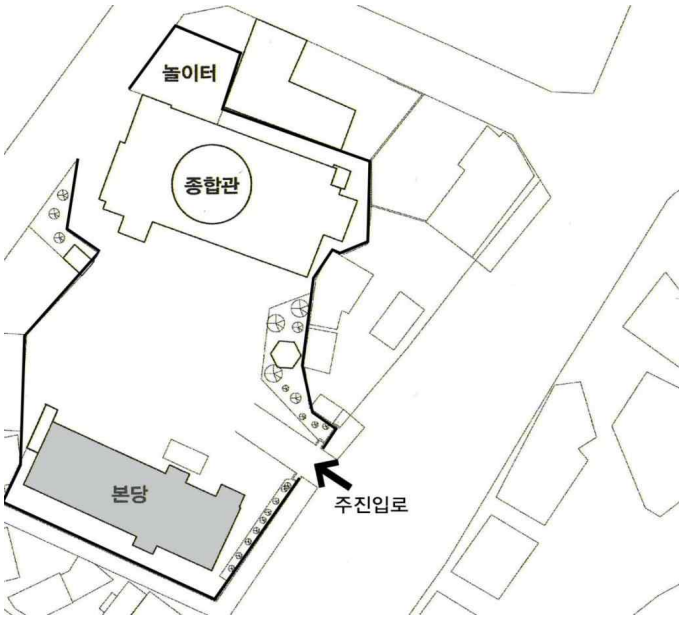


그림 11. 무안성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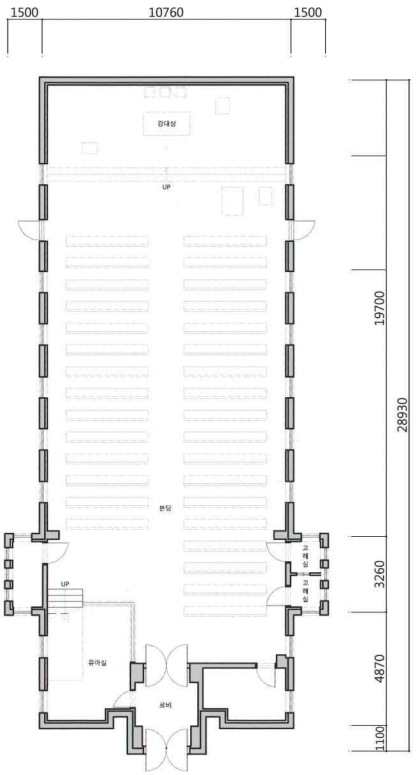


그림 12. 무안성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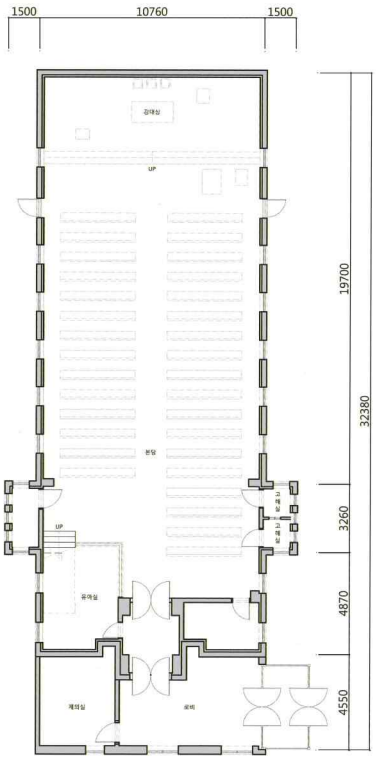


그림 13. 무안성당 1층 평면도[전면 증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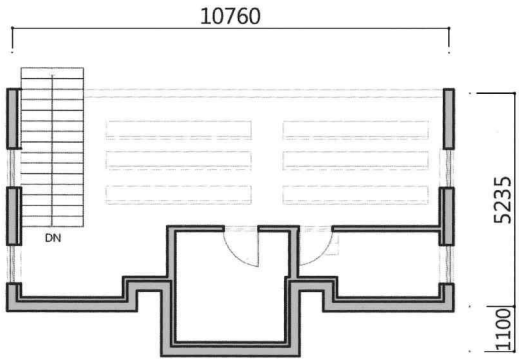


그림 14. 무안성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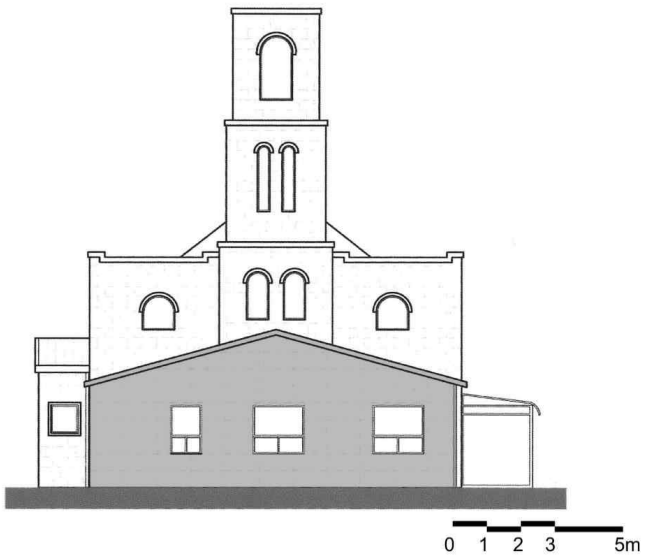


그림 15. 무안성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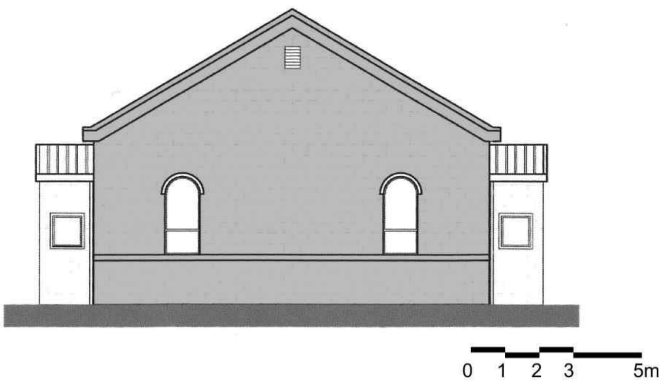


그림 16. 무안성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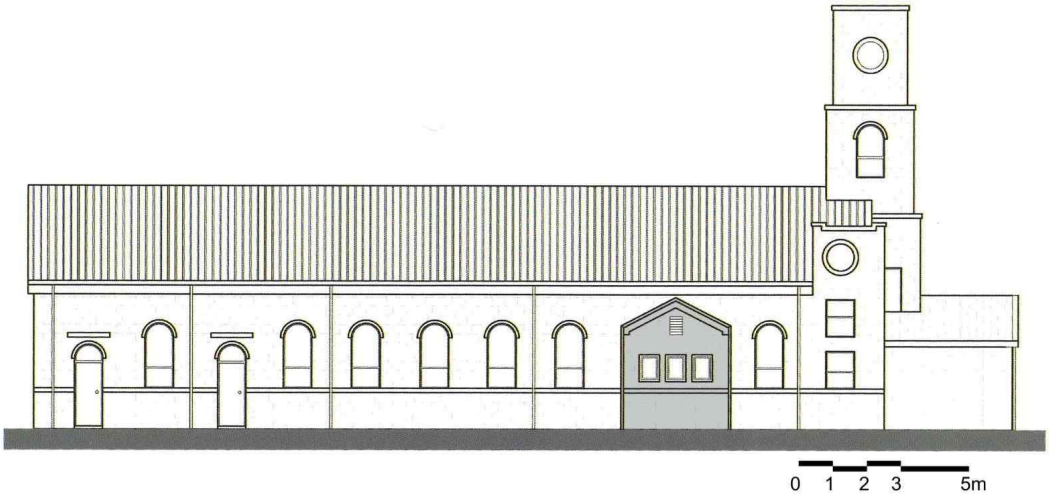


그림 17. 무안성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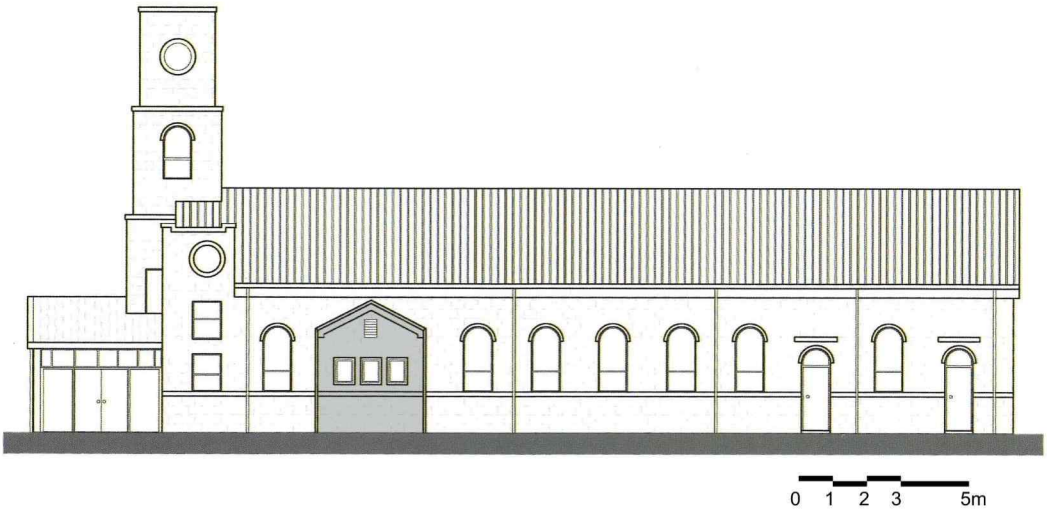


그림 18. 무안성당 우측면도

사진 39. 무안성당 전경

사진 40. 정면 종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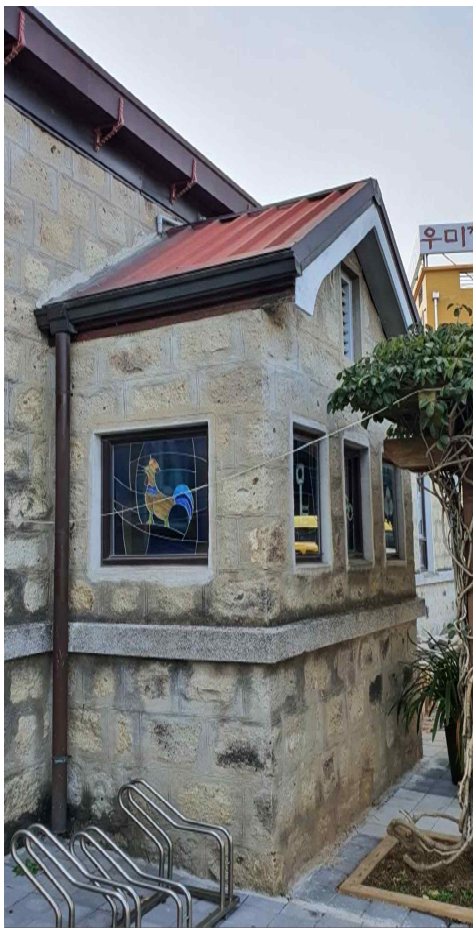


사진 41. 우측면 돌출부(고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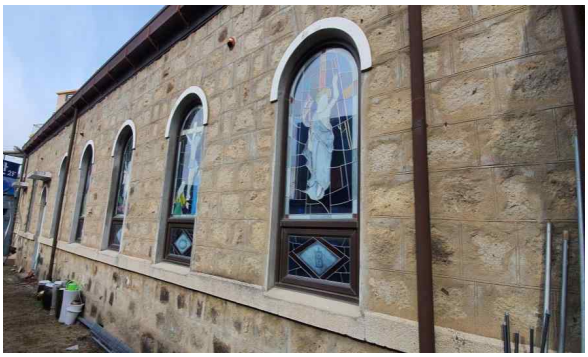


사진 42.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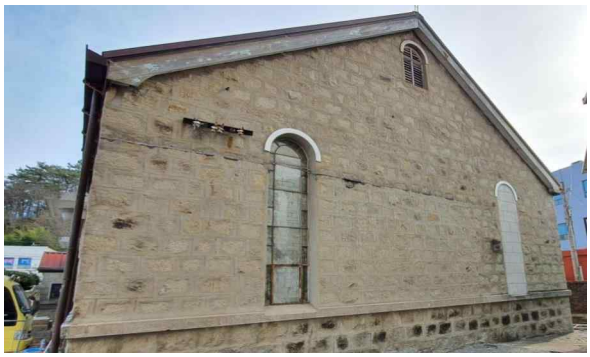


사진 43. 배면

사진 44. 측면 돌림띠

사진 45. 전면 증축부

사진 46. 창호(스테인 글라스)

사진 47. 성당 전체 내부

사진 48. 제단부

사진 49. 성당 종합관

3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표 10.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전쟁관련시설
명칭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格納庫)	용도	(현) 사용 안함 (원) 비행기 격납고
건립	1943년~1945.8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평산리	시공자	미상
규모	전면 가로 15~20m, 길이 14~16m, 높이 3m 내외 타원형		
보존상태	전체 6기 중 5기는 전반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1기만 중앙 일부분이 파손됨.		
소유자	개인	연락처	
관리자	상 동	연락처	
구조 양식	타원형 일체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혁	일본이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전쟁 말기 군사 거점지역으로 잡아 제주도에서처럼 지하벙커, 비행기 격납고 등을 무안군 현경면 일대에 건설했다. 그들이 건설한 격납고가 현재 6기가 있으며 건립 시기는 1943년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로 여겨진다. 현재 모두가 개인 사유 경작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전남지역의 유일한 일본군 전투기 격납고다. 흔히 볼 수 없는 격납고라는 존재만으로도 관찰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한편 형태의 특수성으로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으며, 활용 면에서도 이벤트성 농산물 판매장, 공연,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남제주 격납고가 2002년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된 사실이 있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전쟁관련 시설도 역사 및 구조적 측면에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필요성이 있다.		
지정여부	미지정		

3-1. 연혁

1941년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수탈과 핍박 속에서 불안정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제주도에는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여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비행장 포대, 격납고, 폭탄매립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 역시 일본군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적·물적 수탈과 함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군사시설들이 들어섰다.

일본이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전쟁 말기 거점지역으로 선정한 원인은 필리핀 전선과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길목에 제주도와 함께 전남 서남해안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이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전남 서남해안 일대 역시 제주와 비슷한 최후 방어지역으로서 본격적인 요새화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본군이 주둔했던 전남 무안 일대에는 그들이 축조한 비행기 격납고와 지하벙커, 방공호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무안군에는 2곳에 군용비행장을 건설했는데 한곳은 현 망운면에 있는 무안국제공항 자리이며 다른 한곳은 현경면 평산리 일대다. 전자는 당시 건설이 완료되어 잠시 사용을 했었고 현경면 비행장은 건설 마무리쯤에 전쟁이 끝나 완성이 되지 못했다. 항공사진 측정 상 미완성 공항 활주로 길이는 약 2,15Km, 망운공항은 약 1,8Km로 나타났다.

당시 비행장 건설에는 많은 무안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33명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시기는 1943년에서 1945년 해방 직전까지였다. 이처럼 무안군 지역에 일본군에 의해 군사비행장을 건설하였으며 그와 함께 비행기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도 건립했다. 현재 현경면 일대에는 6기의 격납고가 남아있는데 송정리 격납고는 현 망운면 무안공항 비행장용으로, 평산리는 현경면 비행장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현황

명 칭	소 재 지	규모				
		가로	깊이	높이	바닥면적	상판두께
송정리 격납고 1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43-26	21.2m	16.8m	3.6m	258.86㎡	0.5m
송정리 격납고 2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산98-7	16.1m	13.3m	3m	169.70㎡	0.5m
송정리 격납고 3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19-11	19.6m	14.9m	2m	205.91㎡	0.5m
평산리 격납고 1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95-7	12.9m	13.4m	1.63m	132.74㎡	0.4m
평산리 격납고 2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03-1	15.87m	5.1m	3.4m	165.84㎡	0.6m
평산리 격납고 3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04	14.4m	14.2m	4m	167.65㎡	0.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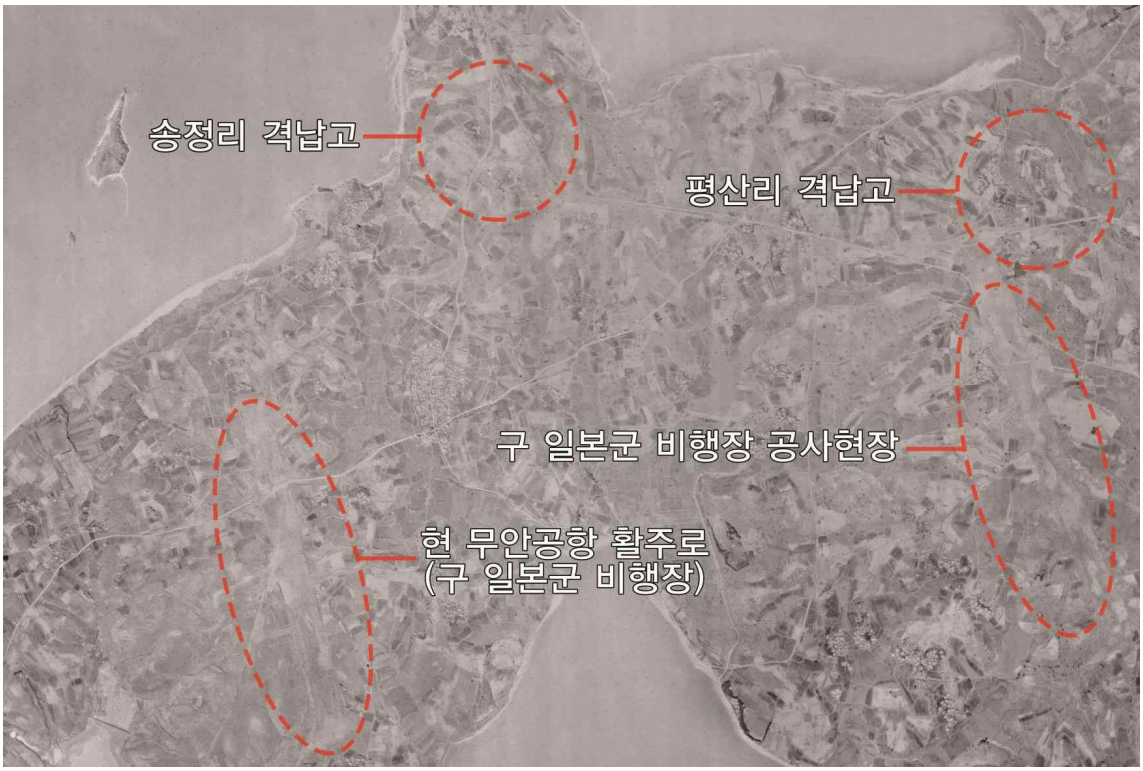


사진 50. 1940년대 초 일본군 군사 시설 위치도 (해방전후 항공사진, 국토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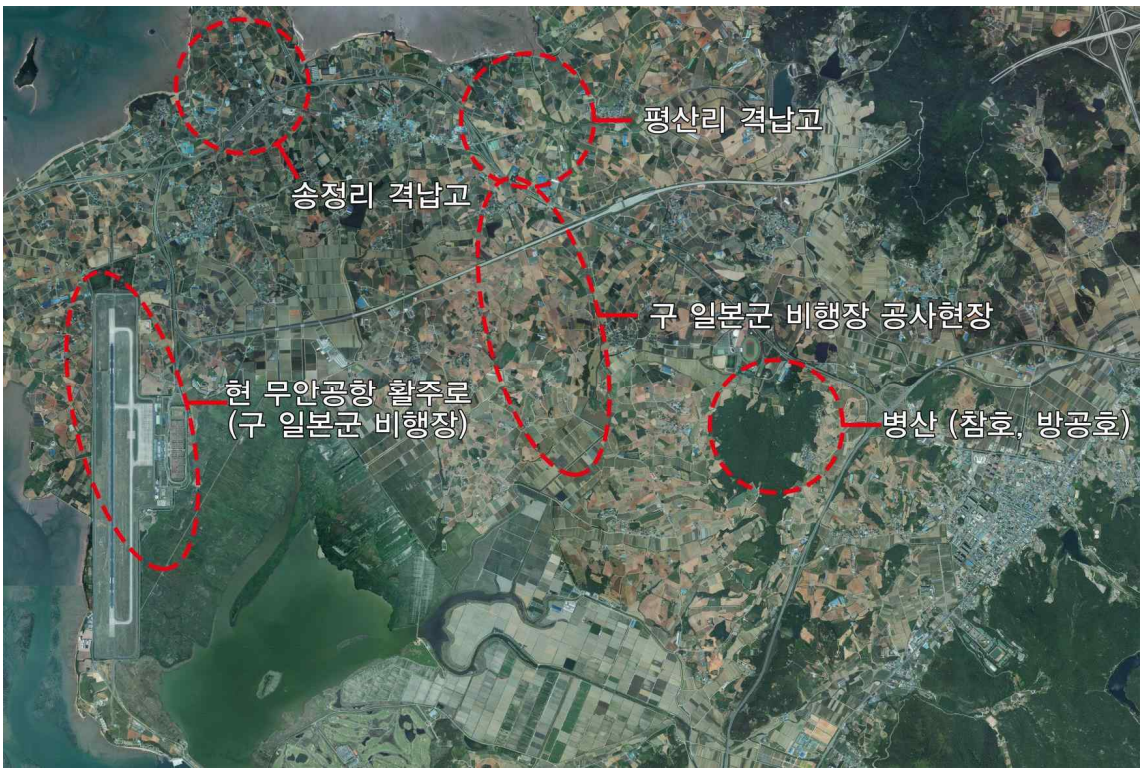


사진 51. 1940년대 초 일본군 군사 시설 위치도 (2019년 다음 위성지도)

사진 52. 송정리 격납고 위치 [다음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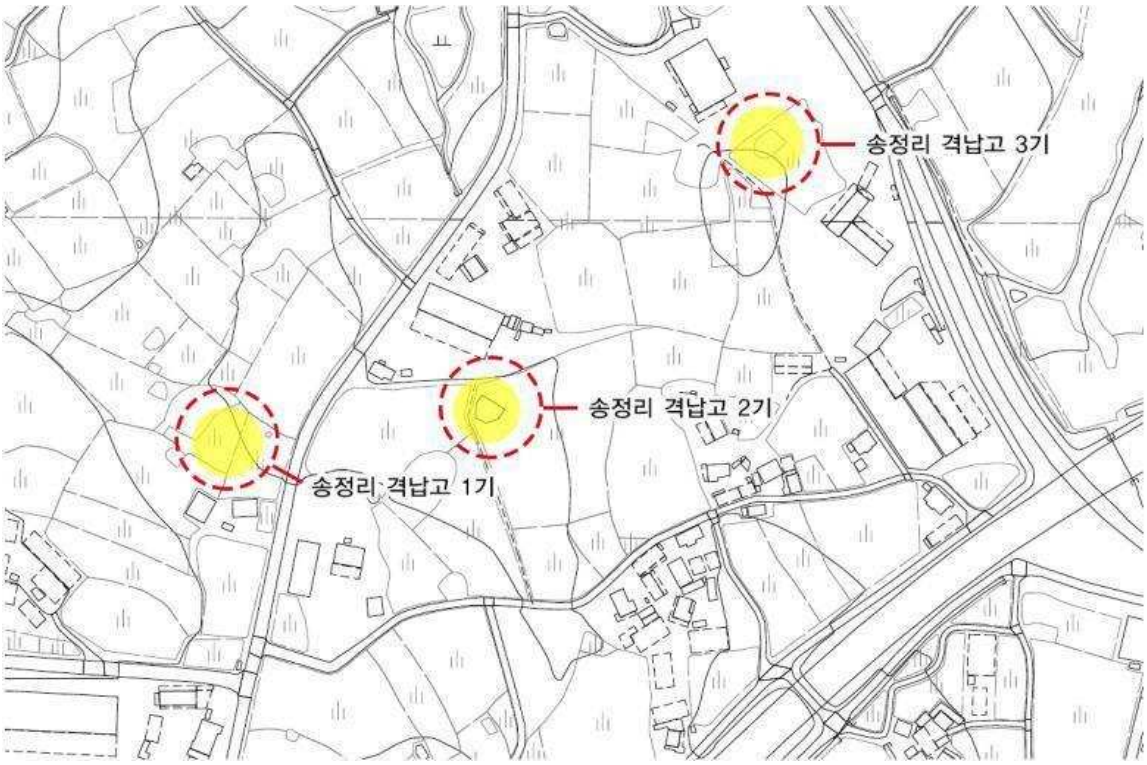


그림 19. 송정리 격납고 위치 [지적도]

사진 53. 평산리 격납고 위치 [다음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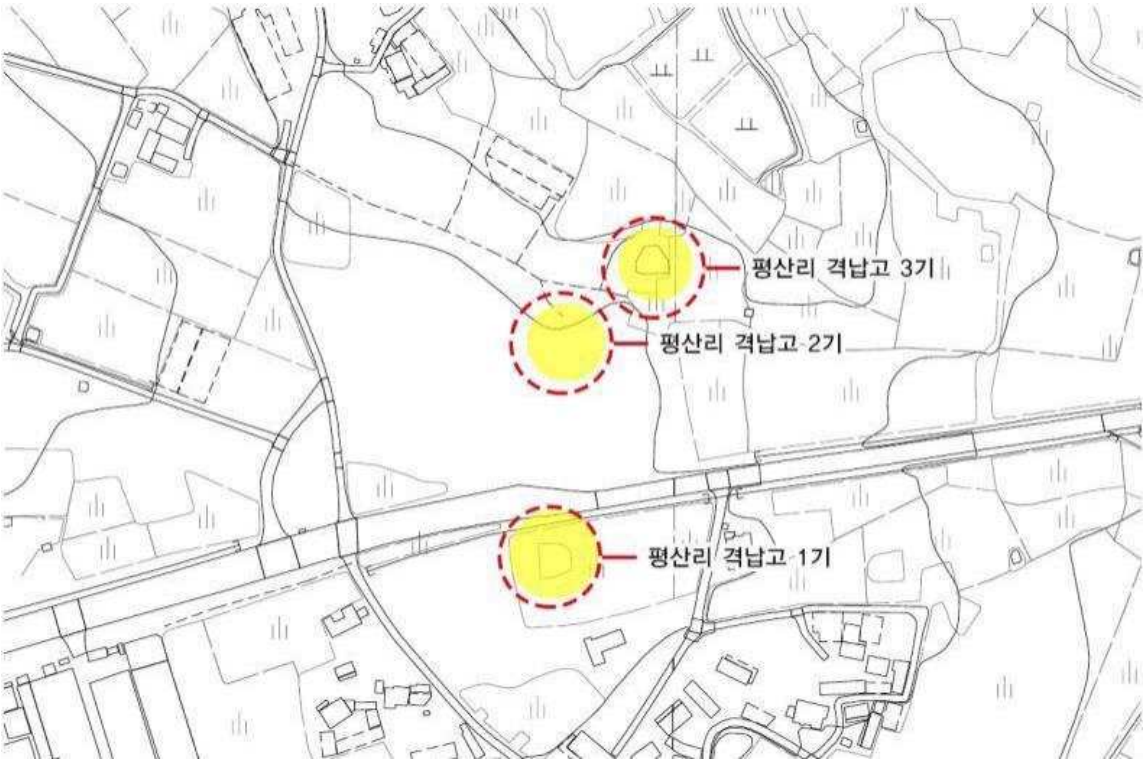


그림 20. 평상리 격납고 위치 [지적도]

3-2. 구조 현황 및 특징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와 평산리에는 각 각 3기의 격납고가 있다. 6기 모두 거의 평탄한 구릉성 지형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모두가 경작지화 됐다. 전반적으로 건립 당시보다 주변지형이 높아져있고 이와 함께 내부도 매립이 되어 내부 높이가 3m내외로 낮다.

송정리, 평산리 각 각 3기는 모두 100~200m의 간격을 두고 있다. 구조는 3기 모두 철근을 약간 넣은 타원형 일체식 콘크리트 구조이며 현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콘크리트재료 중 모래는 상부에 조개껍질이 일부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 해사가 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건립은 지지대를 세우고 거푸집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일정 크기의 마운드를 축조한 후 그 위에 길이 약 1,800mm, 폭 150~180mm 판재를 촘촘히 이어댄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 흙을 제거하여 구조체를 완성했다. 한편 일부 격납고 후미와 측면은 판재 없이 그냥 흙 위에 타설을 한 곳도 있다.

사진 54. 격납고 상부 표면

사진 55. 내부 판재 거푸집

1) 송정리 격납고 Ⅰ

송정리 격납고 Ⅰ은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43-2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약간의 거리에 바닷가가 있다. 격납고가 있는 곳은 현재 주변 지형보다 약간 낮으며 후면 쪽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다. 현재 내부에는 사람이 살았던 구조물이 일부 남아있다.

격납고의 형태는 전후 면이 개방된 일종의 타원형으로 규모는 전면 개구부 가로가 21.2m, 후면 개구부 가로가 8.5m이다. 길이는 16.8m이고 전면 중앙부에서의 최고 높이는 3.6m이다. 상판 두께는 0.5m로 안쪽 면에 목재 거푸집 흔적이 잘 드러나 있다. 상판재료는 약간의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 구조다. 이 격납고는 무안지역에서 발견된 격납고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내부 면적은 258.8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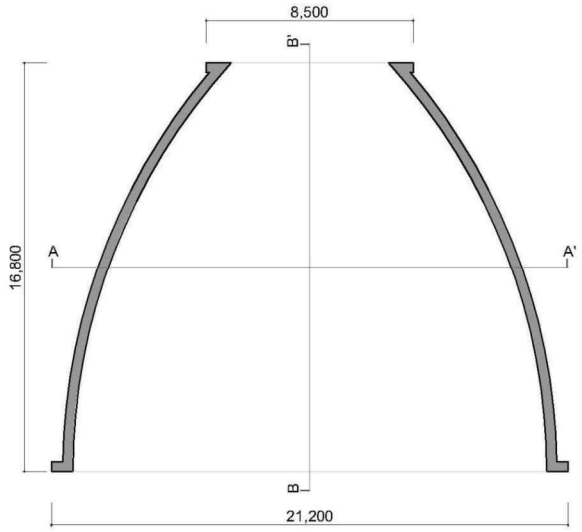


그림 21. 송정리 격납고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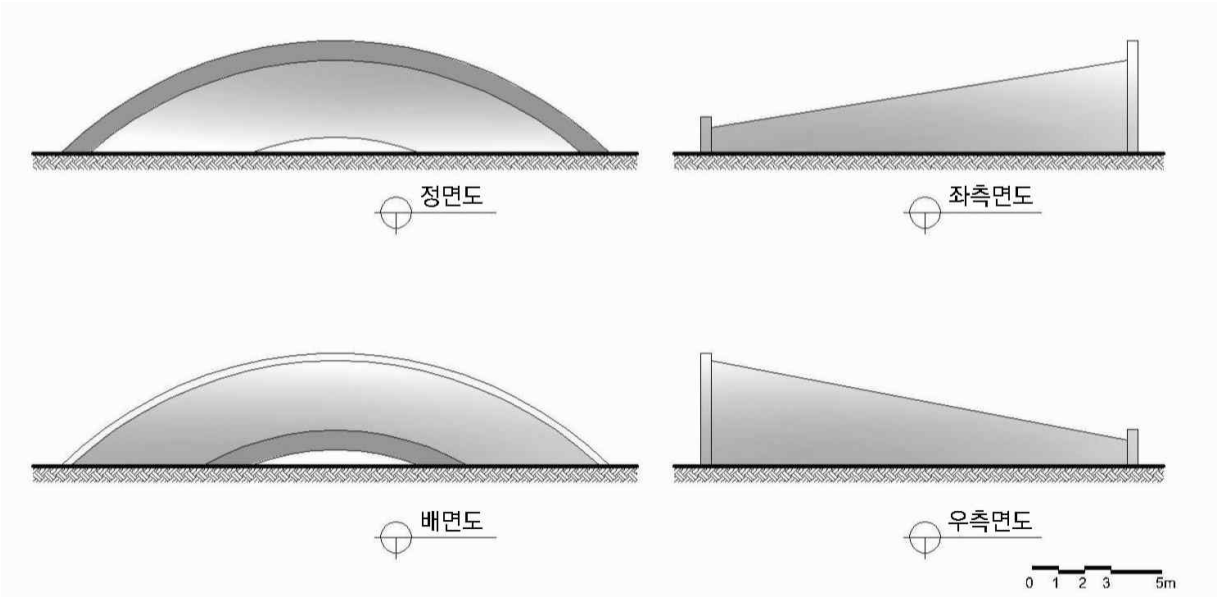


그림 22. 송정리 격납고 1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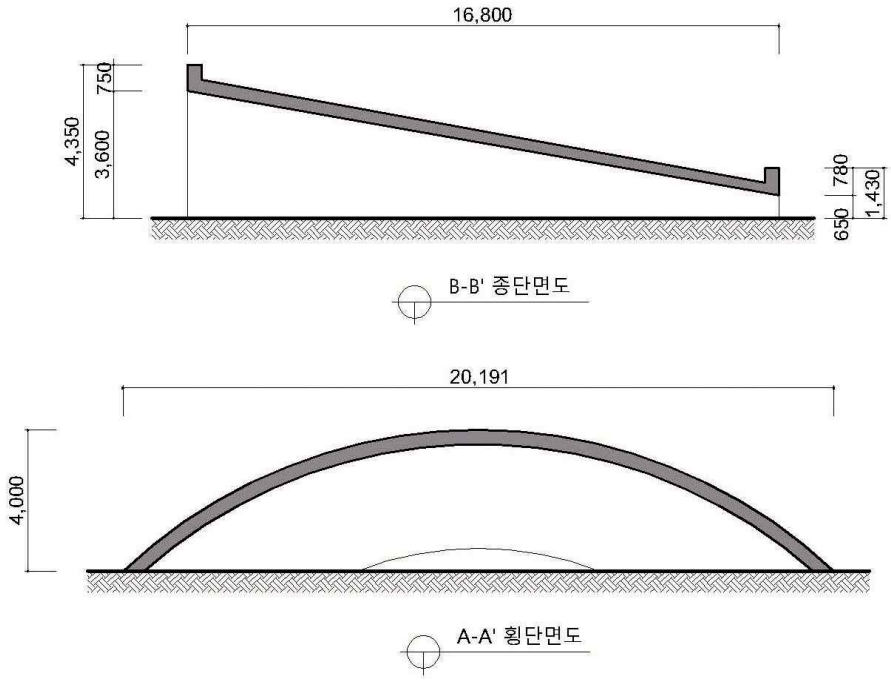


그림 23. 송정리 격납고 1 단면도

사진 56. 송정리 격납고 1 원경

사진 57. 송정리 격납고 1 근경

사진 58. 송정리 격납고 1 내부

사진 59. 송정리 격납고 1 입구

사진 60. 송정리 격납고 1 내부 상부 (거푸집)

2) 송정리 격납고 Ⅱ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산 98-7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정리 격납고 Ⅰ과는 약 90 m 거리를 두고 있다. 농협 미곡처리장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주변에 숲이 없어 식별이 용이하다. 전체적으로 외형 상태가 양호하며 내부도 전체가 비어있다. 단 후면 개구부는 바깥쪽으로 주변지형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막혀있다.

형태는 송정리 격납고 1과 같은 반 타원형이며 규모는 전면 개구부 가로가 16.1m, 후면부 8.5m이고 길이는 13.3m, 전면에서 중앙 상판까지의 높이는 3m이다. 상판두께는 0.5m이다. 상판 재료는 약간의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구조다. 내부 면적은 169.7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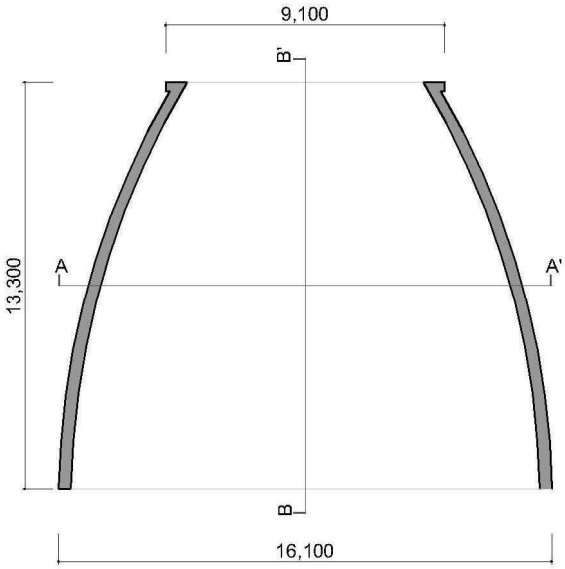


그림 24. 송정리 격납고 2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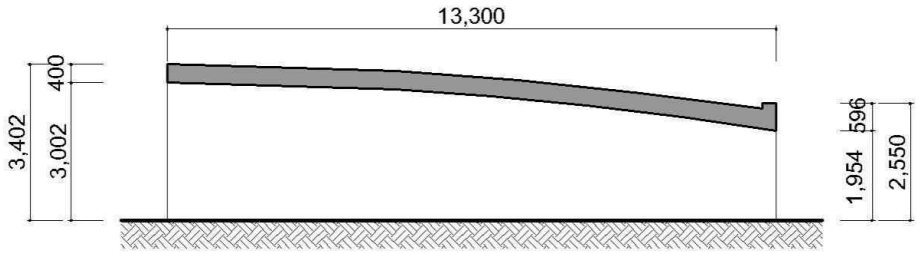


그림 25. 송정리 격납고 2 B-B′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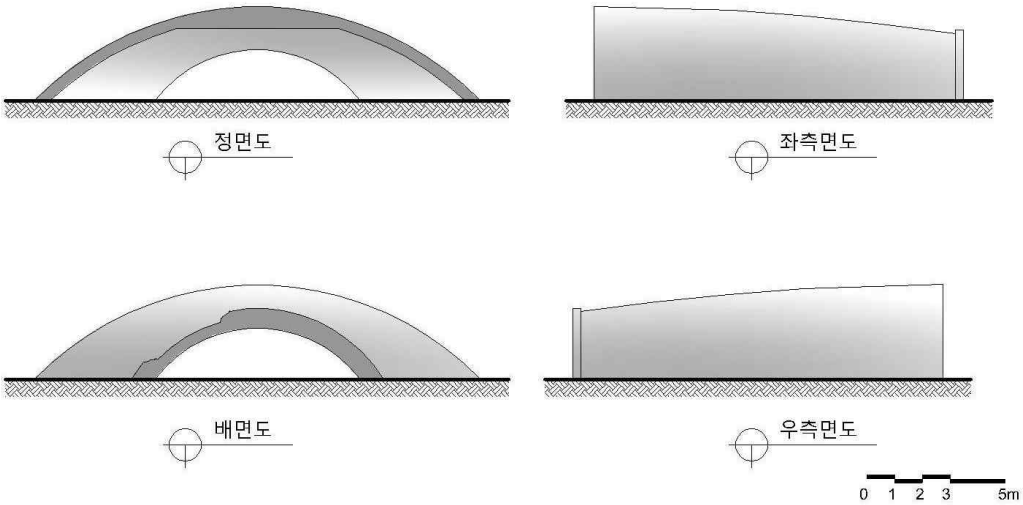


그림 26. 송정리 격납고 2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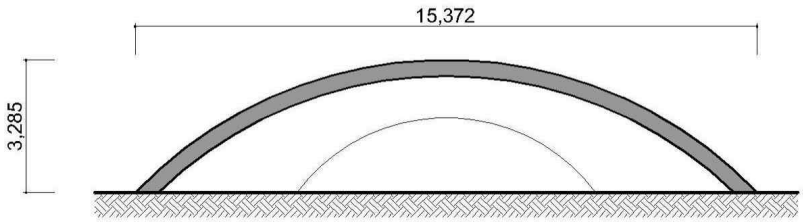


그림 27. 송정리 격납고 2 A-A′ 횡단면도

사진 61. 송정리 격납고 2 전경

사진 62. 송정리 격납고 2 좌측면

사진 63.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사진 64.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측면 하부

사진 65. 송정리 격납고 2 내부 상부 (거푸집)

3) 송정리 격납고 Ⅲ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19-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격납고 아래쪽에는 민간인 묘가 있으며 주변은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형태는 반 타원형이며 내부는 벽돌 등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있고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규모는 전면 개구부 폭이 19.6m, 후면 7.3m이고 길이는 14.9m이다. 전면 중앙부 높이는 현재 2m로 앞쪽의 주변 지형이 그간 많이 높아져 있다. 내부 면적은 205.91㎡이며 상판두께는 0.5m로 다른 격납고와 거의 같다. 단 입구 쪽 만은 상판 위로 상판 두께 만큼 두껍게 테두리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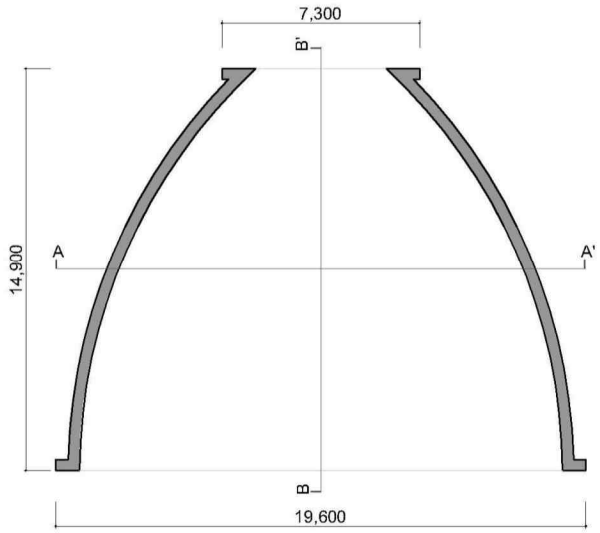


그림 28. 송정리 격납고 3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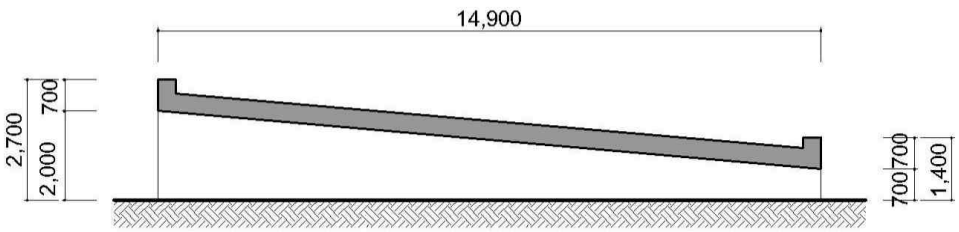


그림 29. 송정리 격납고 3 B-B′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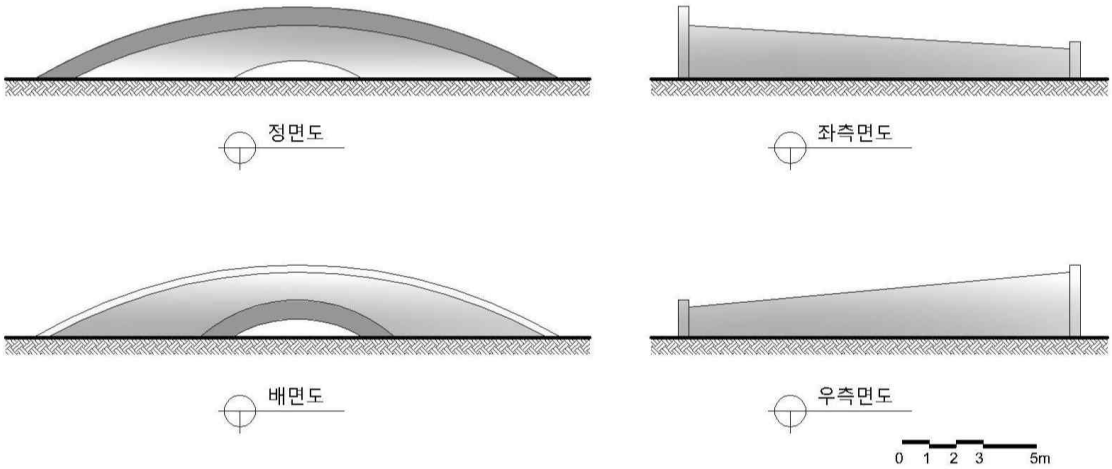


그림 30. 송정리 격납고 3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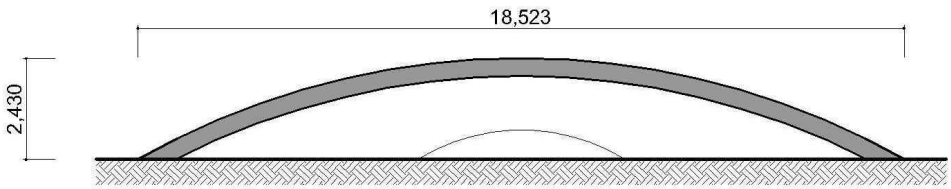


그림 31. 송정리 격납고 3 A-A′ 횡단면도

사진 66. 송정리 격납고 3 정면

사진 67. 송정리 격납고 3 배면

사진 68. 송정리 격납고 3 정면 상세

사진 69. 송정리 격납고 3 입구 상부

사진 70. 송정리 격납고 3 지붕 전면부 상세

사진 71. 송정리 격납고 3 지붕 상부 콘크리트 상세

4) 평산리 격납고 Ⅰ

평상리에도 100~200m의 간격을 두고 3기의 격납고가 있다. 자리한 곳은 모두 구릉성 평탄한 곳이며 주변은 모두 밭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송정리 격납고와 차이가 없는 타원형 콘크리트구조다. 송정리 격납고와 거의 동시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평산리 격납고 Ⅰ은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19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모두가 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격납고 주변과 내부는 건립당시보다 지형이 많이 높아져 있어 전면 중앙부 높이가 1.63m밖에 되지 않는다. 내부는 전체가 모두 비어 있다.

형태는 반 타원형이며 규모는 전면 개구부 폭이 12.9m, 후면은 6.9m이다. 상판두께도 0.4m로 다른 격납고보다 다소 얇으며 내부 면적은 132.7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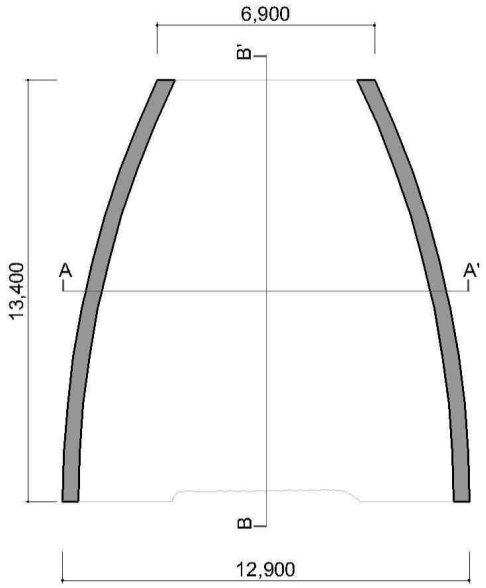


그림 32. 평산리 격납고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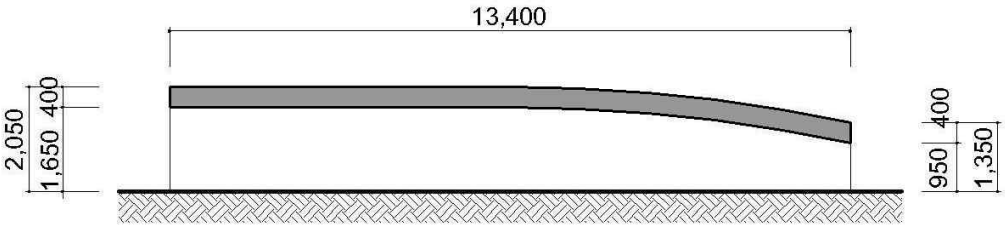


그림 33. 평산리 격납고 1 B-B′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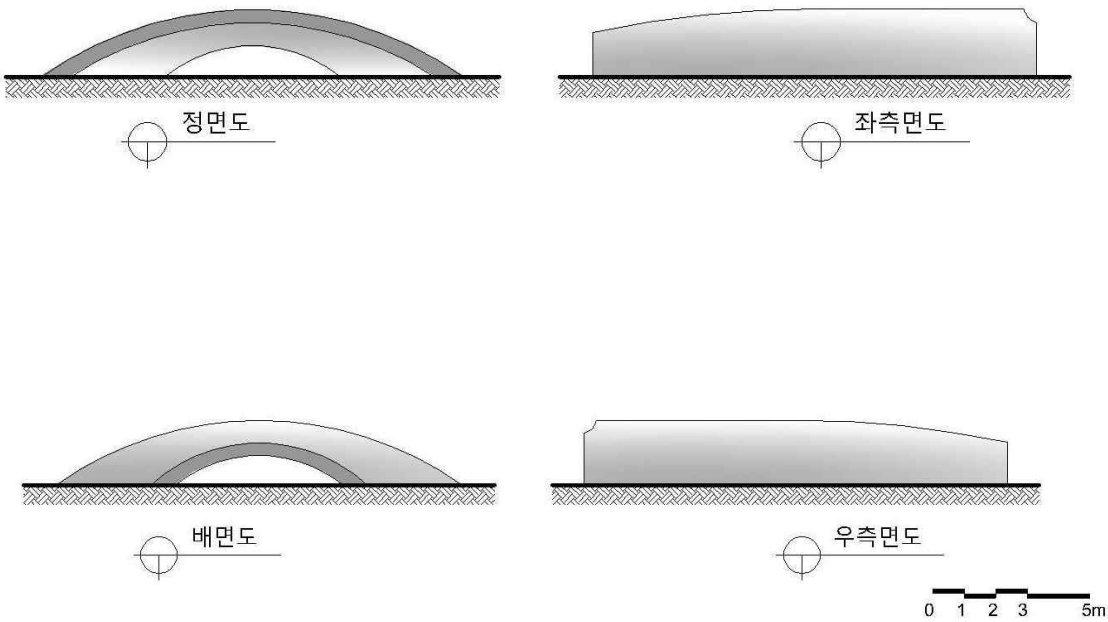


그림 34. 평산리 격납고 1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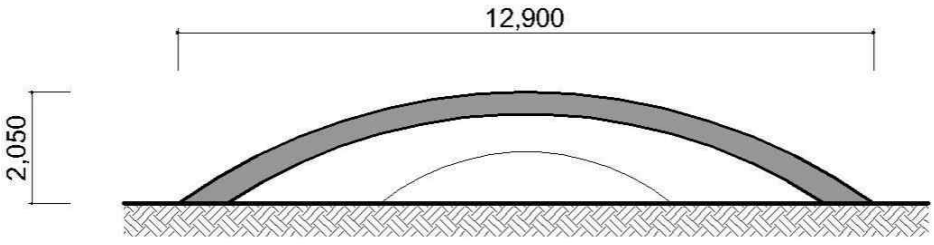


그림 35. 평산리 격납고 1 A-A′ 횡단면도

사진 72. 평산리 격납고 1기(좌), 2기(우) 전경

사진 73. 평산리 격납고 1 정면 전경

사진 74. 평산리 격납고 1 우측면 전경

사진 75. 평산리 격납고 1 배면

사진 76. 평산리 격납고 1 내부 전경

사진 77. 평산리 격납고 1 내부 상부 (거푸집)

사진 78. 평산리 격납고 1 지붕 상부 콘크리트 상세

5) 평산리 격납고 Ⅱ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0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전면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후면은 구릉성 산지로 이어진다. 평산리 격납고 1과는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거리는 약 60m 정도 떨어져 있다.

형태는 다른 격납고처럼 타원형이며 현재 중앙부분이 파손되어 있어 전면부만 드러나고 후면도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규모는 전면 개구부 폭이 15.87m이고 전체 길이는 13.92m이며 내부 면적은 165.84㎡이다. 전면 중앙부 높이는 3.4m정도이고 상판 두께는 0.6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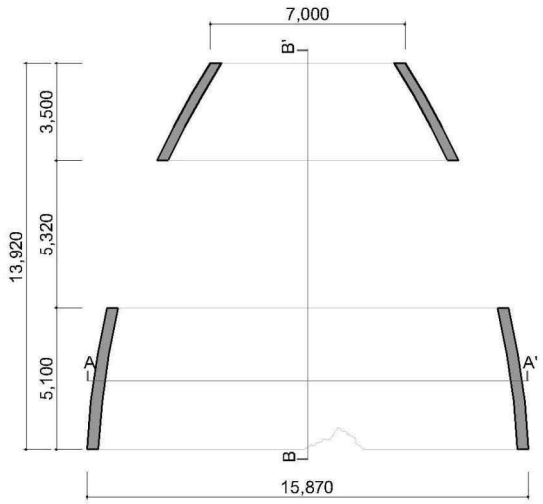


그림 36. 평산리 격납고 2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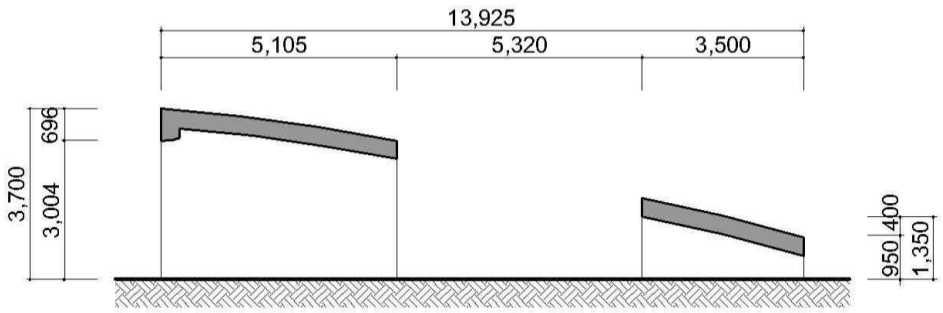


그림 37. 평산리 격납고 2 B-B′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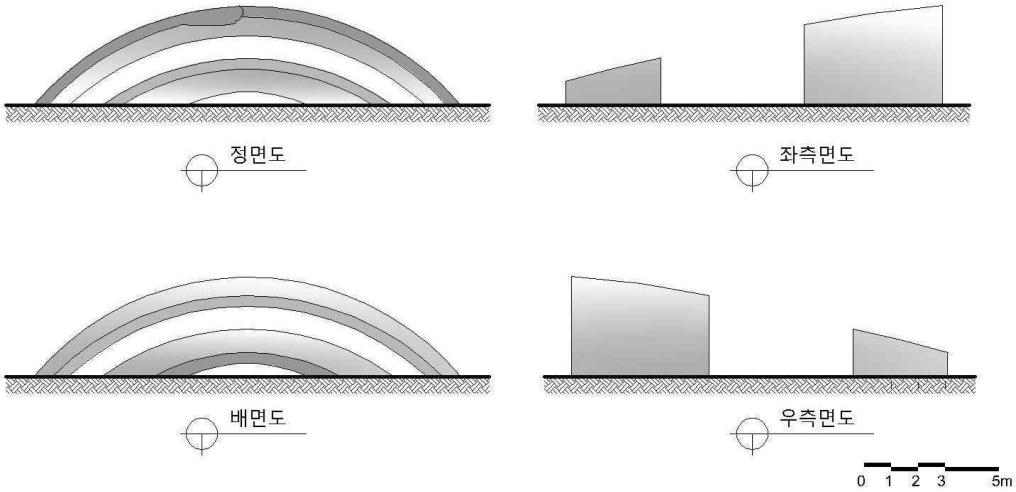


그림 38. 평산리 격납고 2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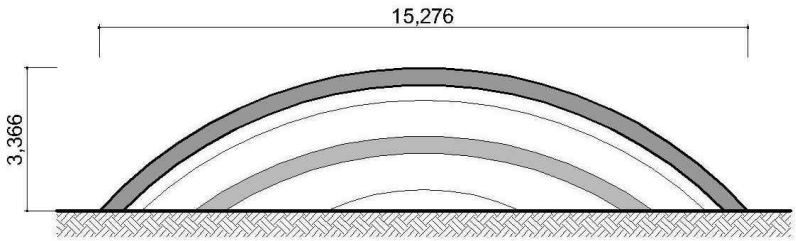


그림 39. 평산리 격납고 2 A-A′ 횡단면도

사진 79. 평산리 격납고 2 정면 전경

사진 80. 평산리 격납고 2 전면부 전경

사진 81. 평산리 격납고 2 좌측면 전경

사진 82. 평산리 격납고 2 후면부

사진 83. 평산리 격납고 2 정면 구조 상세

6) 평산리 격납고 Ⅲ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 20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평산리 격납고 Ⅱ와 인접하고 있으며(동측) 주변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이 격납고는 최근에 까지 농업창고로 활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다. 좌측으로 하부를 파고 상부에 비닐 천막이 덮어진 입구가 있고 상판 상부에는 창고 사용 시 설치했던 환기용 통풍구가 여러 개 있다.

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도 큰 편이다. 전면 개구부 폭은 14.4m이고 후면은 9.0m이다. 후면은 2/3 쯤 토벽으로 막혀있다. 측면 길이는 14.2m이며 전면 개구부 중앙 높이는 4.0m이다. 상판 두께는 0.6m로 다른 격납고 보다 약간 두껍다. 내부 면적은 167.6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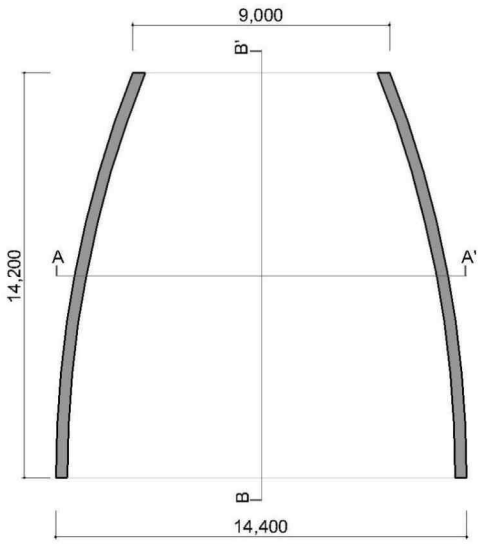


그림 40. 평산리 격납고 3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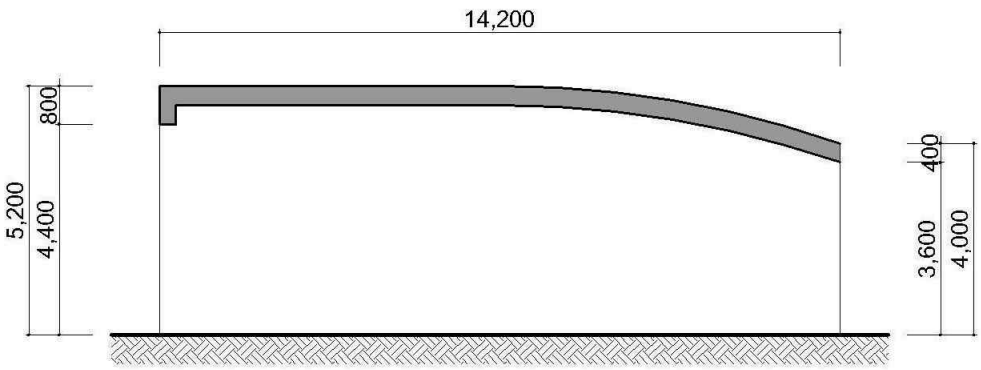


그림 41. 평산리 격납고 3 B-B′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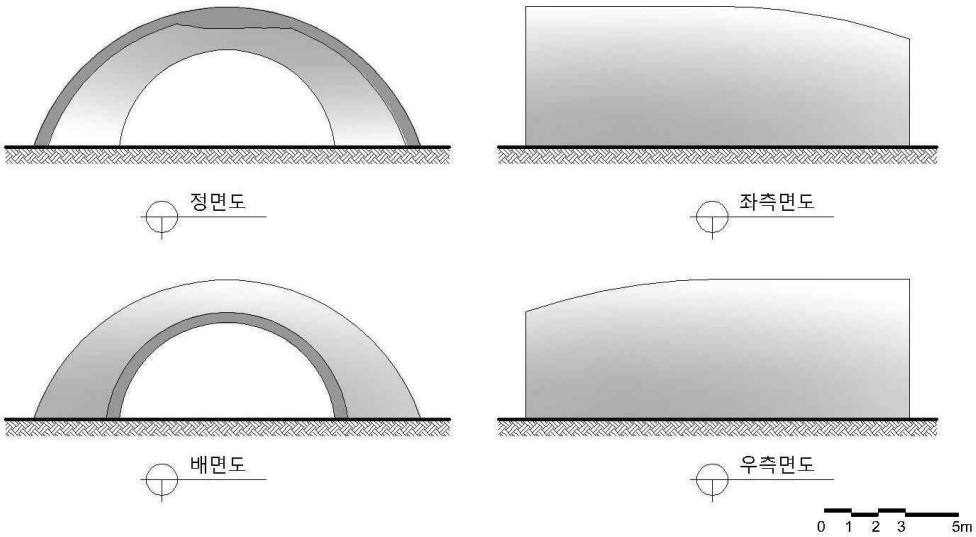


그림 42. 평산리 격납고 3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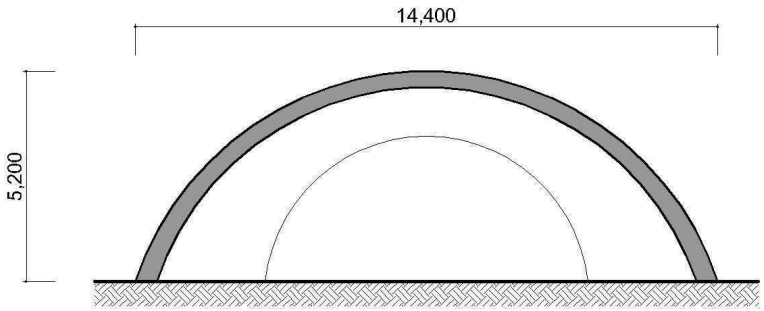


그림 43. 평산리 격납고 3 A-A′ 횡단면도

사진 84. 평산리 격납고 3 좌측면 전경

사진 85.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전경

사진 86. 평산리 격납고 3 입구

사진 87.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좌측 하단부

사진 88. 평산리 격납고 3 정면 처마부 상세

사진 89. 평산리 격납고 3 내부 천장

4 무안 현경 방공포대

표 12. 무안 현경 방공포대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전쟁관련시설
명칭	무안 현경 방공포대(防空砲臺)	용도	(현) 사용 안함 (원) 방공포대
건립	1940년대 초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산 88	시공자	미상
규모	건축면적 : 95.36㎡	연면적 : 105,6㎡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보존상태	양호		
소유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구조 양식	-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지 붕 : 평스라브		
연혁	현경 방공포대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군사비행장 근처에 축조한 전쟁관련시설로 건립연대는 1940년 대 2차 세계대전 말엽으로 여겨진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바로 인접한 민가의 창고로 한때 사용했으나 현재는 비어있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이 구조물은 2차 세계대전 말엽에 일본인이 축조한 군사시설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물이다. 바로 근접하여 본 구조물과 동일한 방공포대가 2018년도에 훼철되어 현재는 유일하게 본 포대만이 남아있다. 일본의 한국침략을 보여주는 남부지방의 유일한 포대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축조 당시의 모습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시급히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역사적 교훈장소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지정	미지정		

4-1. 연혁

현경 방공포대는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산 88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군이 일본 군용비행장 근처에 축조한 군사시설이다. 용도는 포 등 무기를 설치하여 하늘을 방어하는 구축물로 그간 알려져 왔다. 한편 이 구조물은 위치나 구조 상 지하벙커 기능도 함께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건립연대는 1940년 대 2차 세계대전 말엽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도 건립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았고 다만 바로 인접한 민가에서 한때 일부를 살림집 창고로 사용했다. 한편 현 포대 서측 약 50m거리에 구조나 규모가 거의 같았던 또 하나의 포대가 2018년도에 훼철됐다.

사진 90. 2018년 방공포대 위치도(다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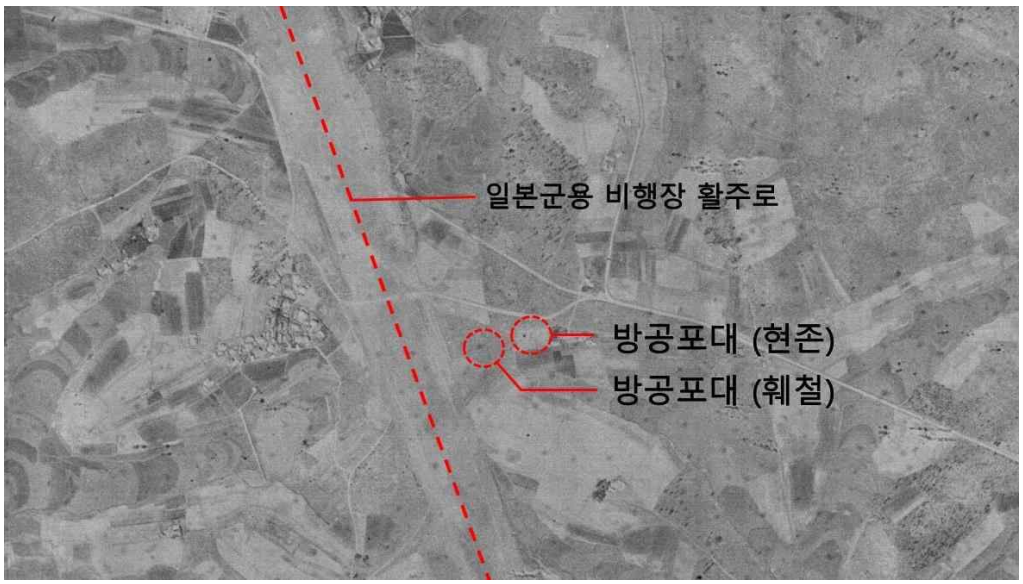


사진 91. 1948년 방공포대 위치도(국토지리정보원). 바로 좌측으로 비행기 활주로가 있다.

4-2. 건축 현황 및 특징

방공포대는 현재 주변이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산지 등 장애물이 없어 당시 하늘을 감시하는 데 좋은 위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포대 전면으로는 바로 근접하여 민가 1채가 있다.

방공포대는 반 지하 형 정방형 구조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지하 내부는 중앙에 내경 1,33m의 복도를 두고 양 측면으로 같은 규격의 4개의 실(3,290x2,290)이 꾸며져 있으며 출입을 위한 별도의 계단실은 좌측에 두었다. 각 실 상부에는 850x600 정도의 개구부가 지붕 상부 스라브 1,1m 높이까지 돌출되어있다. 즉 4개의 돌출구조물이 지붕 상부 스라브에 있다. 이 구조물의 용도가 포탄 등 실탄의 운반구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는 추후 관계 전문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전쟁관련 시설답게 구조가 매우 육중하고 단순하다. 현재까지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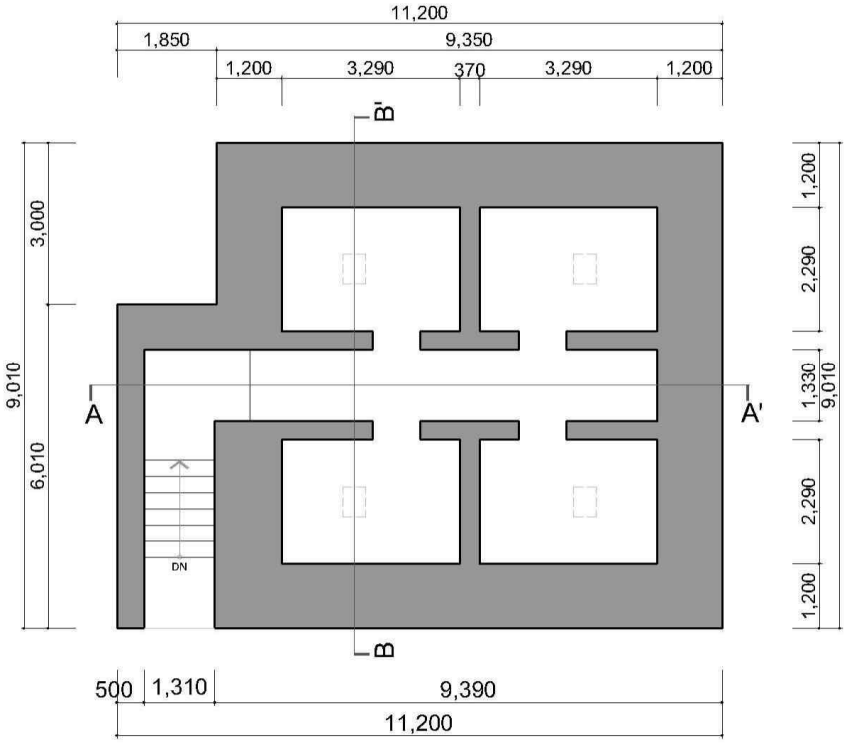


그림 44. 방공포대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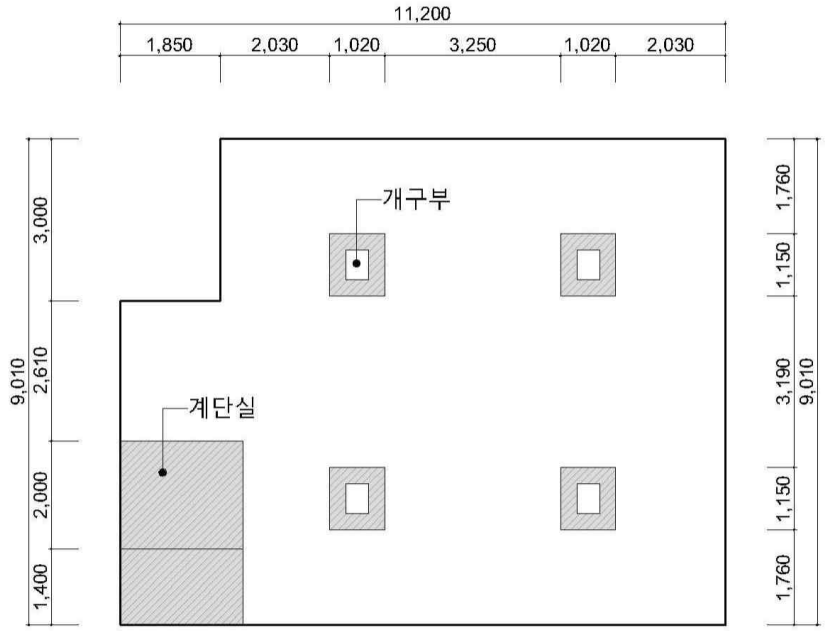


그림 45. 방공포대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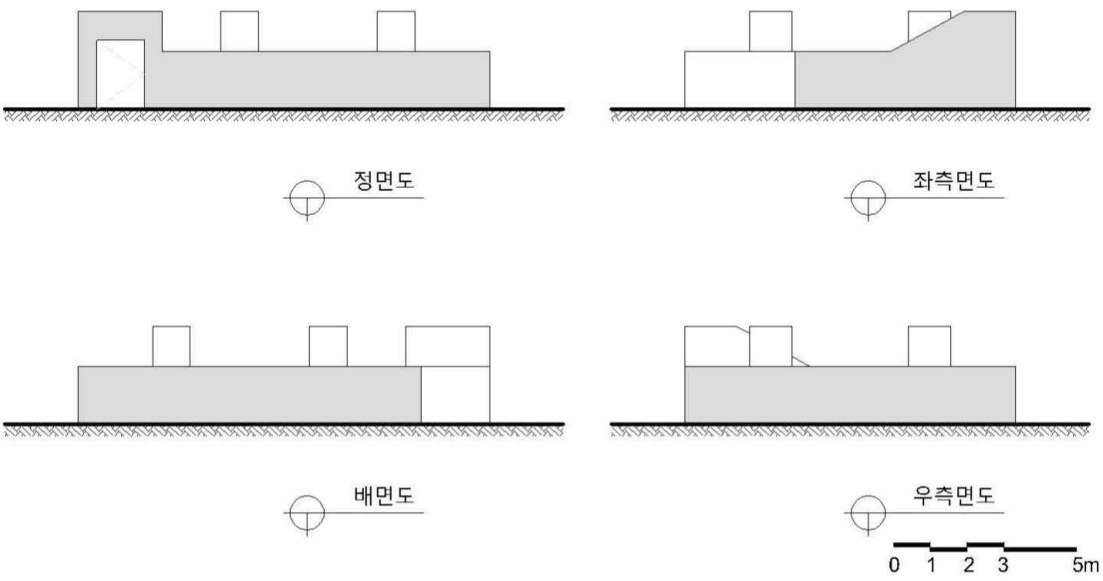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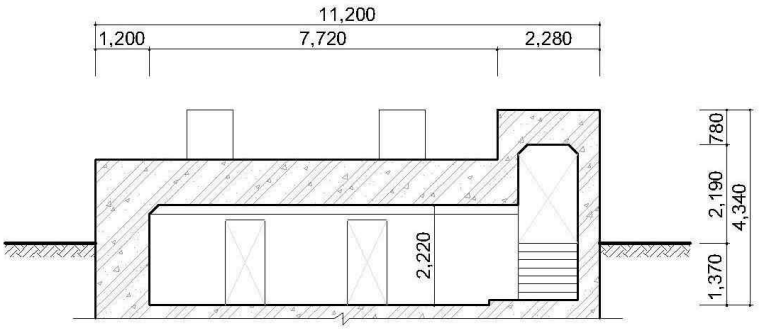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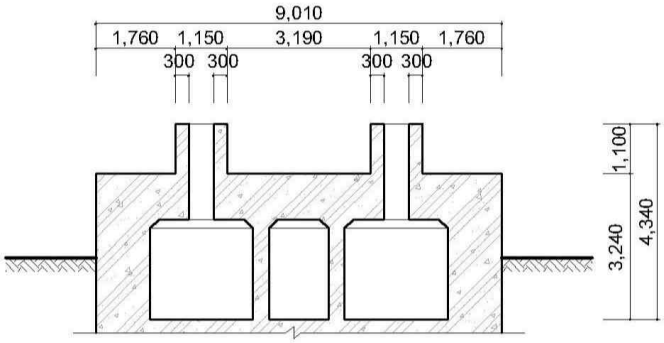


그림 46. 방공포대 입면도



A-A′ 횡단면도



B-B′ 종단면도

그림 47. 방공포대 단면도

사진 92. 방공포대 전경 / 배 · 좌측면

사진 93. 방공포대 지하 내부(복도)

사진 94. 방공포대 지하실 내부

사진 95. 방공포대 상부 전경

사진 96. 방공포대 정면 전경

사진 97. 방공포대 총알 흔적

사진 98. 방공포대 실내 통풍구

사진 99. 방공포대 돌출개구부
(지붕상부에서 지하실내)

사진 100. 방공포대 돌출개구부
(지하실내에서 지붕상부)

5 무안 병산 방공호

표 13. 무안 병산 방공호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전쟁관련시설
명칭	무안 병산 방공호(防空壕)	용도	(현) 사용안함
			(원) 대피시설
건립	1940년대 초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산 59-5	시공자	미상
규모	3기		
보존상태	보통		
소유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구조 양식	구조 : 동굴형 수평형식, 암반 구조		
연혁	무안 현경면 병산 일대에 일본군의 대피시설로 1940년대 초에 축조 된 동굴형 방공호다. 본 조사에서 3기를 발굴했으나 이 외에도 병산 일대에 다수의 동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병산 방공호는 인근 비행장 격납고, 참호, 방공포대 등과 함께 무안 현경면 일대에 일본군이 축조한 군사시설이다. 그간 방공호 특성상 식별이 어려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향후 적절한 본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3기 방공호는 1차적으로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후 향후 추가 및 전수 조사를 통해 지방 및 국가문화재 지정 등 구체적 보존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정여부	미지정		

5-1. 연혁

방공호는 적의 항공기 공습이나 대포, 미사일 따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땅속에 파 놓은 굴이나 구덩이를 말한다. 본 방공호도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폭격에 대비하여 병산 일대에 축조한 일본군 방공호로 인근의 비행장 격납고, 방공포대 등과 함께 일본군의 중요한 군사시설로서 주목이 된다. 목포에도 유달산과 고하도 일대에 많은 방공호가 있으며 그중 구 일본영사관 바로 후면에 있는 방공호는 등록문화재 제 588호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금 번 조사에서는 모두 방공호 3기를 발굴했으나, 이 외에 다수의 방공호가 병산 곳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 간 방공호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입구 및 그 주변에 많은 토사와 수목 등이 우거져있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식별이 않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사진 101. 방공호 위치도 (다음 위성지도)

5-2. 구조 현황 및 특징

방공호 3기는 각각 약 100m의 거리를 두고 병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방공호 주변은 각종 수목으로 덮여있고 입구는 토사가 내려와 진입구가 거의 가려져 있다. 내부는 모두가 암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훼손 된 곳 없이 축조 당시의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

방공호 1호는 전체 길이 3.6m, 높이 1.8m, 폭 3.3m로 길이는 짧으나 대신 폭이 상당히 넓다. 따라서 내부가 웅덩이식의 원형모습이다. 내부는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있고 입구는 현재 높이가

0.65m로 매우 낮고 좁으며 경사가 심하다. 방공호 2호는 전체 길이 20m, 높이 2.7m, 폭 2m로 전형적인 터널식 구조다. 높이도 2.7m로 매우 높아 사람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다. 상부구조는 단면이 아치형식이 아닌 평평한 구조로 이는 다른 1,3호도 같다. 입구는 폭이 상당히 좁으며 약 3m정도 경사로로 내려간 후 본 방공호가 드러난다. 방공호 3호는 1호와 2호의 중간 규모로 전체 길이 9.89m, 높이 2.1m, 폭 1.88m다. 구조는 방공호 2호와 유사한 터널식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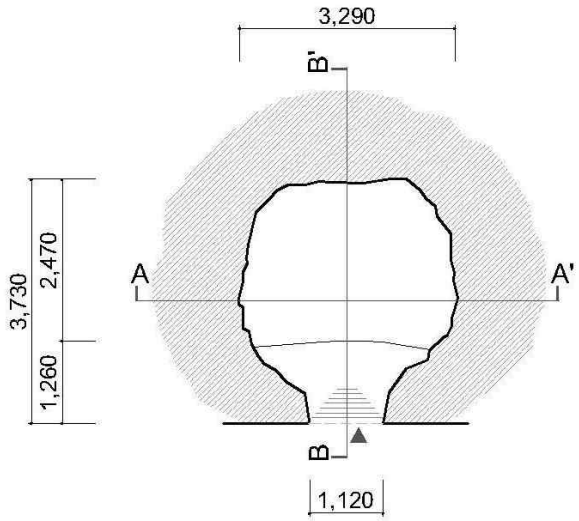


그림 48. 병산 방공호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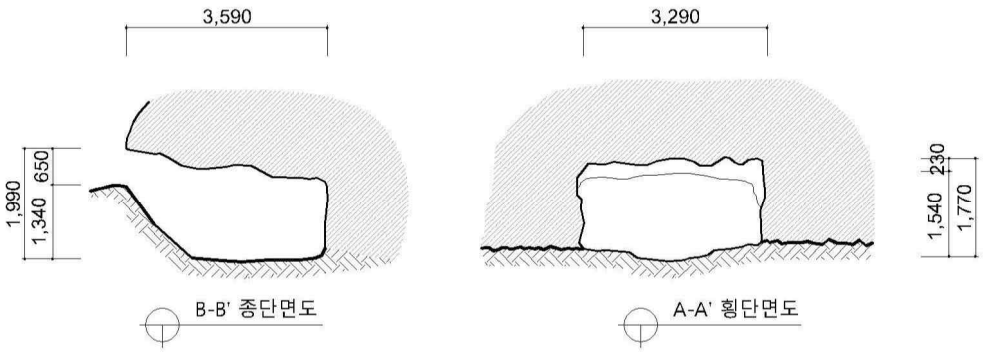


그림 49. 병산 방공호 1 단면도

사진 102. 병산 방공호 1 입구

사진 103. 병산 방공호 1 내부 전경

사진 104. 병산 방공호 1 입구 전경

사진 105. 병산 방공호 1 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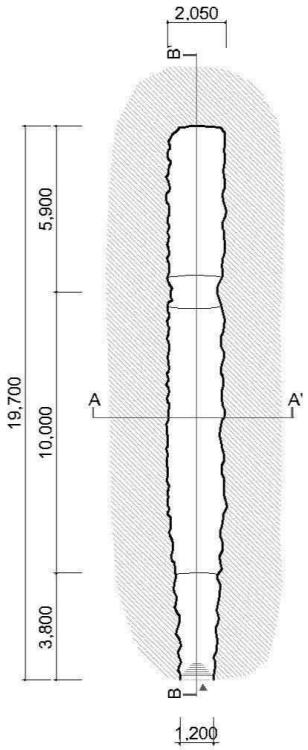


그림 50. 병산 방공호 2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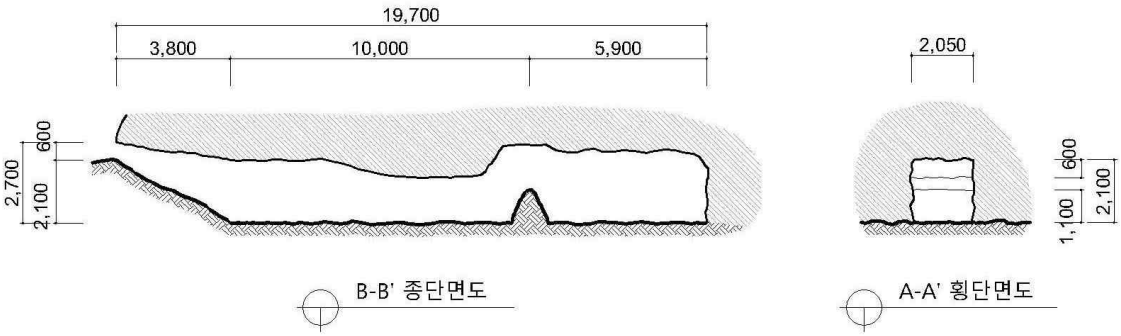


그림 51. 병산 방공호 2 단면도

사진 106. 병산 방공호 2 입구 주변 전경

사진 107. 병산 방공호 2 입구

사진 108. 병산 방공호 2 입구 경사로

사진 109. 병산 방공호 2 내부, 끝부분

사진 110. 병산 방공호 2 내부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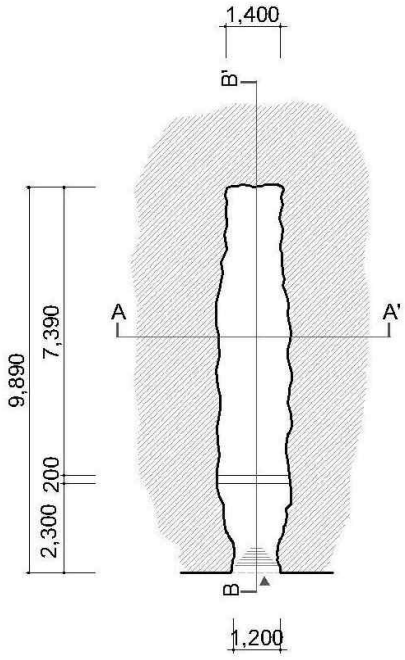


그림 52. 병산 방공호 3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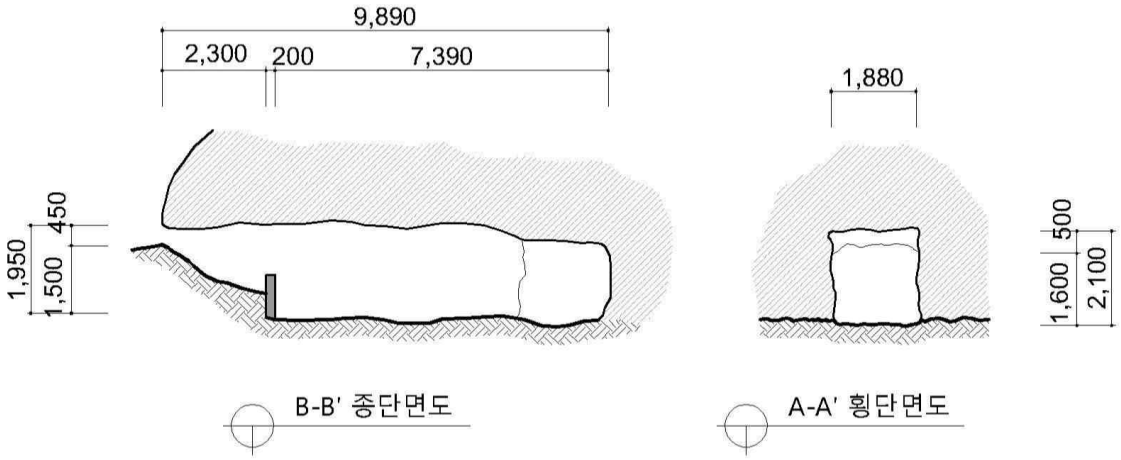


그림 53. 병산 방공호 3 단면도

사진 111. 병산 방공호 3 입구 전경

사진 112. 병산 방공호 3 입구

사진 113. 병산 방공호 3 내부

사진 114. 병산 방공호 3 내부 상부

사진 115. 병산 방공호 3 내부 측면

6 무안 병산 참호

표 14. 무안 병산 참호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전쟁관련시설
명칭	무안 병산 참호(塹壕) /추정	용도	(현) 사용안함
			(원) 전투시설
건립	1940년대 초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산 59-5	시공자	미상
규모			
보존상태	참호 1, 참호 2 모두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소유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구조 양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혁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0년대 초반에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쟁관련 시설 2기가 병산 상부에 있다. 위치는 그들이 건설한 군용비행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방공호도 있다. 용도는 참호로 여겨지나 혹시 초소 등 다른 군사시설일 수도 있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축조된 참호로 여겨지는 전쟁 관련 구조물이다. 향후 군사시설 전문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구조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보존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6-1. 연혁

참호는 넓은 의미로 야전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시설이다. 형태는 도랑형식으로 땅을 파고 상부에 소총이나 기관총 등을 거치하고 방어와 공격을 한다. 땅을 팔 수 없을 때는 흙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 올려서 제방같이 만든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0년대 초반에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군사 방어용 시설이 병산 상부에 2기가 있다. 위치는 그들이 건설한 군용비행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방공호도 있다. 이 구조물은 참호로 여겨지나 혹시 초소 등 다른 군사시설 일 수도 있다.(본 보고서 사진과 도면에서는 '참호' 란 명칭 사용) 향후 관계전문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시설물로 여겨진다.

이 구조물은 병산 진입로에 1기(참호 1)가 있고 이와 약 550m 위쪽에 또 1기(참호 2)가 있다. 2기 모두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구조물은 숲속에 가려져 그간 식별이 잘 안 됐고 그 형태가 지표에만 드러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 116. 병산참호 위치도

6-2. 구조 현황 및 특징

참호 2기 모두 도랑형식이 아닌 단독형 참호다. 형태는 1,300x1,300mm크기의 방형 호가 있고 그 전면으로는 날개형식의 대칭 구조물이 홀과 연결되어있다. 설치 방향은 모두 군용비행장을 바라보는 하향이다. 구조는 바닥면까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벽체두께는 150mm다. 호 깊이는 0.985m로 예상보다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한편 정방형 홀 내부 4면 구석에는 약간 패인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사진 123) 일부에 목재 파편도 있는데 이는 상부에 지붕 설치를 위한 기둥 자리였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즉 이구조물은 초소의 하부구조물로도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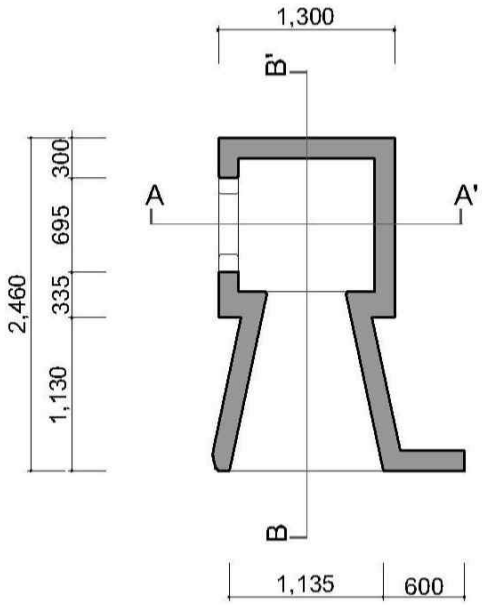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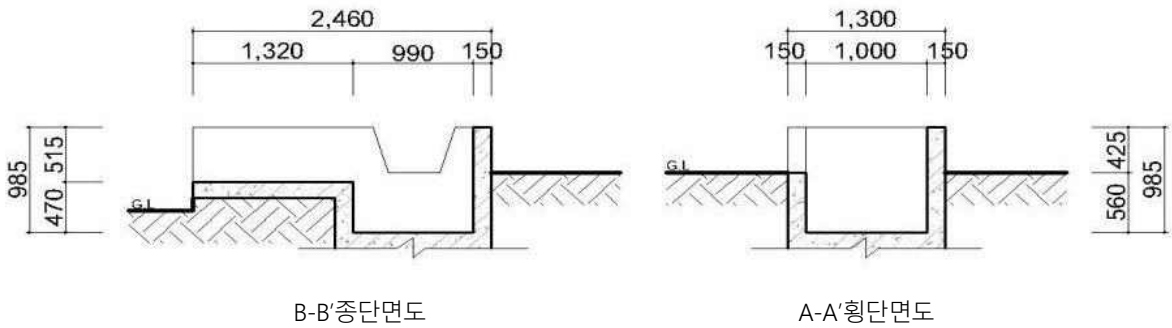


그림 54. 병산 참호 1호기 평면도



B-B′종단면도 A-A′횡단면도

그림 55. 병산 참호 1호기 단면도

사진 117. 병산 참호 1호기 전경

사진 118. 병산 참호 1호기 하단부

사진 119. 병산 참호 1호기 홀

사진 120. 병산 참호 1호기 하부

사진 121. 병산 참호 1호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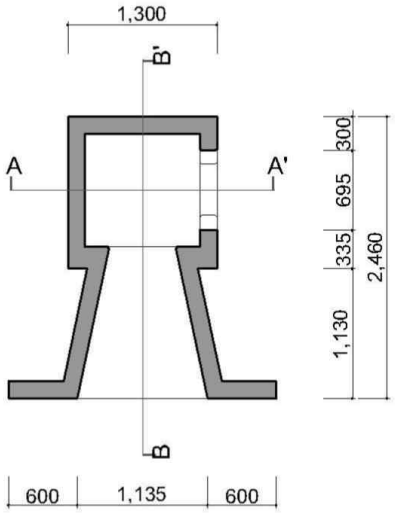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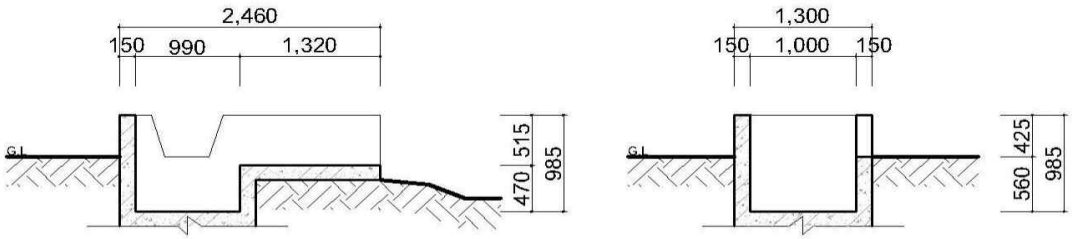


그림56. 병산 참호 2호기 평면도



B-B'종단면도 A-A'횡단면도

그림 57. 병산 참호 2호기 단면도

사진 122. 병산 참호 2호기 전경

사진 123. 병산 참호 2호기 내부 홀 모습

사진 124. 병산 참호 2호기 내부 매립토사 제거작업

사진 125. 병산 참호 2호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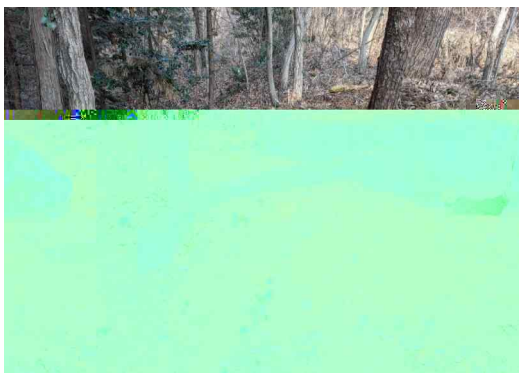


사진 126. 병산 참호 2호기 측면

사진 127. 병산 참호 2호기 모습

7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표 15.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산업시설
명칭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上水施設)	용도	(현) 사용 안함
			(원) 상수 시설
건립	제 1 상수시설 : 1916년 제 2 상수시설 : 1928년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49,38	시공자	미상
규모	수원지 및 댐, 교량, 취수정, 침전지(여과지), 기계실 등		
보존상태	제 1 상수시설, 제 2 상수시설 모두 양호		
소유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구조 양식	댐 : 토축식 침전지(여과지), 기계실 : 철근 콘크리트조		
연혁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2기 모두는 일제강점기 목포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현대적 토목기술을 이용해 만든 상수 시설이다. 제 1 기는 1914년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되었고, 제 2 기는 1928년에 제 1 기에 근접하여 완공하였다. 현재 수원지 및 둑, 취수정, 침전지, 기계실 등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본 상수시설은 일제강점기에 축조 된 산업시설로 당시의 상수 관련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이다. 1940년도에 축조된 동해 구 상수시설이 2004년도에 등록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본 상수시설은 그 이상의 건립 역사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 상수시설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건의한다.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7-1. 연혁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군산동 마을에는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2기의 상수시설이 있다. 모두 마을 후면 해발 283m의 국사봉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을 담수해 수원지를 축조했고 그 아래쪽에 상수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들은 당시 목포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현대적 토목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본래 목포시가지는 대부분 해안 매립지로서 거의 우물물(지하수)을 얻을 수 없는 지형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개항(1897)무렵부터 각국거류지회에서는 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원지 확보에 큰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로 1930년경까지 모두 4개의 수원지를 확보했는데 그중 3곳이 무안 관할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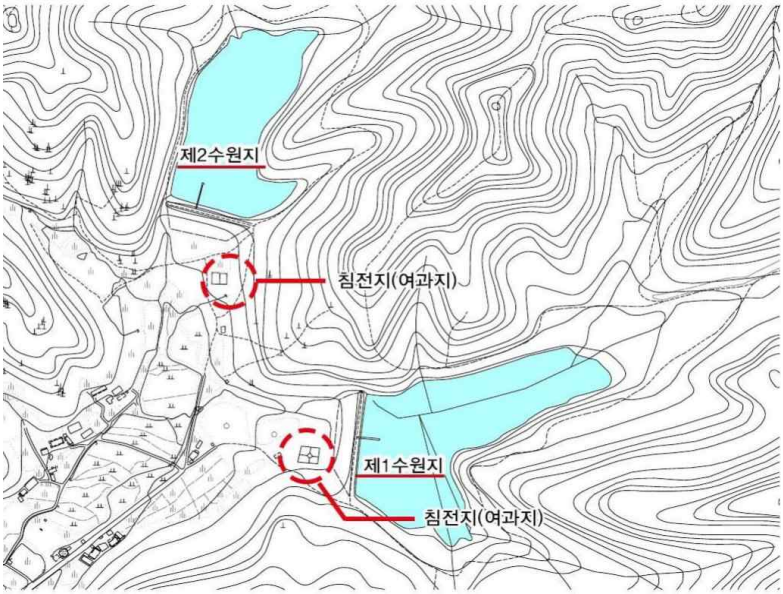


그림 58. 상수시설 위치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128. 상수시설 위치도 / 다음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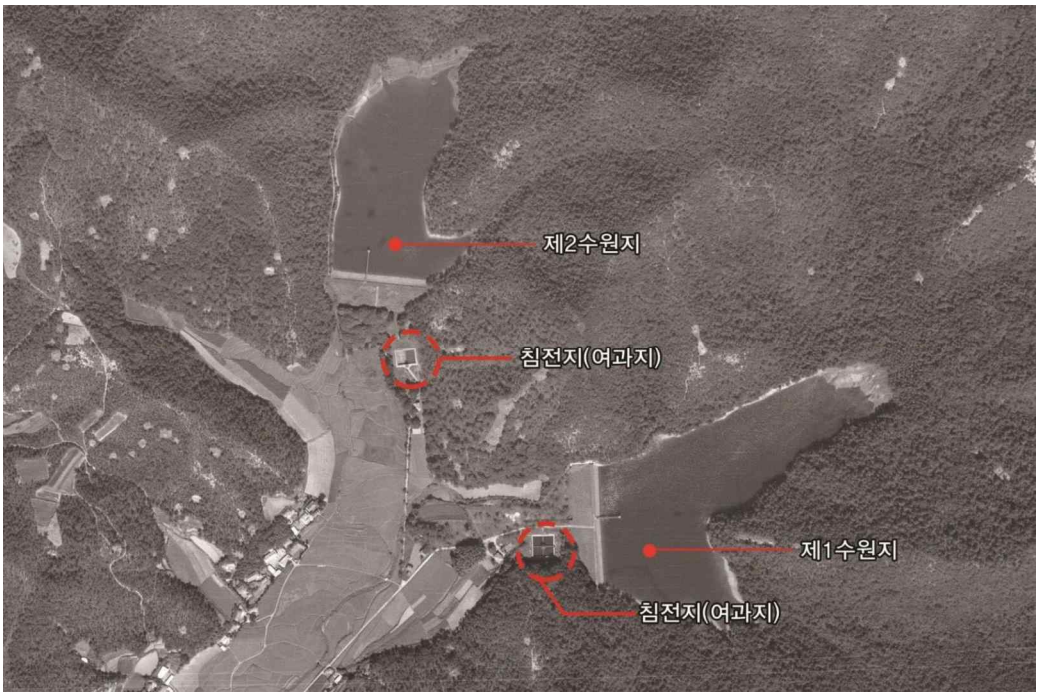


사진 129. 상수시설 위치도 (1976년 항공사진)

<군산동 제 1 상수시설>

군산동 제 1 상수시설은 목포시가지 동북방향 약 13Km 떨어진 곳에 1914년 4월에 착공하여 1916년 4월에 통수식을 했으며 유역면적은 103,9 ha 였다. 1914년 공사 시작 사실은 '목포부사' (1930)에도 기록이 보이며 침수정에서 연결된 원형 관로에도 '대정 3년..(1914).' 이란 문구가 있어 1914년 공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사비는 총23만5천원이었는데 반은 국고로, 나머지 반은 부채로 충당했다. 이후 1923년에 둑을 90Cm 높여 저수능력을 증가시켰다. 당시 이 수원지에서 생산된 용수는 인구 2만명이 189일간 소비할 수 있는 수량이었다. 현재 수원지 및 댐(둑), 침수정 및 교각, 정수시설 등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목포부사' 참조

사진 130. 1920년대 수원지 둑 아래 모습.
우측 목조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자료: 목포부사(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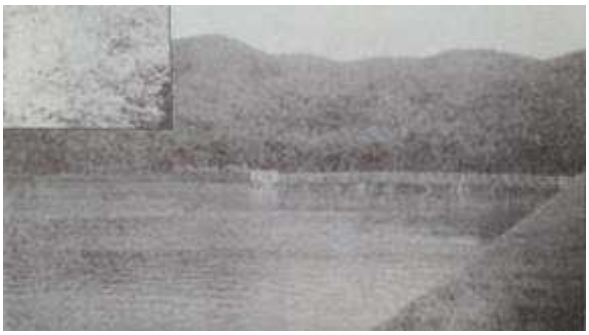


사진 131. 1920년대 수원지 전경.
저수지 중앙에 집수정으로 가는 철제 다리가 보인다.
자료: 목포부사(1930)

사진 132. 관로 제작연대/ 大正三年(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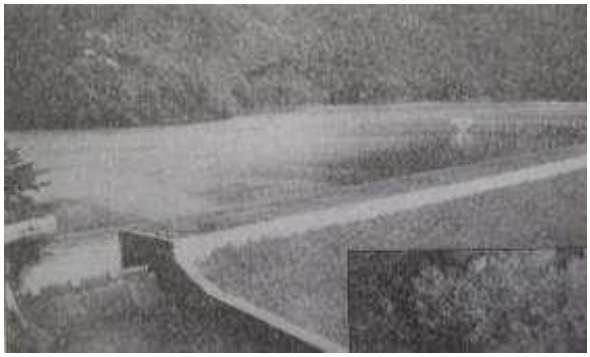


사진 133. 1920년대 수원지 전경. 좌측부분은 자연 배수로로 현재도 그 구조가 남아있다.
자료: 목포부사(1930)

<군산동 제 2 상수시설>

제 2 상수시설은 제 1 상수시설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공사는 1926년 6월에 시작하여 1928년 3월에 준공됐다. 공사비는 13만 5천원이 들었으며 유역면적은 49,2 ha였다.('목포부사' 참조) 제 1 상수시설 준공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대형 수원지를 또 개발한 것은 당시 목포인구가 1915년 12,782명에서 1925년에는 26,718명으로 10년 만에 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 2 상수시설도도 비록 제 1 수원지 및 그 시설보다 규모는 작으나 현재 수원지 댐(둑), 침수정 및 교각, 정수시설 등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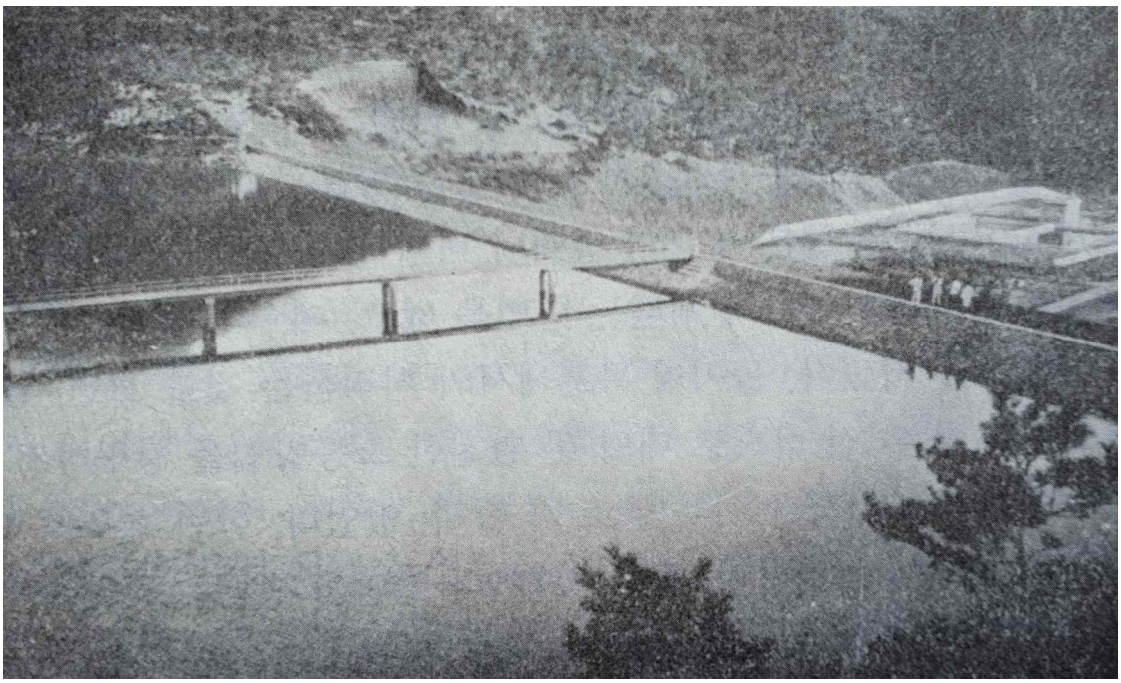


사진 134. 1920년대 수원지 전경. 자료: 목포부사(1930)

7-2. 구조 현황 및 특징

<군산동 제 1 상수시설>

군산동 제 1 상수시설은 크게 저수지(수원지)와 침전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저수지 둑의 높이는 15.15m이며, 둑 바깥면 경사지에는 상부로 오르는 돌계단이 정교하게 축조되어 있다. 수원지 내 취수탑은 내경 1m 52cm로 둑과 같은 높이로 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으며, 둑과 취수탑 사이에는 철골조 다리가 가설되어있다. 둑 하부에서 취수탑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는 폭 1.5m, 높이 1.4m의 아치형 구조로 되어있고 입구 출입부는 방형의 석재로 정교하게 축조되어있다.

침전지는 모두 4개로 한 변에 크기가 약 12m의 정방형구조이며, 그 중앙에 기계실 (중앙집합정)이 있다. 침전지 높이는 2.42m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사용 당시 침전지 여과층은 자갈 두께 36cm, 모래 두께 30cm를 두고 수심은 90cm를 유지하였다.

기계실은 침전지 둑 사방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평면은 완전 원형의 독특한 정대칭 구조이며 지붕도 원뿔형이다. 출입구는 정교한 석제 아치구조로 되어 있고, 문은 철제문이 달려있다. 상부 처마 돌림띠 중앙에는 원형 일장기가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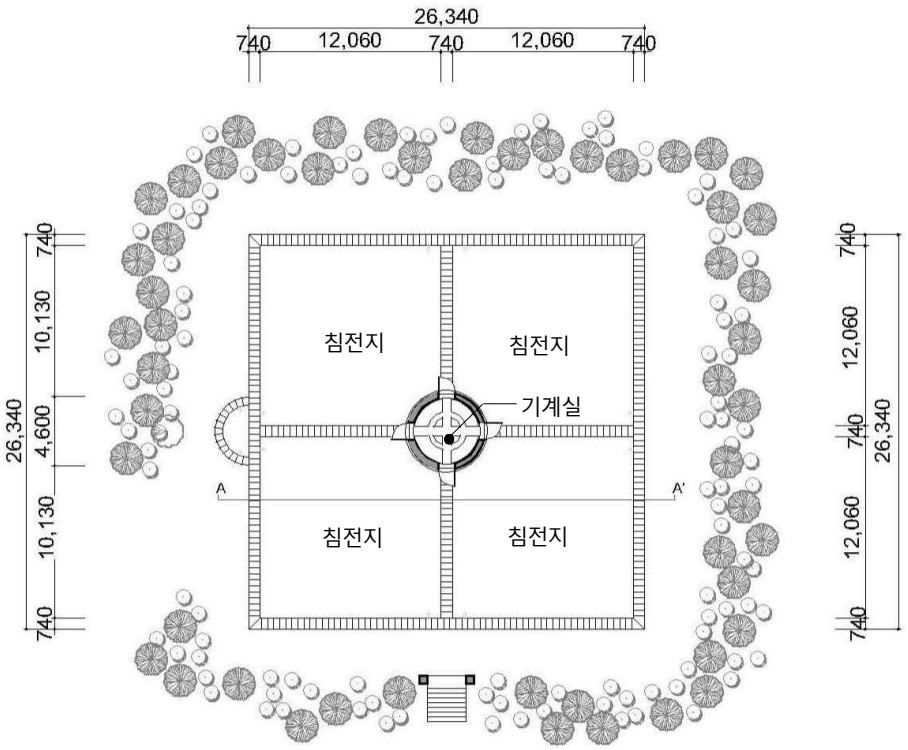


그림 59. 제 1 상수시설 침전지 및 기계실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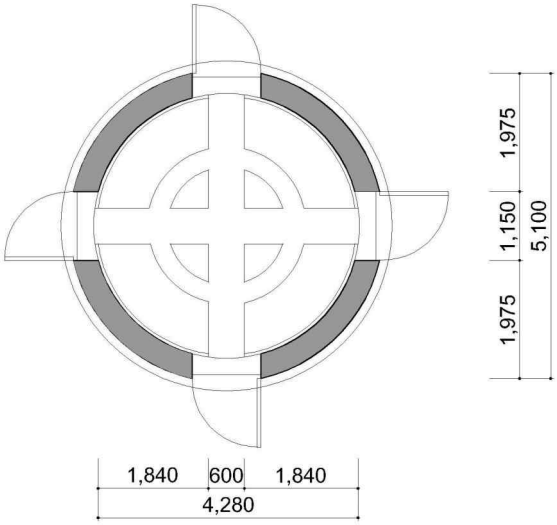


그림 60. 제 1 상수시설 기계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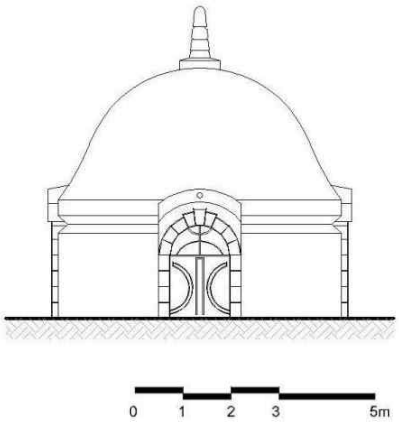


그림 61. 제 1 상수시설 기계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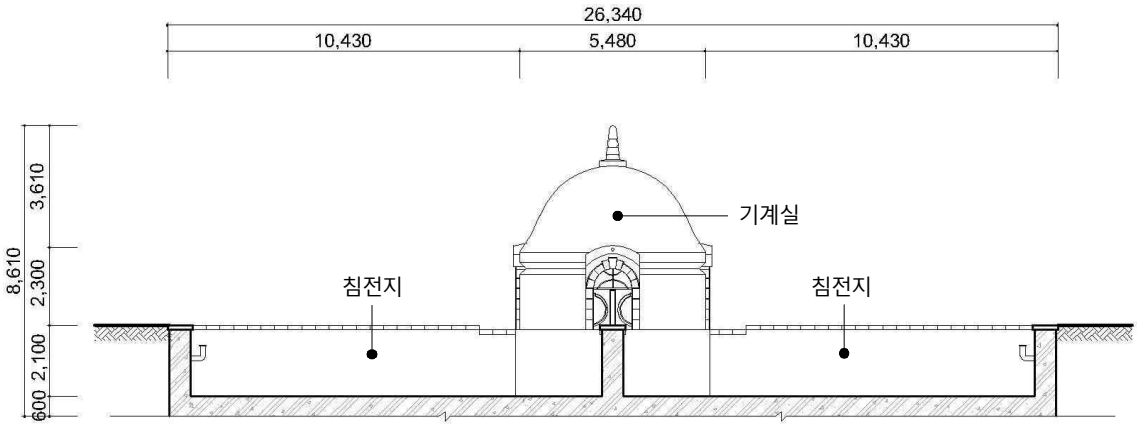


그림 62. 제 1 상수시설 침전지 전체 단면도

사진 135. 침전지 전체 전경

사진 136. 기계실 전경

사진 137. 기계실 내부

사진 138. 침전지 상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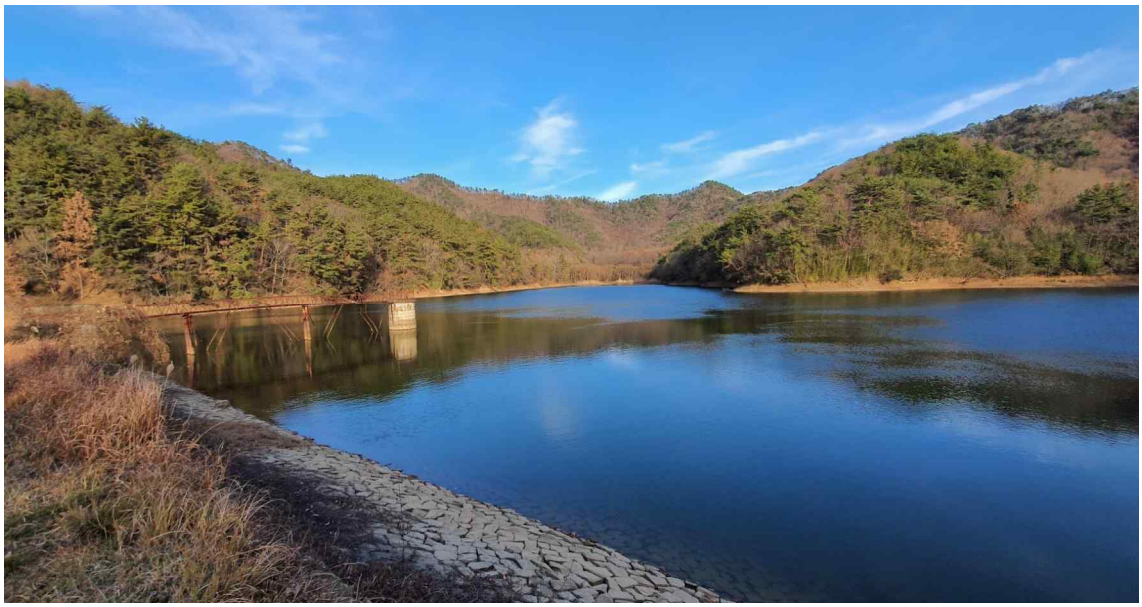


사진 139. 제 1 상수시설 수원지 전경

사진 140. 취수정 지하통로 입구 출입부. 수원지 댐 좌측 편에 있다

사진 141. 취수정 입구 출입문 명패, 瑞露溪 [서로계]

사진 142. 취수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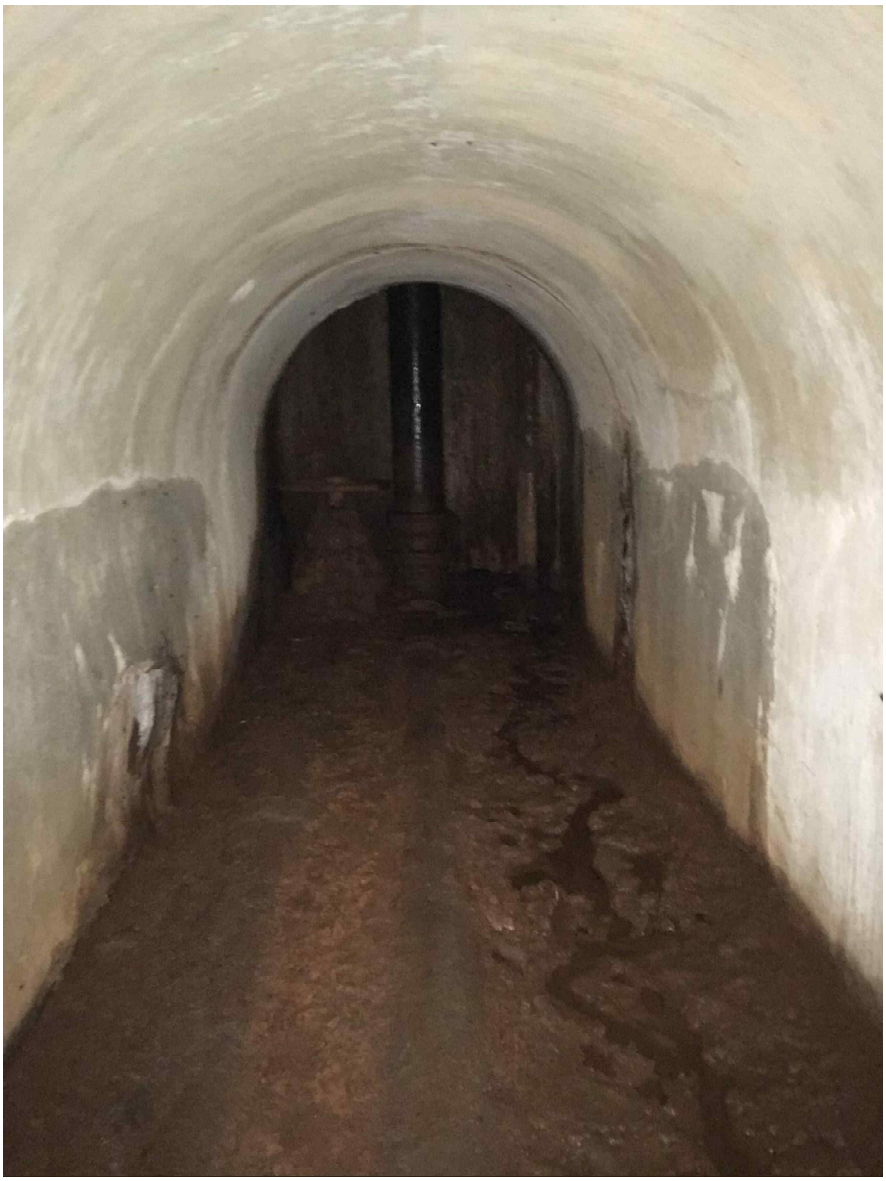


사진 143. 취수정 진입 지하 통로. 끝에 보이는 관이 취수정 연결 관로

사진 144. 댐 석축 배수로

사진 145. 댐 안측 석축

<군산동 제 2 상수시설>

군산동 제 2 상수시설은 크게 저수지(수원지)와 침전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저수지는 둑은 흙으로 축조했고 높이는 15.15m이다. 둑 상부 폭은 4.52m 둑 길이는 127.27m이다. 취수탑은 내경 1.45m 콘크리트 구조이며 둑에서 취수탑까지는 철근콘크리트조 교각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철판이 설치되어있다.

침전지는 모두 2개로 크기가 폭 10m, 길이 16m의 정방형구조이며, 기계실(중앙 집합정)은 침전지 한쪽 가에 있다. 침전지 높이는 2.42m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사용 당시 침전지 여과 층은 자갈 두께 45cm, 모래 두께 76cm를 두고 수심은 90cm를 유지하였다.

기계실은 침전지 바깥쪽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평면은 완전 정방형(3700x3520) 구조로 되어있다. 출입문은 아치구조이며 측면 창 또한 아치구조로 되어있고 벽체 4면 모서리에는 석재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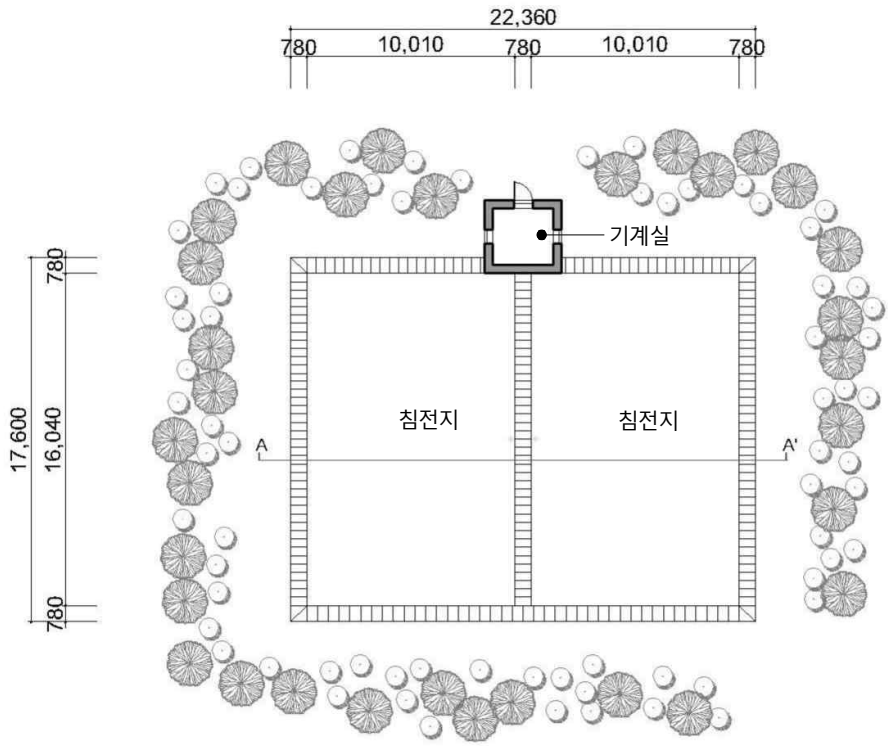


그림 63. 제 2 상수시설 침전지 및 기계실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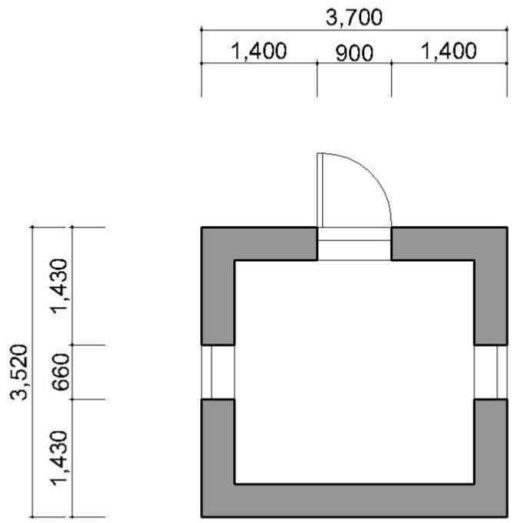


그림 64. 제 2 상수시설 기계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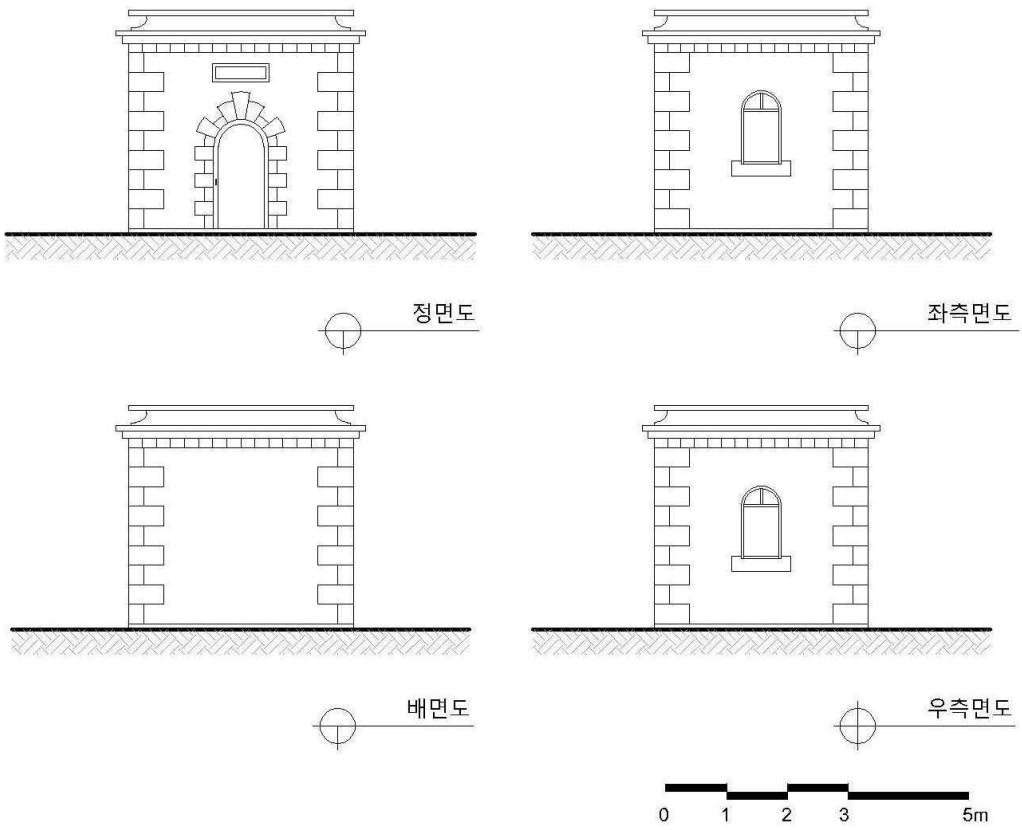


그림 65. 제 2 상수시설 기계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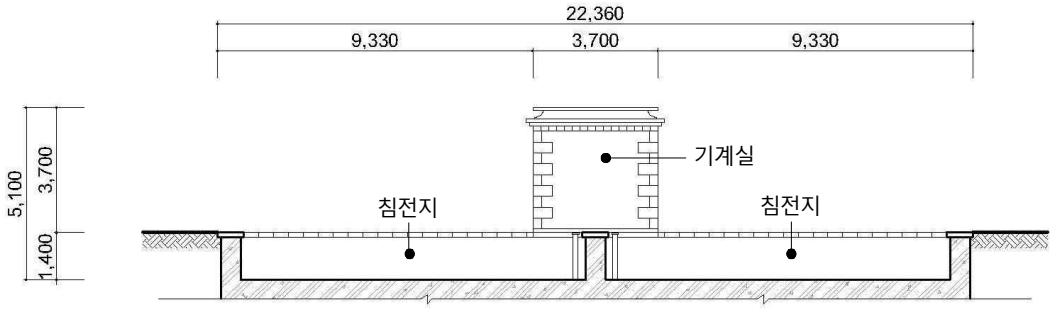


그림 66. 제 2 상수시설 침전지 A-A′ 단면도

사진 146. 침전지 전경

사진 147. 침전지 상세 1

사진 148. 침전지 상세 2

사진 149. 기계실 전경

사진 150. 기계실 좌측면

사진 151. 기계실 내부

사진 152. 수원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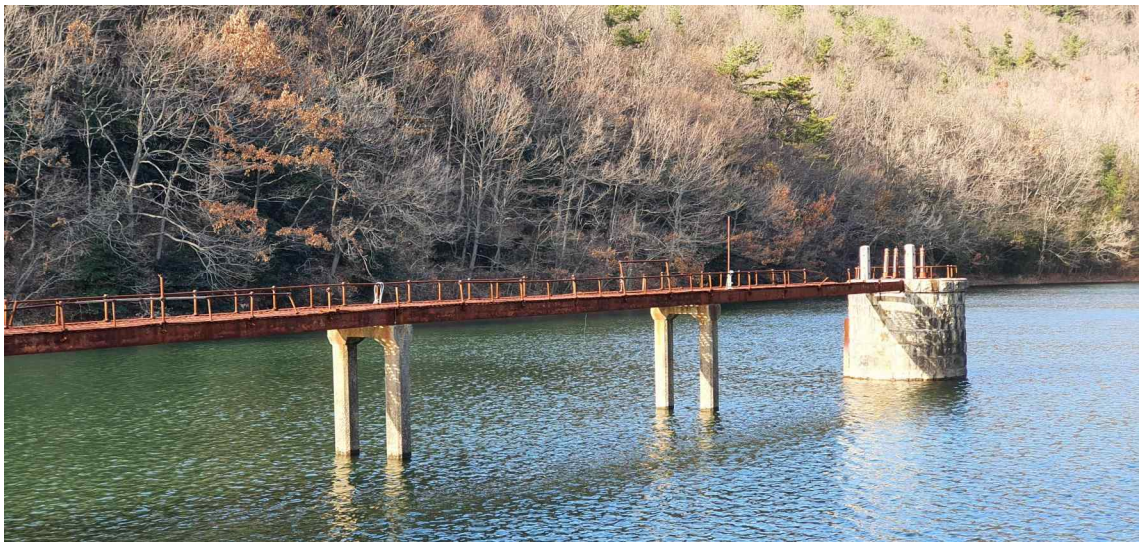


사진 153. 취수정 연결 교량 및 취수정

사진 154. 취수정 전경

사진 155. 취수정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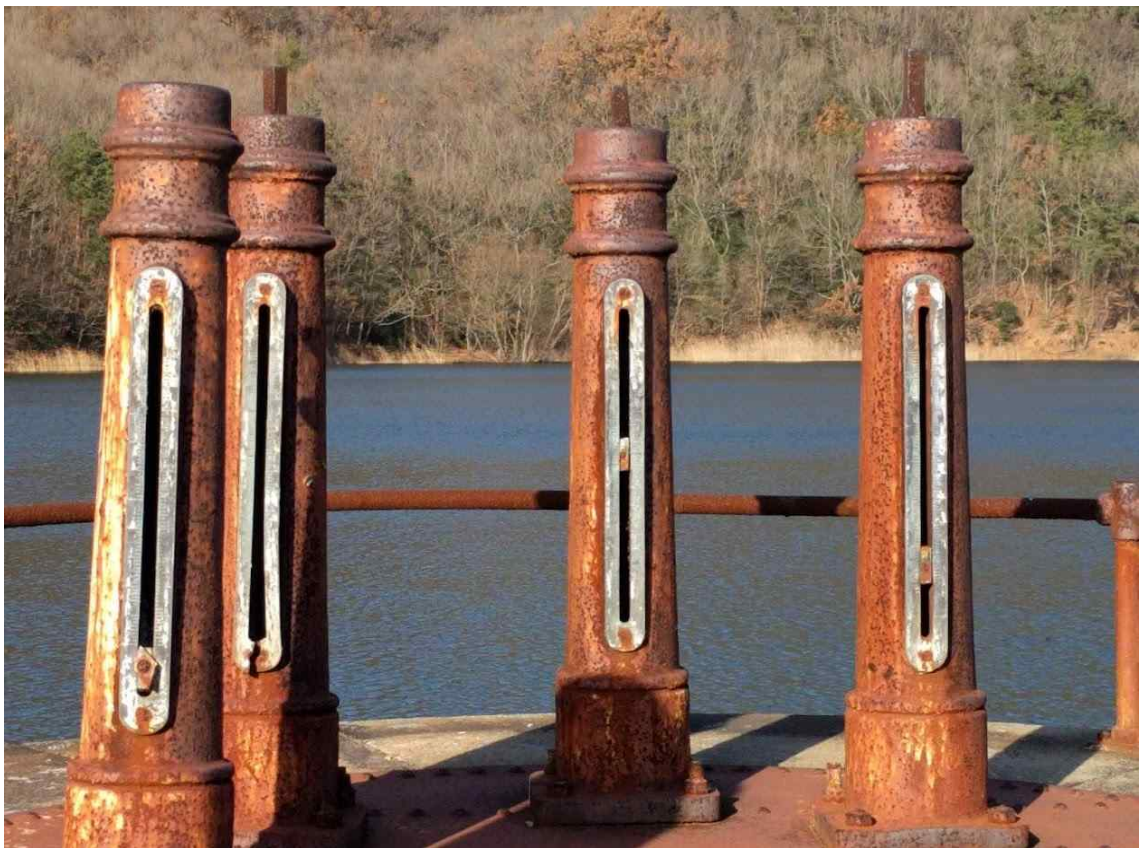


사진 156. 취수정 상부 시설물

사진 157. 교량 상부

사진 158. 저수 댐 진입 중앙 계단

사진 159. 저수댐 안쪽 석축

사진 160. 외부 송수 관로

8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표 16.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현황 조사표

분야	근대문화유산	분류	주거시설
명칭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近代韓屋)	용도	(현) 주거
			(원) 주거
건립	1938년경, 1944년(건축물대장)	설계자	미상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872	시공자	미상
규모	정면 7칸 , 측면 4칸 (전후좌우 퇴칸) 단층 팔작집		
보존상태	양호		
소유자	남영순	연락처	
관리자	김성욱	연락처	010-3758-9454
구조 양식	팔작지붕, 2고주 5량가, 민도리 양식		
연혁	왕산리 근대한옥은 현 관리자(50대)의 증조부께서 건립한 가옥으로 관리자의 부친(1936년생)이 2살 때 건립한 가옥이라고 한다. 이 고증으로 보면 1938년 경으로 여겨지나 건축물대장에는 1944년으로 기재되어있어 서로 약 6년의 편차가 있다. 이 한옥은 일제강점기 삼향읍 주변에 많은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의 가옥으로 전통가옥과 크게 구별되는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다.		
수리기록	없음		
종합의견	이 한옥은 1930년대 후반에 건립 된 당시 대지주 살림집(안채)으로 근대기 부농가 한옥의 구조와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주거 및 건축사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무안의 근대문화유산이다.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8-1. 연혁

왕산리 근대한옥은 현 관리자(50대)의 증조부께서 건립한 가옥으로 관리자의 부친(1936년생)이 2살 때 건립한 가옥이라고 한다. 이 고증으로 보면 1938년경으로 여겨지나 건축물대장에는 1944년으로 기재되어있어 서로 약 6년의 편차가 있다. 그러나 당시 건축물대장은 가옥의 경우 건립 이후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본 가옥의 건립은 1938년경으로 여겨진다.

이 한옥은 일제강점기 삼향읍 주변에 많은 토지를 보유한 부농가의 가옥으로 전통가옥과 크게 구별되는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안채만이 남아있으나, 건립 당시 문간채, 헛간채, 사랑채 등이 있었던 매우 규모가 큰 가옥이었다. 안채 전면 한쪽 편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채는 오래전에 매도되어 현재는 별도의 가옥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진 161. 왕산리 근대한옥 위치도 (다음 지도)

그림 67. 왕산리 근대한옥 위치도 (지적도)

8-2. 구조 현황 및 특징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전후와 좌우로 모두 반 칸 퇴를 두었다. 평면구성은 전체적으로 근대한옥의 특징인 세분화된 경향이 있다. 정중앙으로 안방을 들이고 좌측으로는 부엌과 작은방을, 우측으로는 대청과 광, 건넛방 등을 배치하였다. 근대한옥의 특징인 대청이 매우 축소되어 전면에 배치되어있고 그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했다. 두 칸 대청도 중앙에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좌우로 분리했다. 대청 후면으로는 넓은 광을 배치했는데 이러한 안채의 안광 설치는 조선후기 이후 전남지방 가옥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안방은 현재 후면 퇴까지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본래는 중앙에 미서기문이 있는 상 하방 구조였고, 후면 퇴 칸은 마루였다. 툇마루는 전면과 양 측면에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우측 툇마루가 독자적으로 발달되어있다.

가구는 2고조 5량 형식이며, 양식은 민도리형식이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각 실의 창호는 일반적인 띠살문을 설치하였으나, 대청 상부에는 유리창을 설치하여 근대기 한옥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집이다. 평면구성은 우측으로부터 부엌, 방, 방, 광 순으로 나란히 꾸며져 있고 전면 한 칸에는 마루가 설치되어있는데 퇴 칸 형식이 아닌 온 칸 규모로 매우 넓다. 구조는 2구조 5량 형식의 민도리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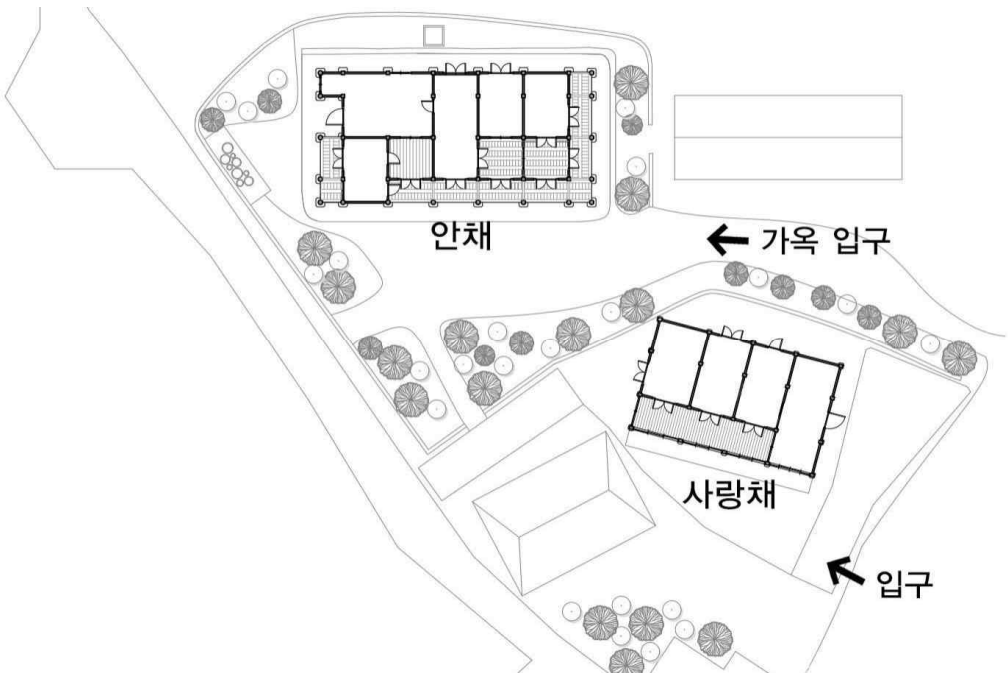


그림 68. 왕산리 근대한옥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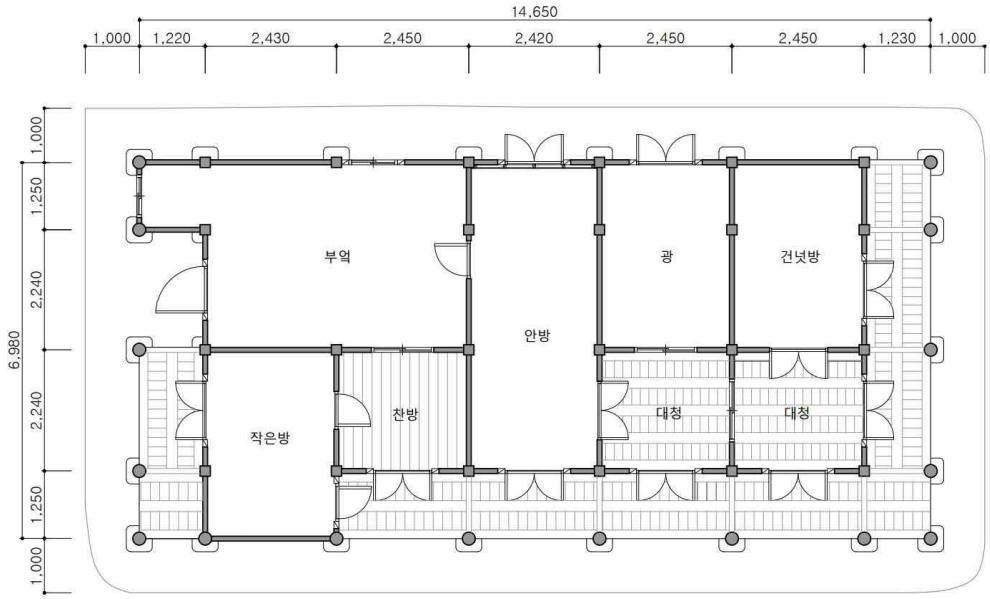


그림 69. 왕산리 근대한옥 안채 평면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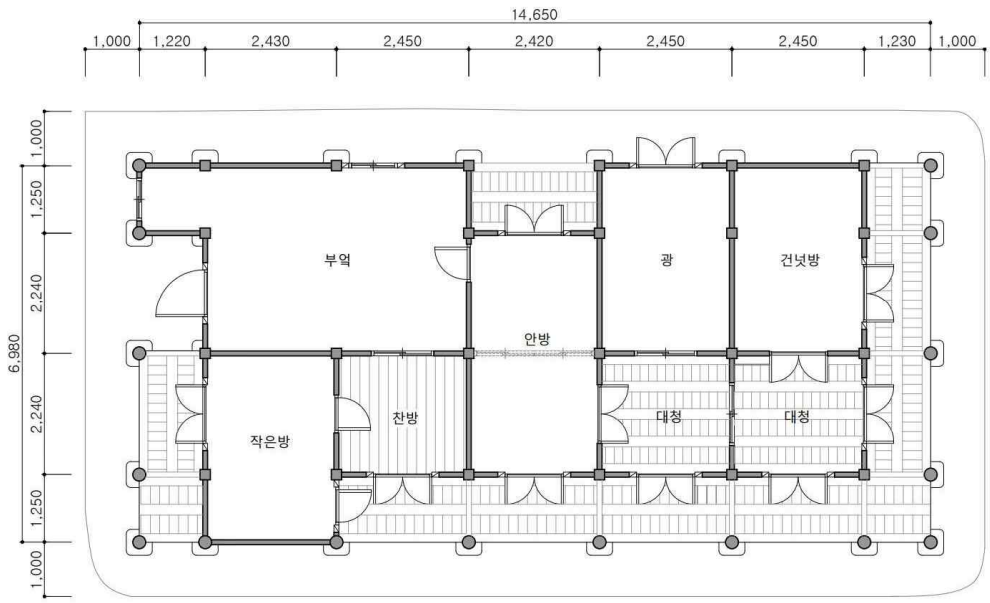


그림 70. 왕산리 근대한옥 안채 평면도(건립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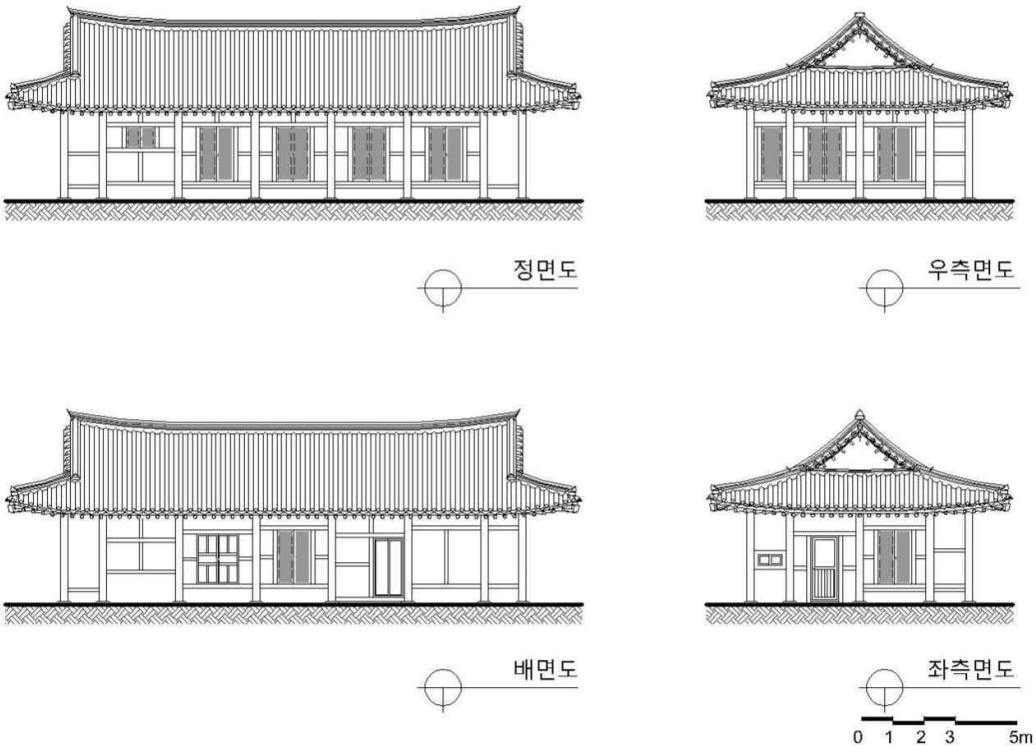


그림 71. 왕산리 근대한옥 안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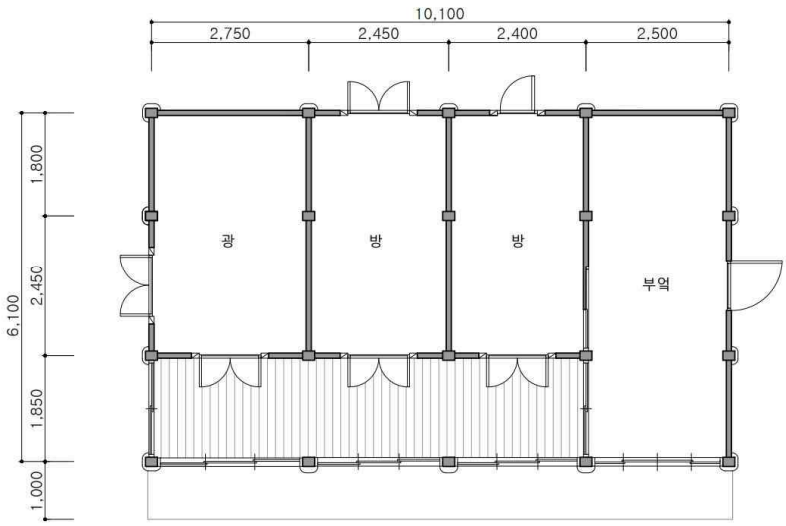


그림 72. 왕산리 근대한옥 사랑채 평면도

사진 162. 안채 정면 전경

사진 163. 안채 좌측면 전경

사진 164. 우측 합각부

사진 165. 용마루 기와

사진 166. 대청 상부 광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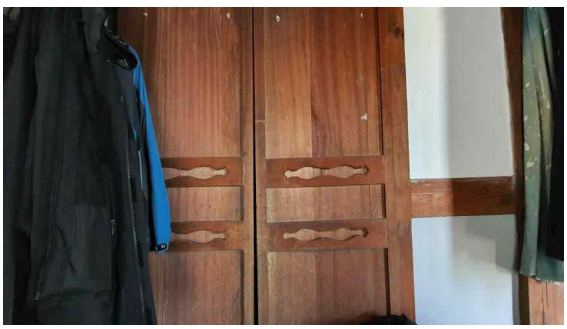


사진 167. 광 출입문

사진 168. 대청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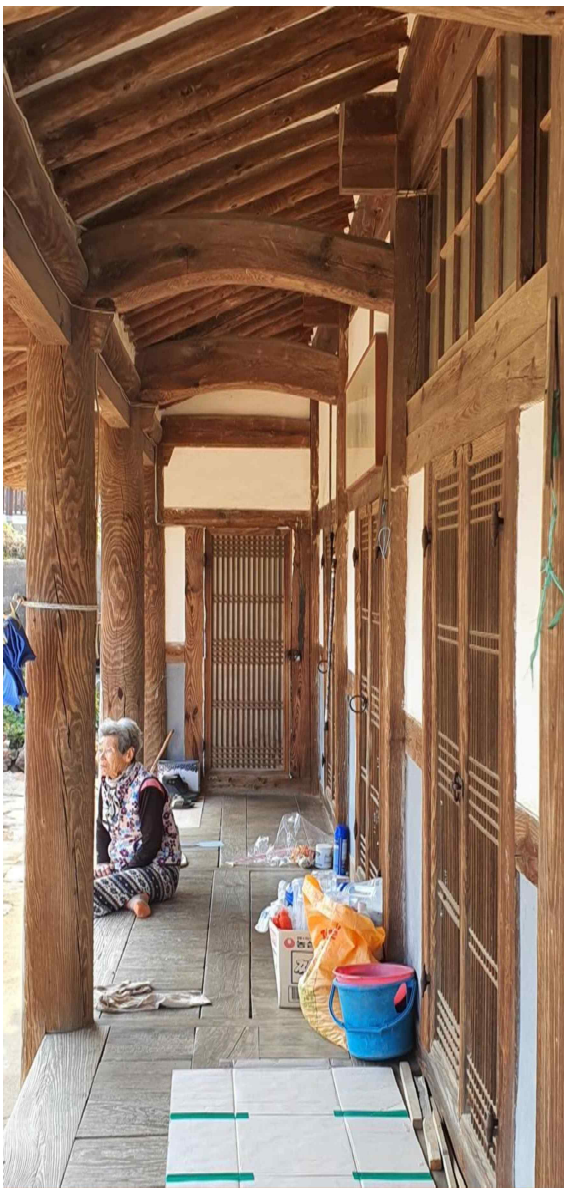


사진 169. 안채 전면 퇴 칸

사진 170. 안채 기단

사진 171. 안채 대청

사진 172. 사랑채 전경

사진 173. 사랑채 전면 퇴칸 상부

사진 174. 사랑채 광창

Ⅲ

종합 고찰

1. 근대문화유산의 역사 및 건축사적 의미
2. 보존 및 활용 방안
3. 지속적 조사 및 연구

Ⅲ. 종합 고찰

1 근대문화유산의 역사 및 건축사적 의미

-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서구의 근대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 목포 등이 개항되어 외국의 문화가 유입되면서부터이다.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사이는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에만 젖어 있던 한국에 새로운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었고 그중 건축유적은 우선 외형적으로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기존의 유적과는 크게 차별이 되었다.

- 건축물은 시대적 산물로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 즉 건축에는 기능성, 장소성, 시대성이라는 요소가 있어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의 역사적 현장이 되고 있다. 실체가 있어 시각 및 감각적으로 쉽게 의미 전달이 되고 장소성에 의해 지역의 고유문화도 전달된다. 또한 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를 연결해 주고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대유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안의 근대건축은 역사적으로 전통건축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 그간 한국 사회에서 근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유산 역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에 근대에 관련된 조직이 생겨난 것도 2,000년경 이후다. 이제 근대문화유산이 지니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역사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무안군의 근대문화유산을 제도권 내에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근대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전통과 현대의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연구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안군의 근대건축물의 경우 목포의 영향을 받아 석조 중심의 건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한편 현경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비행기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 일본군의 군사시설도 매우 중요한 근대기 전쟁시설로 주목이 간다. 또한 군산동 상수시설은 그 가치가 매우 큰 근대 산업시설임에도 그간 세상의 관심 밖에 있었다.

2 보존 및 활용 방안

이번 조사된 무안군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으로는 근대건축물과 일제강점기 전쟁구조물, 그리고 상수시설이 있다. 근대건축물로는 천주교회 2곳과 근대한옥 1곳이 있다. 천주교회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고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옥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특히 근대기 이 지역 부농가의 구조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군용기 격납고는 그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무안 일본군 비행장 격납고는 6기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일제 태평양 전쟁 시기 전남지역의 전시상황을 잘 보여주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등록 보호될 가치가 충분하다. 격납고 외에 방공포대, 병산에 있는 참호와 방공호도 일본군의 전쟁시설물로 주목이 간다.

군산동 상수시설 2기는 목포 부민의 식수 조달을 위해 일제강점기 초기 무안에 설치한 시설물로 근대기 상수도 관련 연구와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산업시설이다.

2-1.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

1)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역사 및 구조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필요성이 있다. 2001년에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인 근대문화유산이 역사시대의 문화유산에 비해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유럽 · 일본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환경을 나타내주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거시적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생활과 삶, 장소, 그리고 역사까지를 포함하여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의 문화재 지정 절차보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정문화재 제도의 일방적인 정책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가 엄격한 보호와 규제를 바탕으로 한 원형 유지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완화된 보존조치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머물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에 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을 박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인정되어 바로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유적은 다음 표와 같이 4건이다.

표 17.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목록

번호	명 칭	소 재 지	건립 연도	분류	비고
1	무안 천주교 일로성당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40	1958년	종교	
2	무안 현경 비행기 격납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평산리	1940년대 초	전쟁	6기
3	무안 현경 방공포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산 88	1940년대 초	전쟁	
4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49.38	1916년, 1928년	산업	2기

비행기 격납고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된 사례로는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등록문화재 제 39호, 2002년 지정)와 밀양 구 비행기 격납고(등록문화재 제 206호, 2005년 지정)가 있다. 남제주 격납고는 현재 19기가 남아 있는 전쟁관련 시설물로 1937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대규모 전투기 격납고다. 밀양 격납고 역시 일본군이 1940년 전후에 축조한 것으로 현재 2기가 있다.

상수시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 된 사례로는 1940년 초에 만들어진 강원도 동해 구 상수시설(등록문화재 제 142호, 2004년 지정)이 있다. 침전지, 기계실 및 여과지, 정수지 등 6식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무안 군산동 상수시설은 동해 상수시설 보다 설치연도가 약 24년 정도 빠르며 관련시설물도 규모나 형식 등에서 크게 비교가 된다.

성당건축이 등록문화재로 지정 된 사례는 무척 많은데 그 이유는 근대기 서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천주교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고 그 중심 공간으로 일찍이 성당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정 된 사례로는 2019년 12월에 등록문화재 제 764 호로 지정된 목포 경동성당이 있다. 석조 건물인 이 성당은 1954년에 건립됐으며 시공은 무안 일로 성당을 건립한 손양동이 했다. 즉 4년 후에 일로 성당을 건립했으며 이보다 1년 먼저 무안성당도 공사했다.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 등록문화재 제39호

밀양 비행기 격납고 / 등록문화재 제 206호

동해시 구 상수시설 / 등록문화재 제142호

목포 경동성당 / 등록문화재 제764호

사진 175. 등록문화재 지정 사례

2) 지방문화재 지정

등록문화재 지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유적은 전라남도 지방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자료 등)로 신청하여 제도권 속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왕산리 근대한옥, 무안성당, 병산 방공호와 참호 등 4건이다. 특히 병산의 방공호와 참호 같은 근대기 군사시설은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희소성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무안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하여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까지 무안군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재실, 정자 등 전통건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근대시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훼손과 멸실의 우려가 큰 일제 시기 군사시설인 방공호와 참호 등은 먼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

왕산리 근대한옥도 주거사 측면에서 일찍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 된 유교리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 167호, 1984년 지정)과 함께 이 지역 근대기 부농의 가옥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보존가치가 큰 한옥이다.

표 18.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지정 신청목록

번호	명 칭	소 재 지	건립 연도	분류	비고
1	무안 왕산리 근대한옥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872	1938년경	주거	
2	무안 천주교 무안성당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7	1957년	종교	
3	무안 병산 방공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산 59-5	1940년대 초	전쟁	3기
4	무안 병산 참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산 59-5	1940년대 초	전쟁	2기

2-2. 지속적 활용 방안

전통과 현대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일은 새롭게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 으로 보존을 전제로 하며 그 가치와 기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된다. 근대문화유산의 활용방안으로는

· 지역의 독자성을 표출하는 심벌로 활용
· 주변 문화재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관광안내소나 갤러리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로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및 공방 등으로 이용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은 전통문화유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 현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전근대 시기의 것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 연속성을 지니는 생활유산 및 산업유산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천주교 성당

1950년대 후반에 건립된 천주교 무안성당과 일로성당은 근대건축물 그 자체로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시설로서 두 건물의 보존 및 지속적 활용은 지역의 195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무안지역 종교 활동을 투영시켜 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성당은 근대건축물을 그 자체로 남겨 지금처럼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보존방법이다. 현 등문화재 제도가 외형의 변경이 없으면 내부는 어느 정도 변형을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행스럽게 두 성당의 관계자들도 보존 의지가 강하여 관계 당국의 문화재 지정 협조만 있다면 두 성당의 지속적 보존과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두 교회는 '손양동'이라는 석조장인이 공사 전반을 맡은 석조건축으로서의 당시의 시공 과정과 건축재료 등이 잘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비슷한 시기의 성당건축보다 구체적인 건축기술이 잘 드러나고 있다.

2) 비행기 격납고, 방공포대 등 전쟁 관련 시설물

비행기 격납고, 방공포대, 방공호 등은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연합군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무안지역에 건설한 전쟁 관련 시설물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을 건조물이다. 보존의 방법은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일본 침략의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교훈 장소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 주변을 공원화하고 기념관 건립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비행기 격납고는 소규모 공연장이나 예술가들의 활동공간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격납고의 면적이 우선 농촌지역의 규모에 적정하고 형태도 특이하며 방음 등도 적절하게 갖춰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에 모든 여건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풍부한 자연적 감흥을 활용한 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예술가들의 작업 및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변화는 문화적 소외지역인 농촌 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농촌 문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군산동 상수시설

군산동 2기 상수시설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목포 부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축조된 대형 상수시설이다. 현재 수원 확보를 위해 막은 댐과 취수정, 그리고 정수를 위한 구조물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잘 남아있다. 이곳은 근대기 수원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대형 시설로서 그 차체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기계실 건물은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다.

군산동 상수시설은 진입로 정비,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주변 정비를 하여 이곳을 인근 목포와 무안 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지 하부는 수목이 울창하여 상수시설 전체를 공원화하는 방안과 또한 현재 국사봉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어 그와 연계한 종합 관광개발 계획의 필요성도 있다.

4) 왕산리 근대한옥

왕산리 한옥은 일제강점기 부농의 주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근대한옥이다.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소유자도 보존의 의지가 있다. 현재 무안군 내에는 국가 민속 문화재인 유교리 고택이 있으나 본 가옥도 그에 못지않은 건축적 특징이 있다. 우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후 차후에 도 지정 문화재, 또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승격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소유로 되어있는 사랑채는 다소 변형이 되어 있으나 향후 같이 보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지속적 조사 및 연구

무안의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는 주변 목포, 신안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 학술 조사 및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꾀하고 ‘지속적인 보전’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은 문화재 보존을 넘어 활용을 통해 ‘죽어있는 문화재’에서 ‘살아있는 문화재’로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안군의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도 그러한 측면으로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문화유산을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민들의 일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시적 변화에 주목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 결합의 공간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조사는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한 1차 현장조사 성격(지표조사)의 과업이다. 국가 등록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 하여는 개별 유적별로 역사나 구조, 양식 등 구체적인 2차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과 상수시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관계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무안 근대문화유산 조사

집　　필 : 김지민(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발 행 처 : 무 안 군
발 행 일 : 2019년 12월 24일
인 쇄 처 : 중앙기획(Tel. 061-276-0276)